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9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운영모형 개발

-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

K O R E A Y O U T H C O U N S E L I N G I N S T I T U T E

책임연구자 | 이영선 공동연구자 | 강석영, 김병관, 정혜연, 방나미



한국청소년상담원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9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운영모형 개발

-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

K O R E A Y O U T H C O U N S E L I N G I N S T I T U T E

책임연구자 | 이영선 공동연구자 | 강석영, 김병관, 정혜연, 방나미



한국청소년상담원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청소년상담연구 159

솔리언뜨래상담 학교운영모형 개발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인 쇄 : 2010년 12월

발 행 : 2010년 12월

저 자 : 한국청소년상담원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091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사) 한국장애인 e-work 협회

비매품

ISBN 978-89-8234-470-1 93330

ISBN 978-89-8234-001-7(세트)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솔리언뜨래상담 학교운영모형 개발 : 운영지침을 중심으로 / 책임
연구자: 이영선 ; 공동연구자: 강석영, 김병관, 정혜연, 방나미. --
서울 : 한국청소년상담원, 2010
p. ; cm. -- ((2010) 청소년상담연구 ; 159)

참고문헌 수록

권말부록: 솔리언뜨래상담 학교운영지침 포커스그룹 인터뷰 문항
등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

ISBN 978-89-8234-470-1 93330 : 비매품

ISBN 978-89-8234-001-7(세트)

청소년 상담[靑少年相談]

334.3-KDC5

362.7-DDC21

CIP2010004740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간행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방향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반영하여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솔리언또래상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1994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및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1,500여 개교에서 10만여 명의 또래상담자를 배출하였으며, 솔리언또래상담 심화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또래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솔리언또래상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솔리언' 이라는 또래상담 브랜드를 개발하고, 책자 중심으로 배포되던 자료를 웹교재 형태로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차 5개년 계획' 중 또래상담이 학교폭력예방과 건전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 중학교 600여 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으며, 향후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또래상담 보급 정책은 또래상담 기능의 강화와 운영 확대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래상담이 위기청소년 조기발견과 개입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에 따라 교사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솔리언또래상담교육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솔리언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반을 체계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세부지침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에 개발된 기존 '학교에서의 또래상담운영지침' 이 있으나,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형태가 변하고,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정책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등 환경적 변화에 맞춰 기존 또래상담운영지침의 수정 및 보완이 요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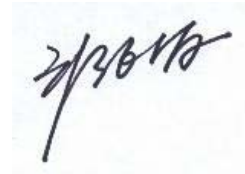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교사가 효과적으로 또래상담

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교운영모형과 또래상담운영지침서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또래상담을 운영해나가는데 필요한 절차 및 업무와 활동을 세부적으로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또래상담이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청소년 상담관련자들과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신 현장 전문가와 자문위원, 허윤정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영선 박사님, 강석영 박사님, 김병관 선생님, 정혜연 선생님, 방나미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또래상담을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0년 12월

원장 차 정 섭



K
O
R
E
A

Y
O
U
T
H

C
O
U
N
S
E
L
I
N
G

I
N
S
T
I
T
U
T
E

초 록

최근 확대되고 있는 청소년 학업중단이나 비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기개입의 방안으로 또래상담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또래상담의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래상담운영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2000년에 ‘학교에서의 또래상담운영지침’을 발간하여 또래상담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래상담운영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침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또래상담운영 모형 개발이 필요해졌다. 2010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전국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이 운영되는 바, 또래상담운영 모형 및 지침서 개발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학교현장 중심의 또래상담 운영지침서와 학교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또래상담 운영지침서와 학교운영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선행연구를 통해서 국내외 또래상담 운영 연구와 현황을 파악하고, 또래상담의 성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 지침서의 분석을 통해서 기존 지침서의 전체적인 구성과 단계별 과정을 분석하였다. 기존 지침서에서의 준비, 기획, 훈련, 활동지도, 평가의 5단계를 이해, 기획, 운영, 평가의 4단계로 수정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기존지침서 분석을 한 후에는, 설문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지침서 구성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문조사는 세 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2009년 또래상담교육을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고, 또래상담 운영 유/무 확인, 운영 및 비운영 관련 정보 수집, 또래상담정책 상황, 운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2010년 또래상담교육을 참여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현장 설문의 결과를 통해서 향후 학교에서 또래상담 운영 시 지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였다. 세 번째 설문조사는 2010년 또래상담자 캠프에 참여한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설문을 통해서 또래상담 참여 및 활동 지속 요인, 또래상담 촉진 요인, 또래상담 경험 등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이외에 심층적인 요소 도출을 위한 과정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

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대상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실무자, 지역별 또래상담 현장 전문가, 또래상담 운영 현장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연구자들이 각 집단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직접 실시하고 전체 인터뷰 축어록을 코딩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지침서 초안과 구체적인 모형 구축의 자료를 확보하고, 또래상담 이해, 또래상담 기획,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 평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단계에 걸친 논의와 범주 도출 과정을 통해서 공통 범주를 도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 축어록 코딩, 2단계에서는 1차 범주 구성 회의 및 전체적인 범주 목록 도출, 3단계에서는 2차 범주 구성 회의 및 추가 범주 목록 도출, 4단계에서는 3차 범주 구성 회의 및 추가 범주 목록 도출, 5단계에서는 최종 범주 목록이 구성되었다.

선행연구,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범주 목록의 결과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학교 또래상담 운영지침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개발된 지침서의 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타당도 검증은 또래상담 운영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지침서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지침서 구성에 대한 심층 의견 수렴하고, 운영 지침서의 현장 활용도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또래상담 모형 개발 및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또래상담 운영을 4단계 모형과 세부 지침을 통해 체계성과 통일성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를 통한 지침서 개발은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강화시키고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셋째, 최근의 교육 현황과 또래상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의 실제적인 운영지침서를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넷째, 지침서 개발 연구를 통해서 학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도자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례와 팁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지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사례를 제공하였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 및 제약을 지니고 있다. 먼저, 연구기간의 한계로 개발된 지침서를 실제 학교또래상담 운영에 활용하지 못하였다. 차후 시범운영을 통해 지침서의 활용성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또래상담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교현장의 다양성 반영이 다소 미흡하였으며, 향후 학교별,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상황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실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인 청소년의 견해가 미약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후 연구에서는 청소년 또래상담자의 의견 반영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I. 서 론 |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과제	3

II. 이론적 배경 | 4

1. 또래상담의 의미 및 중학교 모형개발 배경	4
가. 용어정의	4
나. 중학교 또래상담 운영의 필요성	5
2. 국내 또래상담 현황	6
가. 국내 또래상담 정착 과정	6
나. 또래상담 조직 현황	8
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8
3. 외국의 또래상담 운영 현황	12
가. 외국 연구에서의 또래상담 운영 조건	12
나. 외국 또래상담 운영 내용 및 활동 현황	13
다. 외국 또래상담 프로그램	14
라. 전문화된 영역을 다루는 외국 또래상담	16
4. 또래상담 성과 연구	17
가. 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	18
나.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효과연구	19

III. 지침서 개발 절차 및 연구과정 | 21

1. 운영지침서 개발	23
가. 문헌연구	23
나. 설문조사	28



다. 실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48
2. 지침서 운영 단계 구성	74
가. 운영지침서 구성과 내용	74
3. 지침서 타당도 검증	77

VI. 요약 및 논의 | 84

참고문헌	87
------------	----

부 록

1.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운영지침 포커스그룹 인터뷰 문항	95
2. 2009년 또래상담 교사대상 설문지	96
3. 교사직무연수 지도교사 양성 설문지	101
4. 또래상담 캠프 설문지	103
5. 또래상담 학교운영 지침서 현장활용도	104
6. 실무자 워크숍 설문자료	105
7. 포커스그룹 인터뷰 요약	109



표

표II-1. 한국청소년상담원 또래상담 관련 간행물	9
표II-2. '솔리언또래상담 work book'의 주요 내용	10
표II-3. 활동프로그램 내용	11
표III-1. 기존지침서 단계별 논의	23
표III-2.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 비교표	26
표III-3. 설문조사 대상	28
표III-4. 전체 연구 목적 및 연구 집단별 설문목적	29
표III-5. 2009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대상 설문지 구성	31
표III-6. 2010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대상 설문지 구성	40
표III-7. 청소년 또래상담자 대상 설문지 구성	45
표III-8.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49
표III-9. 인터뷰 질문 문항 구성	51
표III-10. 전체적인 범주 목록표	53
표III-11. 추가 범주 목록표	54
표III-12. 핵심 범주 요소 목록	55
표III-13. 단계별 주요 범주와 세부 범주 목록	55
표III-14. 학교운영지침서 구성안	77
표III-15. 타당도 검증 전문가 집단 인적사항	78
표III-16. 현장 활용도 1차 타당도 검증 설문지 문항구성	79
표III-17. 현장 활용도 1차 타당도 검증결과(5점 만점)	80
표III-18. 질적 타당도 검증결과	81
표III-19. 2차 타당도 전문가 인적사항	84
표III-20. 현장활용도 2차 타당도 검증 설문지 문항구성	85
표III-21. 현장 활용도 2차 타당도 검증결과(5점 만점)	86
표III-22. 현장 활용도 타당도 검증결과 총합	86



그림 I

그림III-1. 운영지침서 개발 절차 모형	21
그림III-2. 운영지침서 개발 모형 흐름도	22
그림III-3. 운영지침서 비교	7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구성폭행사건, 집단따돌림 및 폭행에 이어 폭력적인 졸업식 뒤풀이 문화 등 끊임없이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가 없어지고 학원만 있어도 학생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학교무용론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이기정, 2007). 이에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교육문제의 해결방안인 ‘사교육 없는 학교’ 정책으로 2012년까지 전국의 초·중·고교 1,000곳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폭력문제도 함께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몇 년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2005년부터 실시한 ‘학교폭력 1차 5개년 계획’은 인프라구축을 주된 목표로 진행되었으나 학교폭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부터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에 있다.

2차 5개년 계획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전국 중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 보급을 계획하고 있으며,¹⁾ 2010년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 중학교 600여 곳을 시작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보급하는 중에 있다. 이러한 보급 사업은 또래상담 기능 강화와 또래상담운영 확대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초기에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또래상담이 채택된 이유는 청소년 스스로가 고민이 있는 또래친구를 돕는다는 프로그램 특성상 청소년기 또래문화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 중 어머니는 18.5%, 교사는 1.2%에 불과했으나 친구는 무려 53.6%로 집계되었다(통계청, 2008).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또래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또래상담이 학교폭력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또래상담 관련 연구들을 분석해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진

1) 출처; 2010년 1월 13일자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래상담을 통해 또래상담자의 건강한 성장은 물론 또래상담자가 속한 학급과 학교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므로 또래상담은 학교 내 위기상황 또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이 학업중단이나 비행으로 이어지기 전 위기청소년에 가장 근접하여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개입할 수 있어 학교폭력의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4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확대 보급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그 동안 1,500여 개교에서 10만여 명의 또래상담자를 배출하였다²⁾. 최근 들어 2006년에는 ‘또래상담조직의 운영체제 구축 및 활성화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조직이 전국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운영체제와 활성화 요인을 제시하였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솔리언또래상담 전문지도자 교육과정 개발연구(2007)로 또래상담의 전국 보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또래상담 전문지도자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프로그램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갖추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솔리언또래상담’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하고 기존의 책자 중심의 자료를 웹교재 형태로 개편하여 확대 보급하고자 하였다.

2010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전국의 중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훈련을 받은 교사가 현장에서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또래상담반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세부지침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에 개발된 ‘학교에서의 또래상담운영지침’이 있으나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서 현재 학교현장에서 이 운영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형태의 변화가 있으며, 학업성취 위주의 교육정책에 따라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 아울러 학교에서 또래상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연계기관 등 환경부문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또래상담 운영지침 개발을 중심으로 학교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2) 출처; 한국청소년상담원 사업실적보고서

2. 연구과제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운영모형개발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차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또래상담의 안정적인 운영 및 정착과 이후 솔리언또래상담의 확대운영의 기초가 될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현장에 적합한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운영모형을 개발한다.

둘째, 현장 활용성이 강화된 학교 또래상담 운영지침을 개발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또래상담의 의미 및 중학교 모형개발 배경

가. 용어 정의

Vanrenhorst(1984)에 따르면, 또래상담은 Vriend(1969)가 낮은 학업성취 수준의 학생들과 또래들과의 상담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또래조력자(Peer helper), 또래대사(Peer ambassador), 또래촉진자(Peer mediator)등 30여가지의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관용, 김순화(1983)와 이형득, 김정희(1983)등에 의해서 동료상담이 소개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청소년또래상담, 2004). 전문상담자들은 여러 용어 중에서 또래상담자란 용어의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데 또래상담자의 활동내용이 정교한 의미에서 상담활동이기 때문이다(채연희, 2003). 그리하여 또래상담자는 충고보다는 공감과 존중, 조언이나 비판보다는 경청하는 역할을 중요시한다. 또한 또래상담자는 친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문제 상황과 자신에 대한 각성과 이해를 촉진시켜 자신이 해결책을 찾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구본용 등, 1994).

이전에 또래상담에 대해 많은 정의가 있지만 학교장면에서의 또래상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May와 Rademacher(1980)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또래학생이 다른 또래학생의 학업, 인성, 행동 등을 조력하는 것’이라 정의하였고, Lombardi와 Carek(1978)은 ‘연령 차이가 3세 이내인 또래 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교 적응문제, 직업문제, 개인문제 등에 관하여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연문희와 강진령(2002)은 자발적으로 타인을 돕기 원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하게 한 후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또래상담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형득과 김정희(1983), 장혁표(1986), 홍경자와 김선남(1986) 등 많은 학자들이 또래상담을 정의하며 또래상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1994년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전신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에서 또래상담자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또한 또래상담 운영방안연구(1999), 청소년또래상담(2004), 또래상담조직의 운영체제 구축

및 활성화 연구(2006)등 활발한 또래상담 교육 및 연구 등이 진행되어오고 있다. 현재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또래상담의 정의를 종합하여 솔리언이라는 특성로고와 솔리언또래상담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작 보급하고 있다. 솔리언또래상담이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또래들의 문제해결을 돕는 것으로 청소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장려하면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그 목적을 두고 청소년들 중 자질이 있으면서 활동에 대한 동기가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훈련을 통해 솔리언또래상담자로 양성하여 활동하게끔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나. 중학교 또래상담 운영의 필요성

대구 성폭행사건, 노숙자 폭행사건, 밀양지역 집단성폭행사건과 중학교의 졸업식문화에 대한 문제 등 많은 청소년문제가 끊임없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학생으로 나타나 문제 대상의 저 연령화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달리 빨라진 신체적 발육, 정서적 발달로 인해 청소년 전기에 신체, 인지, 정서, 사회,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불안과 스트레스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사회나 부모에 대한 반항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이렇게 청소년기는 사회적 접촉의 미숙으로 갈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 갈등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또래문화를 형성하며 사회를 경험하게 되는 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의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에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패턴으로 생활을 공유하면서 지내게 되는 친구에 대한 의미는 매우 중요할 수 있는데 비슷한 나이의 같은 또래이며, 상담자, 역할모델, 또한 문제에 당면했을 때에는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문제해결자로서 청소년 시기의 친구의 지지에 대한 욕구는 매우 크다(청소년또래상담, 2004). 그러나 청소년기 친구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반면에 여기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관심과 대처방안에 대한 사회적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부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차 5개년 계획'의 하나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기능의 강화와 또래상담운영의 확대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초기인 중학생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정책으로 청소년 초기에 개인, 또래, 학교 등의 갈등과

부적응 문제 개입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내 또래상담 현황

가. 국내 또래상담 정착 과정

우리나라에서 또래상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시점은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성덕(2009)에 따르면 당시 몇몇 대학의 학생생활연구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제도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대학생이 프로그램을 마친 후, 리더나 코리더로 집단상담을 운영하는 형태로 ‘동료상담’이라는 용어로 소개되었다(이관용, 김순화, 1983; 이형득, 김정희, 1983; 장혁표, 1986; 홍경자, 김선남, 1986).

이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1994년 청소년용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부터 전국의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4). 처음에는 또래상담자를 양성할 수 있는 또래상담지도자를 중심으로 보급하였으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그 규모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또래상담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또래상담 전문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지도자 양성을 위촉하는 구조를 갖추어 조직적인 양상으로 프로그램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부터 현재까지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또래상담사업은 크게 5단계로 구분된다.

1) 1994년-1996년: 1차 상담서비스를 강조한 준상담자 훈련

또래상담 사업을 시작한 초창기에는 수적으로 부족한 학교상담자를 대신해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민감하게 감지하여 1차적 상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또래상담자를 우선적으로 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또래상담자를 교육하는데 있어 의사소통훈련과 문제해결 능력에 중점을 두고 교육한 시기로, 이 시기에 개발된 3종의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은 또래상담 기본자질 훈련프로그램(1994), 갈등관리 프로그램(1995), 좌절관리 프로그램(1996)으로 또래상담자들이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사소통훈련과 친구관계에서 경험하는 갈등과 좌절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2) 1997년-1998년: 또래상담자의 기본역할 규정

이 시기 초기에는 또래상담자 자신의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또래상담자가 대안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학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또래상담자 자신의 친구관계 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또래상담자의 기본 역할을 3가지, 즉 ‘친한 친구’, ‘대화하는 친구’, ‘도움주는 친구’로 정의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또래상담의 핵심요소가 되는 3가지 정신을 확립한 시기이다.

3) 1999년: 또래상담의 운영체제와 조직 강조

이 시기에는 또래상담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또래상담지도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절차,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운영지침(1999)을 개발하여 준비단계에서부터 기획단계, 운영단계, 활동단계,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지침으로 제공함으로써 단순히 또래상담자 훈련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또래상담 활동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체제에 관심을 두어 본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에서 보다 활발히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4) 2000년-2002년: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별 특징을 강조한 또래상담

이 시기에는 청소년기의 발달단계별 또래상담 방안을 탐색하고 급별 수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분화된 프로그램에 힘썼던 시기이며 또한 또래상담지도자들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또래상담 전문지도자 과정을 처음으로 신설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5) 2003년-현재: 또래상담자 정신 확립 및 운영 조직 확대

2003년부터 지금까지는 또래상담자에게 중요한 3가지 정신으로 우정(Friendship), 상담자정신(Counselorship), 지도자정신(Leadership)을 확립하고, 또래상담이 지역 내의 조직, 전국적인 조직의 형태로 힘이 모아지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07년에는 또래상담프로그램에 BI(Brand Identity)를 구축하여 ‘솔리언또래상담³⁾’이라는 명칭으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3) 솔리언또래상담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의 등록상표이며 ‘솔리언’이란 solve(해결하다)+ian(‘사람’을 뜻하는 접미어)의 합성어로 ‘친구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하며 돕는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 또래상담 조직 현황

솔리언또래상담 보급은 그 대상이 크게 솔리언또래상담자 훈련 및 양성,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와 전문지도자 양성으로 나누어진다. 본원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과 솔리언또래상담자 훈련 및 활동의 활성화,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와 전문지도자 양성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전개해 왔다. 사업규모가 커지고 솔리언또래상담자 훈련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본원에서는 솔리언또래상담 전문지도자가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를 양성하고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들이 솔리언또래상담자들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었고, 이에 준해서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까지 양성된 또래상담자 수는 64,000여명으로 추정되며, 9,580여명의 또래상담지도자, 350여명의 전문지도자가 배출되었다. 프로그램을 시행한 학교는 954개에 이른다. 중학교가 506곳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389곳, 초등학교 81곳의 순이다.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는 학사 이상의 교사 혹은 청소년지도자로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솔리언또래상담반을 직접 운영하는 지도자이며, 솔리언또래상담 전문지도자는 솔리언또래상담지도자를 양성하고 솔리언또래상담 운영 및 사례에 대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한다.

또래상담이 활발하게 보급된 지역에서는 학교간의 모임인 또래상담자 연합회가 구축되어 또래상담자 캠프, 또래상담자 대회, 캠페인 등 조직적인 활동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 외에도 교회, 성당, 학원, 대기업, 상담기관 등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1) 훈련프로그램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1994년 이래 꾸준히 또래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 왔으며 <표II-1>에 제시하였다. 이중 현재 또래상담 훈련 및 지도자 교육에 사용되는 교재는 '솔리언또래상담 work book'이며 주요 내용은 <표II-2>와 같다. 지도자는 솔리언또래상담 지도자과정(15시간)을 수료한 후 지도자로 활동 할 수 있으며 전문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프로그램을 12시간으로 하여 2회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

표II-1. 한국청소년상담원 또래상담 관련 간행물

분류	훈련 프로그램	보고서	지도자 지침서	또래상담교구재
1	청소년의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II (1995)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1994)	학교에서의 또래상담운영방안 (2000) 초중고 또래상담지도자 지침서(2001)	솔리언또래상담자 수첩(2007)
2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길(1995)	또래상담 운영방안 연구(1999)	또래상담자 심화훈련프로그램 또래상담지도자지침 서(2003)	
3	청소년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III (1996)	학교현장에서의또 래상담 프로그램효과검증 연구(2000)	솔리언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2008)	
4	청소년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IV (1997)	단계별 또래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2000)	군솔리언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지도자지 침서(2009)	
5	초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또래상담조직의 운영체제 구축 및 활성화 연구(2006)		
6	중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솔리언또래상담전 문지도자 교육과정개발연구 (2007)		
7	고등학생용 또래상담 프로그램(2001)	군솔리언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2008)		

표II-2. '솔리언또래상담 work book'의 주요 내용

구분	주제	교육내용
1부 들어가기	1장 들어가기	-친해지는 마당, 본인 소개 -솔리언또래상담 소개, 함께 지킬 약속정하기
2부 Friendship	2장 친한 친구되기	-친해지는 마당 -친구의 의미는?
	3장 나의 친구관계 살펴보기	-친해지는 마당 -친구관계 살펴보기·돌아보기·생각하기
	4장 친구에게 다가가기	-친구관계 걸림돌,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기 -우정곡선 그리기
3부 Counselorship	5장 대화하는 친구되기	-솔리언또래상담 대화의 자세 -친구의 마음을 공감하기, 공감 연습하기
	6장 대화 잘 이끌어가기	-어기역차 전략 이해하기 -어기역차 연습하기
	7장 잠하들셋 기법	-최근에 화가 났던 때는? -잠하들셋 이해하기·연습하기
제4부 Leadership	8장 도움주는 대화 배우기	-원무지계 전략 이해하기 -원무지계 전략 연습하기
	9장 대화 종합연습	-대화 종합 연습 -역할극 꾸미기
	10장 도움되는 활동찾기	-어떤 친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친구에게 도움이 되었던 경험은? -도움줄 수 있는 활동 찾기?
제5부 마무리	11장 평가	-과정 요약하기, 소감나누기 -평가 및 향후모임 구조화

2) 활동프로그램

활동프로그램이란 훈련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또래상담자 학교 활동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또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력하며 학급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 중재활동을 하는 등 학교 내에서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찾아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 영역을 구상할 수 있다.(<표II-3> 참조)

표II-3. 활동프로그램 내용

활동 프로그램	내용
개인상담	1:1 대면상담, 채팅상담, 이메일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실제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와 개인상담을 진행한다. 진행 중인 사례를 일지에 기록하여 또래상담지도자를 통해 슈퍼비전, 사례 토의 등의 형태로 관리가 이루어진다.
집단상담	또래상담지도자 및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학기 중이나 방학을 이용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신입생 학교적응 프로그램	학기초 신입생을 대상으로 선배 또래상담자들이 집단상담 형식으로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신입생들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이버상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홈페이지 내에 있는 또래상담 코너를 활용하여 또래상담지도자의 슈퍼비전 하에 고민글에 대한 답글을 또래상담자가 남긴다.
개별 학습지도	학습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내담자에게 또래상담자가 개인교사로 활동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랑의 우체통 운영	또래상담 동아리에서 상설로 '사랑의 우체통'을 운영하여 친구 생일 챙겨주기,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엽서 보내기 등으로 주변 친구들을 격려한다.
기타	그 외에도 학교 축제기간 동안 심리극 공연, 간단한 심리검사 체험하기,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한 봉사활동 전개, 전문상담기관 방문, 교복단추달아주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캠페인 전개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3. 외국의 또래상담 운영 현황

외국의 또래상담 연구에서는 또래상담의 운영 조건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외국에서 진행된 청소년 대상 또래상담은 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국내 프로그램 개발에 영향을 미친 외국 또래상담 프로그램이며, 둘째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보다 전문화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또래상담 운영 프로그램이 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학교들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조직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 외국 연구에서의 또래상담 운영 조건

또래상담 관련 연구를 진행한 외국의 연구에서 학교 또래상담의 운영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Tindal, 1995; Brackenbury, 1995). Tindal(1995)는 학교에서 또래상담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건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준비상태 고려, 구조화된 훈련 프로그램 준비, 지속적 훈련 및 수퍼비전 제공, 또래상담에 대한 평가와 연구 수행, 또래상담자의 상담활동 강조 및 지도, 또래상담자의 윤리교육 등을 언급하였다. 또래상담을 학교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또래상담 지도사 및 동료 교사, 학교 운영진, 또래상담 훈련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동기가 유발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래상담자의 선발 및 훈련과 후속 교육은 일회적이거나 단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교육과 수퍼비전이 제공되어야 한다(노성덕, 2009).

Brackenbury(1995)는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장의 승인,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 간의 협력, 또래상담반 활동에 학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시키는 것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Brackenbury(1995)는 또래상담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또래상담 활동을 해낼 수 있는 성숙한 학생들을 찾아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Brackenbury(1995)는 성숙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성숙한 학생, 신뢰로운 행동을 보이는 학생, 리더십을 발휘하는 학생, 비교적 좋은 교우관계를 유지하는 학생,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학생 등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Myrick과 Sorenson(1997)은 실제적인 또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또래상담 훈련자, 목표 설정, 지지체계확보, 훈련을 위한 장소 선택, 훈련생 선발, 훈련 커리큘럼

구조화, 또래 상담에 대한 감독과 평가, 다른 또래상담 훈련자와의 네트워크의 사항들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Myrick과 Sorenson(1997)은 다른 연구자들이 제안한 것과 다소 다른 사항을 추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또래상담 훈련을 위한 장소선택과 다른 또래상담 훈련자와의 네트워크를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노성덕, 2009).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여러 또래상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또래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관리자에 해당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허락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학교 운영진 외에도, 동료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또래상담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상담기관과의 연계와 또래 상담자 선발에도 유의해야 하며, 또래상담 훈련은 수퍼비전 하에 장기간에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또래상담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정한 보상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지역 내 또래상담자들 간에도 네트워크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노성덕, 2009).

나. 외국 또래상담 운영 내용 및 활동 현황

외국에서의 또래상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와 기관이 연합해서 조직적인 형태로 진행되는 사례들이 있으며, 여러 학교들이 서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운영은 또래상담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조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학교와 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외국 또래상담의 내용과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er Program Descriptions(2010)에 의하면, Jefferson High School and Wheat Ridge Middle School Youth Mentor Leadership Peer Mentoring Program은 YESS 기관의 '21세기 프로그램' 과 협력해서 진행된다. Jefferson 고등학교 학생들은 Wheat Ridge 중학교 학생들을 일주일 간격으로 만나서 또래상담을 진행한다. Peer Program Descriptions(2010)에 의하면, 또래상담자의 역할은 또래내담자에게 학업적인 부분, 리더십, 정서적인 부분 등에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Jefferson 고등학교와 Wheat Ridge 중학교는 외부 기관에서 구성한 효과적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두 학교가 공동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Bearden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또래상담의 주요 목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신입생들에게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또래상담자를 연결해 주고, 또래상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신입생들의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또래상담자는 신입생들에게 자신감, 지식 등을 갖추도록 돕고, 또래상담자와

신입생이 정서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도록 지지하고 있다. Bearden 고등학교는 이러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내 학생들이 안전하고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이 보장될 때, 각자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Bearden 고등학교의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각 학생들이 자신감을 얻으면서 글로벌 사회에서 성공적인 평생학습자가 되는 것은 돕는 것이다. 이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은 일대일로 또래상담자와 연결이 되며, 또래상담을 통해서 훈련과 도움을 제공받는다. Bearden 고등학교는 또래상담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학교들과 또래상담 활동과 내용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또래상담 활동의 다양성과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Peer Program Descriptions, 2010)

Simle 중학교와 Taylor Road 중학교에서도 또래상담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Simle 중학교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 이후에 또래상담자/조력자, 또래 리더십 등을 추가한 포괄적인 또래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Taylor Road 중학교에서는 신입생이 입학하면, 신입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또래상담자 학생들의 모임을 조직하여 또래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Hichingbrooke School Buddy Peer Counseling Group은 학교 중심으로 실시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또래상담자들은 학교에서 여러 연령대의 또래들을 돕기 위한 기본적인 상담 기술을 훈련받는다. 이러한 또래상담자 훈련은 학교에서 2년 정도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또래상담자들은 또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신입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및 재학생들의 건전할 발달을 돕고 있다. 또한 또래상담에서 이루어지는 또래상담자와 또래내담자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은 적극적이고 친화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 외국 또래상담 프로그램

외국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래상담을 학교에 적용하고자 하는 상담자들은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왔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Varenhorst가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소개하였으며, 이

후에 Tindall과 Gray 등이 또래상담자 양성 프로그램을 지칭화하였다. 외국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노성덕, 2009).

외국에서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에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또래상담자의 활동영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왔다(Carr, 1993). 형식적인 구성을 갖춘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Palo Alto 학군에서 11년간 또래상담을 실행하고 연구하면서 '학생 또래상담 훈련교육 안내서(Curriculum Guide for Student Peer Counseling Training)'라는 프로그램 지침서를 출판하였다. 그는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은 총 15회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7회기는 기본 기술훈련으로, 후반부 8회기는 특수문제 영역에 대한 개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반부에서는 일대일관계, 의사소통 기술, 경청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 낯선 사람 대하기, 어른 대하기, 의사결정과 과정과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상담 프로그램 소개, 가족문제, 약물 및 건강 문제, 성문제, 죽음의 문제, 민감한 문제, 전문가에게 의뢰하기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Varenhorst는 전반부는 주로 대화 기법을 통해 기본 기술을 습득하도록 했고, 후반부는 당시에 주요 관심사였던 문제 영역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내용을 구성하였다.

Varenhorst에 이어서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친 연구자들은 Tindal과 Gray(1985)이며, Tindal과 Gray가 구성한 프로그램도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효과적인 또래상담자가 되기 위한 기본 기술훈련을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다양한 장면과 주제별로 또래상담 기술을 적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Tindal과 Gray의 프로그램의 구성은 Varenhorst의 프로그램 구성과 유사하다. Tindal과 Gray는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이 집단상담처럼 진행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세부적인 상담기술과 태도를 가르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Tindal과 Gray의 프로그램의 전반부인 기본 기술훈련 부분에서는 초보상담자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대화기술이 제시되어 있으며, 후반부인 주제별 적용에서는 다양한 문제 영역에 접근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Carr와 Saunders(1998)의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왔다. Carr와 Saunders가 구성한 프로그램은 Varenhorst와 Tindal과 Gray와 달리 2부를 구조화하지 않았으며, 전반부에서는 11회기로 기본기술훈련을 다루고, 후반부에서는 또래상담자들의 상담활동에 대한 수퍼비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훈련방법에 있어서도 Tindal과 Gray의 제안과는 차이를 두었다(노성덕, 2009). Tindal과 Gray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준전문가 양성교육임

을 강조하여 기본 개념을 가르치려 했지만, Carr와 Saunders는 명확한 상담기술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학생들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Carr & Saunders, 1998).

이렇듯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구성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국내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구성과 개발에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다.

라. 전문화된 영역을 다루는 외국 또래상담

외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에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영역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외국에서는 또래상담이 개입하는 영역이 약물남용, 문제행동, 갈등해결, 폭력, 성문제, 진로, 대인관계 등으로 세분화되었고, 이에 따라 또래상담자의 역할도 확대되었다. 이렇듯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들이 경험하거나 걱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문화되고 다양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또래상담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힐 학교(The Hill School)에서는 또래상담은 학교 상담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또래상담을 통해서 교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학업지원의 대안과 보조 역할을 하고 있다(오혜영 등, 2006). 이 학교에서는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도움이 필요한 또래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상담전문가, 교사 등)을 연결하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또래상담자는 학교의 신입생과 복학하는 또래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힐 학교에서의 또래상담은 일대일 조력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또래상담 내용의 비밀 보호가 보장되고 있다. 또래상담에 있어서도 상담내용의 비밀보호는 중요한 부분이며, 외국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는 비밀보호와 관련된 사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의 어빙턴 고등학교(Irvington High School)에서도 다양한 내용과 활동을 중심으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Irvington 고등학교에서의 또래상담자들은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다양한 또래상담 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또래상담에서 금연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는 연극이나 상징물 제작 등의 방식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으며, 알콜남용, 섭식장애, 신체상, 가정폭력, 십대임신, 성폭력, 자살, 성병, 가족프로그램 등에 걸쳐서 세부적인 영역을 다루고 있다(오혜영 등,

2006).

John F. Kennedy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래상담자들은 또래내담자들에게 상담, 중재, 또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John F. Kennedy 고등학교에서는 또래상담자를 1차 선발과정으로, 초기 인터뷰와 또래상담자로서의 기본 소양이나 자질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1차 선발과정을 거친 후에 또래상담자 신청 학생들 각각에 대해서 교사와 상담자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나서 최종 또래상담자 명단이 확정된다. 보통 매 학기 150명의 또래상담 지원자들 중에서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또래상담자로 선발된다. 이렇게 선발된 또래상담자들은 사회적, 인종적, 경험적, 학업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들을 지니고 있다. 또래상담자 훈련 초기과정에서는 또래 상담과 또래 교육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John F. Kennedy 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은 팀 협동심, 편견 인식 및 감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충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담하거나 돕기와 같은 세부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은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어서, 기초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훈련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Peer Resource라는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Peer Program Descriptions, 2010).

4. 또래상담 성과연구

또래상담의 학교 내 활동은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이 되어왔으며(구본용, 1999; 김계현, 권대훈, 이상란, 이창호 등, 2003; 유성경, 1999; 채연희, 2003), 교육청에서는 학교 내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하기도 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04). 노성덕과 김계현(2004)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망라하여 1990년도부터 2003년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또래상담 성과 연구논문 36편을 대상으로 157개의 효과크기를 메타분석으로 통합하여 성과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문가에 의해 진행된 여타 다른 집단상담보다 효과크기가 더 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또래상담의 성과는 또래상담자 및 내담자 그리고 그들이 속한 집단 등에서 나타나는데,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 인간관계, 자아존중감, 문제해결능력, 학교관련태도 등에 향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또한

또래상담자에게 도움을 받은 내담자의 경우에도 자존감, 학업성적의 향상(Myrick & Bowman, 1981) 및 교우관계 개선(이은미, 1991) 등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학교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래상담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성덕, 2006).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을 살펴보면, 또래상담 훈련을 받은 고등학생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온정, 공감, 자기개방 등의 인간관계 측면과 의사소통 기술이 향상되었으며(추석호, 1987), 자존감 및 인간관계 능력에 도움을 주었고(고정숙, 2000), 학교생활관련 태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이경희, 2000). 또한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상담 훈련을 시킨 후 통제집단과 비교한 결과 자아개념의 몇 가지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박선주, 1999), 또래상담자 양성 훈련 직후 뿐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또래상담자의 인간관계,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지속적으로 유의한 향상을 보였다(최해룡, 2004).

국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상담자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비교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과 인관관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최현주, 2003), 통제집단에 비해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소원미, 2003). 또한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자 훈련을 실시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이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고(정영실, 2005), 도서지역의 학교에 재학중인 중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보였다(정인호, 2003). 황미숙(2007)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 12명에게 10회기에 걸쳐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생활 관련 태도 점수가 각각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다. 7-8학년 학생들이 동료상담자로 활동한 후 자아개념과 학교관련태도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으며(Rapp, Dowrkin, & Moss, 1987), 3~6학년 학생들이 동료조력자로 활동한 후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Bowman & Myrick, 1980).

나.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효과연구

또래상담 활동으로 인한 대상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또래상담자들이 상담 활동을 한 후 그 활동의 성과로 대상 학생들의 특성이 변화하였는지를 알아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노성덕, 2006). 국내의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등학생들을 또래상담자가 이끄는 집단상담에 참여시킨 결과, 자존감과 인간관계척도 상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유헌식, 1990), 대학생들에게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을 실시한 결과, 자기존중감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윤용준, 1988). 이남희(2005)는 중학교 3학년 2개 학급 소속의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6개월 동안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 활동을 하도록 한 결과, 2개 학급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향상시켰고 학급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학급 분위기에서는 하위 영역인 학급 친구에 대한 태도와 학급 생활태도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혜숙(2006)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또래상담자로 하여금 중학교 2,3학년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상담한 결과 또래상담 활동을 제공받은 학교 부적응 학생의 자아개념이 현저하게 향상되었고 그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가치있고 능력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이 현저하게 향상되고 그들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송정화(1998)의 연구에서도 여자 중학생 동료상담자로 하여금 선도 대상 학생을 상담한 결과 비행청소년의 비행 태도 점수와 비행 성향 점수가 통제집단에 비해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으며, 비행 관련 행동과 태도가 감소하여 동료상담 활동이 선도 대상 학생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학급에 미치는 또래상담 활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서 학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절한 또래상담자의 수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상담자의 수가 5명일 경우 소속 학급원의 학급생활태도와 학급 분위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고(한길자, 2000), 또래상담자가 4~6명일 경우 학급의 환경분위기, 상호신뢰, 사기, 의사소통이 향상되었다(채연희, 2003).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혜숙(2006)의 연구에서 또한 또래상담 활동을 한 실험 학급이 비교학급이나 통제학급에 비해 학급응집력과 학교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유의한 상승결과를 나타냈다.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의미있는 변화를 확인해볼 수 있다. 또래상담이 학교생활 부적응을 경험하는 학생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며

(Canning, 1983),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또래에 의해 이루어진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Fors & Jarvis, 1995), 8학년 또래상담자들이 6학년 문제행동 학생들에게 학교 출석, 학교 성적, 학교에 대한 태도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Bobias & Myrick, 1999). 한편,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활용한 개입전략을 장기간 연구한 결과, 또래집단의 영향은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태도와 학교에 대해 성숙한 견해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학교폭력, 비행, 약물남용과 같은 문제들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McKeon & Dinero, 1999).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또래상담의 효과로 인해 학교 문제가 상당히 해결되고 이에 따라 주정부 차원에서 또래상담 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등 그 성과가 입증된 바 있다(강영진, 신동아 1999년 3월호). 특히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또래상담자가 속한 집단에서 10대들의 출석율이 높아졌고 책임질 줄 아는 행동이 많아지고 약물복용을 피하는 경향이 높아졌으며 학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Grant, 1987). 그리고 폭력이나 약물중독 등 문제가 있는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 또래상담 프로그램에서도 이 활동에 참가했던 청소년들의 출석률, 자존감, 학교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Nenortas, 1987).

이와 같이 또래상담자들은 각급 학교에서 다양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의 성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기본적인 자질을 습득한 또래상담자들을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예방 및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볼 수 있다.

III. 지침서 개발 절차 및 연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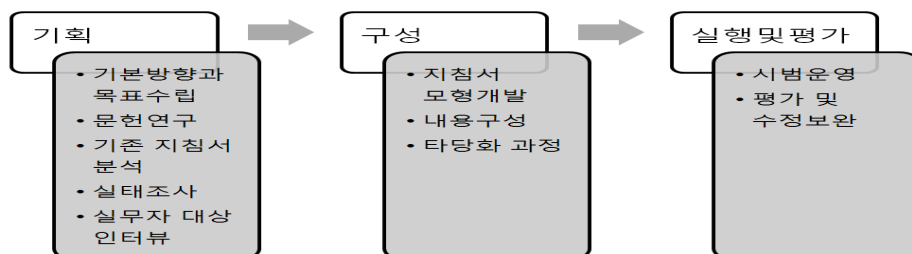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김창대(2002)의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모형을 따라 학교또래상담 운영에 필요한 운영지침서를 개발하였다.

기획단계에서 연구진은 운영지침서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수립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운영지침과 관련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에서는 2000년에 개발된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운영지침’을 분석하여 기존 지침서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침서의 사용의 주 대상이 될 교사 집단의 의견과 청소년 또래상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또래상담 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현직 교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여 또래상담 지침서에 필요한 내용을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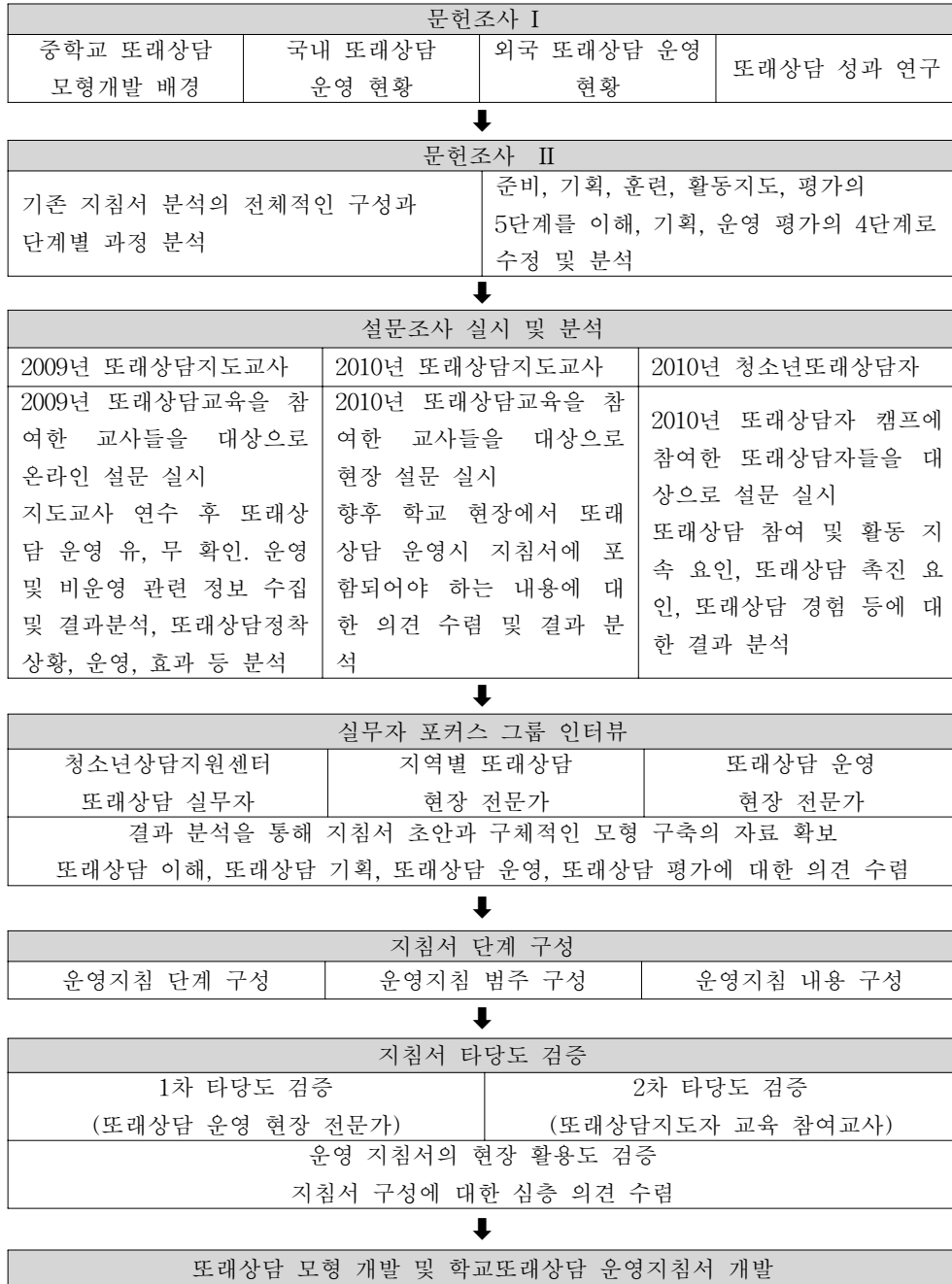
구성단계에서는 설문조사,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결과를 분석하여 운영지침서의 전체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였고 특히 현장 교사들에게 요청되는 실제적인 사례나 운영 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성안을 토대로 지침서 초안을 개발하였다.

마지막 실행 및 평가과정에서는 개발된 운영지침서(안)을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현직 교사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수정 및 보완 내용을 검토받았다. 이후 지침서 내용에 대해 수정하고 최종검토를 받았으며 아울러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여 최종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지침서 사용이 실제 또래상담자 운영에 어떻게 활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시범운영은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의 실제적인 또래상담 운영이 필요한바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는 연구기간의 제한으로 현장 전문가(또래상담 운영 교사 및 상담센터 실무자)의 운영 경험을 토대로 활용성 가능성 여부를 검증 받았으며, 지침서를 사용하게 될 교사 집단에게도 검증을 받았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연구 흐름은 <그림III-2>와 같다.

그림III-1. 운영지침서 개발 절차 모형



그림III-2. 운영지침서 개발 모형 흐름도



1. 운영지침서 개발

가. 문헌연구 : 2000년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운영지침’ 분석 비교

기존 발간된 운영지침서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여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운영 모형의 개발 방향을 탐색하였다.

1) 분석 과정

기존 지침서 분석 및 평가는 5명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지침서의 전체적인 구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2) 지침서 분석 결과

기존 지침서는 크게 준비단계, 기획단계, 훈련단계, 활동지도단계, 평가단계 등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계에 대한 논의된 의견을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논의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우선 기존지침서의 전체적인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준비, 기획, 훈련, 활동지도, 평가로 이루어진 구성에서 내용상 중복되는 단계를 정리하여 보다 지침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또래상담의 이해, 기획, 운영, 평가의 4단계로 수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1999년 이후 또래상담의 운영 변화와 학교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내용 수정이 필요하였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운영팁이 필요하나 기존지침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여 현장활용 팁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넷째, 기존지침서의 편집상태가 가독률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지침서 편집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기로 하였다. 기존지침서의 각 단계별로 논의된 결과는 <표III-1>에 제시하였고, 기존지침서와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는 <표III-2>에 제시하였다.

표III-1. 기존지침서 단계별 논의

단계	논의 내용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솔리언또래상담의 3대정신인 friendship, counselorship, leadership 등의 내용 추가 필요 • 기존의 지침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또래상담지도자의 역할, 기능, 책임에 대한 인식 내용에 추가해서, 또래상담지도자의 자긍심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또래상담 이해를 위해 또래상담 발전과정과 현황에 대한 내용 포함 • 또래상담의 필요성을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춰서 재기술 •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기능 이외에 또래상담지도자가 받을 수 있는 자긍심이나 혜택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래상담지도자가 받을 수 있는 이점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심리적인 보상의 측면에서도 기술하는 것이 요구됨
기획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 모집과 홍보에 대한 내용 추가 • 또래상담지도자의 인간적, 전문적인 자질과 관련된 내용 부분에 좋은 교사상에 대한 자료 추가 • 또래상담지도자의 전문적 자질 부분에 또래상담지도자와 또래상담전문지도자의 자격 지침을 포함 •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를 소개받을 수 있는 기관, 훈련 방법에 대한 설명 추가 • 기획단계의 서두에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운영 목적 및 도입글이 추가되는 것이 바람직함 • 학교장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학교장이 비협조적인 사례 추가 • 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진행 기획 이외에 또래상담자 활동이 학교 내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추가 •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예산 편성의 경우 센터와 학교 측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 • 현재 구성된 행정적 지원 확보와 인적 지원 목차 보다는 학교와 센터로 기획을 구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움 • 동아리와 관련된 영역을 별도로 할당해서 또래상담 동아리 활동 운영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도움이 됨 • 보상체제 확보 부분에 보상체제가 잘된 사례를 추가하고, 심리적 보상과 제도적 보상에 관한 내용들을 조사해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p>훈련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대상자 모집과 선발 부분에 지역사례, 선발 시 주의할 점, CA시간 활용과 또래상담자 훈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보충활동 교육을 반드시 프로그램 종료 후가 아니라, 프로그램의 중간에 실시하거나 주수활동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이 적절함 • 보충활동에 대한 상세 내용과 관련된 자료는 부록에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시범 활동 부분의 내용들은 부적절한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p>활동지도 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지도자 활동지도 부분에서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또래상담에서 진행되는 활동들의 의의 및 중요성과 지도자의 역할을 기술이 보충되어야 함
<p>평가단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의 필요성과 활용성을 보다 강조할 필요 있음 • 평가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수록하는 것이 필요함 • 평가 활용을 잘한 사례 등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함

표III-2.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 비교표

기존 지침서(1999년)		개정안(2010년)	
1. 준비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에서 또래상담의 필요성 인식 2. 또래상담지도자의 역할, 기능, 책임 인식 3. 또래상담지도자의 기본적 자질 습득 	1. 또래상담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의 필요성 2. 또래상담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또래상담지도교사란? 4. 또래상담지도교사의 기본자질
2. 기획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장(기관장)의 허가 2. 훈련 프로그램의 선정 및 구성 3. 또래상담자의 활동영역에 대한 구상 4. 소요예산 산출 및 재정적 지원 확보 (예산 확보) 5. 또래상담 계획서 제출 6. 행정적 지원 확보 7. 인적 자원 확보 	2.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자 대상 기획 1-1.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기획 1-2. 교내또래상담자 활동 기획 2. 학교 대상 기획 2-1. 학교장의 허가 2-2. 또래상담반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2-3. 운영관련 자원확보 3. 연계기관 대상 기획 3-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상 연계
3. 훈련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 2. 훈련대상자 모집과 선발 3. 또래상담 훈련 : 방법/기간/훈련과정 중 보충교육 4. 시범활동 5. 훈련과정 수료 	3.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1-1.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 1-2.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훈련대상자 모집과 선발) 2.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운영 2-1. 또래상담자 훈련 2-2. 훈련 프로그램 수료 3.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운영 3-1. 또래상담자 임명 3-2. 또래상담자 활동영역 선정 3-3. 또래상담자 활동관리 3-4. 효율적인 활동관리 방법
4. 활동지도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자 위촉 2. 또래상담자 활동영역(내용) 선정 3. 또래상담자 활동지도 		
5. 평가 단계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 훈련과정 내용의 평가 2. 또래상담 운영의 평가 	4.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 운영 평가 1-1. 또래상담 평가의 필요성 1-2.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의 평가 1-3. 또래상담 활동 평가 2. 또래상담 평가의 활용 2-1. 또래상담 평가 방법 2-2. 또래상담 평가 활용

- 기존의 5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 과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 기획 단계를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하였다.
- 기존의 훈련, 활동지도 단계를 운영 단계로 통합하여 훈련 프로그램은 물론 또래상담자 활동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평가 단계를 세분화하여 현장에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3) 시사점

본 연구에서 진행된 기존 지침서 분석은 무엇보다도 또래상담 지침서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래상담 지침서를 수정 및 개정함으로써 또래상담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큰 중요성을 지닌다. 기존 지침서 분석 및 단계별 논의가 갖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지침서에서 내용상 단계가 중복된 부분을 분석하여, 5단계에서 4단계로 재구성함으로써 지침서 구성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기존 지침서가 개발된 이후에 학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한국청소년상담원과 같은 연계기관의 역할 및 또래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개편되거나 수정된 내용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기존의 지침서가 또래상담을 현장에 적용할 때 접할 수 있는 어려움이나 또래상담의 운영과 관련된 실제 사례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반영하여 또래상담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나.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총 3개의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첫번째 집단은 2009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실시한 교사 대상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교사 80명으로 교육받은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또래상담 학교운영을 하고 있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 운영하지 못한 교사들이다. 두번째 집단은 2010년 7~8월 학교폭력예방 관련 교사직무 연수로 또래상담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교사 599명으로 차후 또래상담을 운영하게 될 교사들이다. 세번째 집단은 청소년또래상담자로 2010년 8월에 개최된 전국 또래상담자 캠프에 참여한 182명의 청소년들이다. 설문 조사 대상을 요약하면 <표III-3>과 같다.

표III-3. 설문조사 대상

집단	대상	인원	설문형태
집단1	2009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80명	온라인 설문
집단2	2010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599명	오프라인 설문
집단3	2010년 또래상담자캠프에 참여한 또래상담자	182명	오프라인 설문

설문내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도출되었다. 각 집단별 설문은 문헌연구 및 기존 지침서 분석을 토대로 또래상담 운영에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하여 구성하였다. 문헌조사 결과, 또래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총 7개의 영역이 추출되었다. 7개의 영역은 또래상담 정착,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자 모집 및 관리,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지도자, 프로그램 내용, 효과 및 활성화 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세부 영역을 정리하였다. 세부영역의 내용은 <표III-5>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내용을 기본 틀로 하면서, 집단별 특징에 따라 특정 항목들을 추가하였다.

설문조사에서 이루어진 연구 대상별로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이 설정되었다. 첫 번째 집단을 통해서는 지도자 교육 이후 학교에서 또래상담 운영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운영을 한 경우와 안 한 경우 어떤 차이로 인한 것인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집단의 설문은 지도자 교육 이후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할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번째 청소년집단 설문은 또래상담자 운영과 관련한 촉진 요인과 효율적인 활동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을 위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상은 크게 또래상담 지도교사 집단과 또래상담자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연구 집단별 설

문 목적은 <표III-4>와 같다.

표III-4. 전체 연구 목적 및 연구 집단별 설문 목적

연구 집단별 설문 목적		
2009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2010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2010년 또래상담자캠프 참여 또래상담자
또래상담 지도자교육 이후 에 또래상담 운영 유무 확 인 및 운영, 비운영에 관 련된 정보 수집 및 결과 분석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 운 영시에 필요한 핵심 요소 탐색 및 운영 관련 정보 결과 분석	또래상담에 대한 또래상담 자들의 경험, 또래상담참 여와 활동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설문조사의 전체 연구 목적
1) 또래상담 운영 모형 구축의 기초 자료를 확보 2) 또래상담에 대한 또래상담프로그램 운영자와 참여자의 의견 통합 3) 또래상담 운영 관련 정보를 도출하고, 또래상담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1) 2009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설문

① 설문 대상

본 연구에서는 학교현장에서 솔리언또래상담의 정착 상황, 운영 현황, 효과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고자 2009년 5월17일부터 5월 29일까지 교사직무연수로 실시된 2009년 또래상담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배포된 설문은 80부이며 본원 시스템의 메일 발송을 통해서 설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해 설문협조를 구했다. 응답된 설문은 총 41명으로 응답률은 51.2%로 나타났다.

② 설문 내용

총 작성된 설문은 29문항이며, 설문지는 또래상담 운영 여부에 따라 2가지로 구성되었다. 또래상담을 운영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인적사항 5문항과 공통 질문 9문항에 대한 설문이 실시되었으며, 또래상담 운영하고 있는 대상에게는 13문항,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대상에게는 2문항이 제시되었다. 즉,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대상에게는 총 27문항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또래상담을 운영하고 있지 않는 대상에게는 총 16문항이 실시되었다.

설문 영역은 또래상담 정착,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자, 또래상담 지도자, 또래상담 효과 및 활성화, 프로그램 내용 및 영역, 또래상담 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설문을 통해서 또래상담지도자 교육 후 또래 상담반 운영 여부, 운영의 어려움 및 가능성에 대한 요인 탐색, 기존 지침서 활용에 대한 피드백 등의 내용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설문 내용 구성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또래상담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요인들을 중심으로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설문의 내용은 <표III-5>와 같다.

표III-5. 2009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대상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영역	문항 유형	문항수	
응답자 인적사항	성별	공통	1	5
	나이	공통	1	
	소속	공통	1	
	사업경력	공통	1	
	지역	공통	1	
또래상담 정착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통	1	3
	정착에 도움되는 요인 및 전략	공통	1	
	정착의 어려움	공통	1	
또래상담 운영	학교적응에 문제가 되는 요인	공통	1	7
	외부기관의 지원	공통	1	
	운영의 어려움	운영	1	
	미운영의 원인	미운영	1	
	행정 및 제도적 지원	공통	1	
	초기개입의 여부	운영	1	
	초기개입이 어려운 이유	운영	1	
또래상담 자 모집 및 관리	또래상담자 모집 방법	운영	1	4
	또래상담자 선발 및 훈련시 유의점	운영	1	
	활동지도와 관리	운영	1	
	또래상담자 수퍼비전 관리	운영	1	
또래상담 자	또래상담자의 역할	공통	1	2
	또래상담자의 이점	운영	1	
또래상담 지도자	자긍심 및 의의	운영	1	3
	인간적 자질	운영	1	
	전문적 자질	운영	1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의 핵심 내용	공통	1	2
	프로그램 개선점	운영	1	
효과 및 활성화 요인	또래상담이 학교현장에 주는 이점	운영	1	3
	특정영역에 대한 또래상담의 효과	공통	1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	미운영	1	
총계			29	

2) 설문 자료수집 및 분석

① 설문 기간

본 연구에서 설문이 실시된 날짜는 2010년 5월 20일이며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총 80명에게 발송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안내와 각 영역의 문항들로 설문 메일이 구성되었다. 또한 설문 개별적인 전화 연락을 통해서 연구의 목적과 설문 응답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한 후에 설문을 실시하였다.

②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온라인 설문을 통해서 배포된 총 80부의 설문지 중에서 회수된 설문지는 41부이다.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는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솔리언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교사의 솔리언또래상담의 운영, 효과, 관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이 쓰였으며,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③ 객관식 조사 결과

a. 설문응답자 기본 정보

설문응답자(41명)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9명(21.95%), 여자가 35명(78.05%)이고 나이는 20대 7명(17.07%), 30대 14명(34.15%), 40대 11명(26.83%), 50대이상 9명(21.95%)이고, 소속별로 살펴보면 시도 34명(82.93%), 시군구 7명(17.07%)으로 나타났다. 또래상담사업 운영경력을 살펴보면 사업경력 5년 이상이 11명(25%)이고, 3년~5년은 11명(25%), 1~2년은 10명(22.73%), 1년 미만은 3명(6.82%), 무응답 3명(6.82%)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21명(51.22%), 인천 3명(7.32%), 광주 1명(2.44%), 대전 2명(4.88%), 경기 5명(12.20%), 강원 3명(7.32%), 충북 2명(4.88%), 충남 1명(2.44%), 경남 1명(2.44%), 경북 2명(4.88%)으로 나타났다.

b. 또래상담 정착

첫째, 또래상담정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도교사라고 응답한 인원이 19명

(46.34%), 학교지원 13명(19.51%)이고, 또래상담자 8명(31.71%), 외부의 관심과지지 1명(2.4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 정착에 있어서 지도교사의 역할이나 의지와 또래상담자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학교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둘째, 또래상담이 학교정착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나 전략으로는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 5명(11.36%), 학교장의 협조 4명(9.09%),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3명(6.82%), 기타 3명(6.82%), 전략적 홍보 2명(4.55%)로 응답했다. 또래상담의 정착에 어려움이 되는 요인으로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응답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과 마찬가지로, 또래상담이 학교정착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나 전략으로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상담의 정착에 있어서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학교장 및 지역기관의 협조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또래상담정착을 학교 현장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17명(4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의 비협조,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지원체계 부족이 각각 7명(17.07%)로 동일한 비율로 나타났다. 지역기관의 비협조는 3명(7.32%)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또래상담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 또래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개선과 학교의 협조, 또래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c. 또래상담 운영요인

첫째, 학생들이 학교적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요인은 교우관계 16명(39.02%), 학업 9명(21.95%), 진로 9명(21.95%), 사회성 4명(9.09%), 기타 2명(4.88%), 협동심 1명(2.44%)로 응답했다. 또래상담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문제가 되는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또래상담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 결과를 통해서 보면, 학생들은 교우문제, 학업 및 진로와 관련된 요인들이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이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학업, 진로, 교우관계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또래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기관에 대해서 이 지역 교육청 23명(56.10%), 한국청소년상담원 9명(21.95%), 시도 지역 상담센터 8명(19.51%), 사회복지기관 1명(2.44%)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또래상담의 원

활한 운영에 영향을 주는 외부기관으로 지역 교육청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의 운영을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서 지역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또한 시도 지역 상담센터와 한국청소년상담원과의 협조와 의사소통이 요구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셋째,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업무과중 7명(33.33%), 부적절한 학교환경 5명(23.81%), 미숙한 또래상담자로 인한 스트레스 4명(19.05%), 관리자의 무관심과 기타가 각각 2명(4.55%), 동료교사의 비협조 1명(2.27%)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학교에서 교사가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경우에 또래상담만을 전담하는 상담교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사에게 또래상담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교사의 업무 과중은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래상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사의 업무 과중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또래상담 운영에 도움이 되는 학교환경의 구축과 또래상담자 훈련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또래상담을 학교에서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 13명(29.55%), 학교 지원 부족 4명(9.09%), 또래상담지도자 인력 부족 1명(2.27%), 참여학생 부족 1명(2.27%)로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로 과중한 업무와 또래상담지도자의 인력 부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또래상담자지도자 인력 양성과 교사의 업무량 완화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 및 제도적 지원을 조사한 결과, 7개의 내용에 대한 응답이 나타났다. 협조 체계의 구축, 전문성 신장, 재정적 지원, 또래상담과 또래상담자에 대한 인식 전환, 인센티브 및 강화 제도 확대, 교육청 및 한국청소년상담원 중심의 또래상담 운영,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의 측면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세부 응답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협조 체계의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사, 지역사회, 산하기관들간의 이해와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상담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교사연수의 활성화 및 연수 확대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래상담에 대한 학교장의 의지와 경제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기술되었으며, 또래상담과 또래상담자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교사연수 및 학생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타났다. 또한 또래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또래상담자 학생에 대한 수상을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기술되었다. 청소년상담원과 교육청이 또래상담 운영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팸플릿이나 책자 등을 통해서 또래상담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여섯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솔리언또래상담이 문제영역별로 또래상담자가 수월하게 초기개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인원은 13명(61.90%)였으며, 그렇다고 응답한 인원은 8명(38.10%)이었다. 문제영역별로 솔리언또래상담이 적절하게 초기 개입을 하기 어렵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문제영역별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또래상담 구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일곱째,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솔리언또래상담이 문제영역별로 또래상담자가 수월하게 초기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경험부족, 시간적인 제약, 전문성 및 역량 부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내용 부족과 같은 응답이 도출되었다. 또래상담자의 경험부족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접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부족하며, 시간적인 제약으로 단기간에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제한점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서 상담의 기본적인 지식의 부족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용들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점이 기술되었다.

d. 또래상담자 모집 및 관리

첫째, 또래상담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 포스터나 게시물을 이용 8 (38.10%),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이나 종례시간에 언급하는 방법 5명(23.81%), 명(%), 또래상담반 선배가 후배를 섭외하는 방법 4명(19.05%)을 사용하며, 기타 3명(14.29%)유인물을 나눠주는 방법 1명(4.76%)인 것으로 응답했다. 또래상담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또래상담자의 참여도와 적극성이 중요하다. 또래상담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첫번째 단계로서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가 중요하며, 홍보방법으로는 포스터나 게시물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둘째, 주관식 응답을 통해서 또래상담자를 선발하고 훈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확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주된 응답으로는 학생의 교우관계, 상담에 대한 자발성, 높은 신뢰감, 기본 자질, 선발 기준 등의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각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급우들간의

대인관계를 조사하여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을 선발하고, 상담하려는 태도 및 의지가 강한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신뢰성과 책임감이 강한 학생과 상담 본래의 목적을 인식시키고, 공감, 수용, 포용 등 자질함양을 갖춘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자 선발의 명확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또래상담자 활동지도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또래상담자 활동경험 나누기 및 사례지도 15명(71.43%), 전문상담가, 선배또래상담자의 자문 또는 상담의뢰 체제 활용 4명(19.05%), 기타 2명(9.52%)라고 응답하였다. 또래상담자 활동지도와 관리에 있어서는 또래상담자 활동경험 나누기 및 사례지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수퍼비전이 중요하다는 응답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즉, 또래상담 지도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또래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사례지도 및 수퍼비전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또래상담자 수퍼비전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주기적인 교육제공 12명(57.14%)이 , 업무시간 내 수퍼비전 시간 배정 5명(23.81%), 관련기관과의 연계 3명(14.29%)이 , 기타 1명(4.76%)으로 응답했다. 또래상담을 운영하면서 또래상담자들의 활동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관리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또래상담자 수퍼비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설문 결과, 또래상담자 수퍼비전 운영을 위해서 주기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e. 또래상담자 요인

첫째, 또래상담자가 담당하는 역할을 묻는 응답결과를 확인한 결과, 학급의 고립된 친구들에게 관심과 지지 제공이 31명(75.61%), 또래의 문제해결 조력이 7명(17.07%), 교사와 또래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력 2명(4.88%), 학급 안에서의 갈등 중재 1명(2.44%)로 응답하였다. 또래상담자들은 주로 학급에서 고립된 친구들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자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솔리언또래상담이 또래상담자에게 주는 도움은 사회성 증진 6명(28.57%), 봉사정신증진 4명(19.05%), 자신감 증진 4명(19.05%), 리더십 증진 3명(14.29%), 기타 3명(14.29%), 책임감 1명(4.76%)라고 응답하였다. 또래상담자들은 솔리언또래상담을 통해서 사회성 및 봉사정신과 자신감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자

측면에서 또래상담의 효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결과이다.

f. 또래상담지도자 요인

첫째, 본인이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는 자긍심 및 의의로 학생들의 성장에 대한 지지 16명(76.19%)이, 학생들의 지지 및 관심 2명(9.52%)이, 프로그램 운영 경험 및 노하우 축적 2명(9.52%), 기타 1명(4.76%)으로 응답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지도자들은 또래상담을 정착시키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는 자긍심과 의의가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또래상담지도자의 자긍심 및 의의에 대해서 지지하고, 또래상담지도자의 성장에 대해서도 지원해 주는 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인간적 자질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신뢰 11명(52.38%), 정확한 자기 이해와 자신감 5명(23.81%), 상담에 대한 열의 3명(14.29%), 융통성과 유머 감각 1명(4.76%), 기타 1명(4.76%)으로 응답하였다. 또래상담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어야 하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자신감 있는 태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또래상담지도자 인력 양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래상담지도자의 인간적 자질은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셋째,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자질은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 9명(42.86%), 훈련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6명(28.57%),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 3명(14.29%), 의사소통방법의 인식 2명(9.52%), 기타 1명(4.76%), 집단체험 지도 능력 1명(4.76%)으로 응답하였다. 즉, 또래상담지도자는 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의사소통능력이 필수적임을 의미한다. 또래상담지도자 인력 양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지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교육을 통해서 또래상담지도자의 전문적 자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다.

g. 또래상담 프로그램 내용 및 영역

첫째, 솔리언또래상담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인간관계 훈련 17명(41.46%), 의사소통 훈련 15명(36.59%), 상담조력기술 훈련 6명(14.63%), 봉사정신 훈련 3명(7.32%)으로 응답하였다. 학교현장에서는 솔리언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내용에 인간관계 훈련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의사소통 훈련에 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솔리언또래상담 운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개선점에 대해서 훈련기간 8명(38.10%), 교재구성 4명(19.05%), 적용 영역 4명(19.05%), 교재수준 3명(14.29%), 기타 2명(9.52%)으로 응답하였다. 응답 결과, 솔리언또래상담 운영을 위해서는 훈련프로그램의 훈련기간, 적용 영역, 교재 수준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요구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h, 또래상담의 효과 및 활성화 요인

첫째,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 솔리언또래상담이 학교 현장에 주는 이점을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정리해 보면, 학급 분위기 개선, 의사소통 개선, 문제 예방, 학생들의 문제 해결 조력이라는 항목들이 도출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고 따뜻한 학급분위기 구축에 도움을 주며, 또래상담자가 상담이 필요한 학생을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연결하는 역할한다고 기술되었다. 또한, 학생들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가능하며, 교사가 발견할 수 없는 소외된 친구의 문제 해결 조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둘째, 주관식 설문을 통해서 특정 영역과 관련해서 또래상담이 주는 도움 및 효과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주된 응답으로는 학생들을 지지하는 역할, 교사와 학생의 의사소통의 통로, 문제해결 조력, 사회성 및 교우관계 증진, 학급 분위기 개선, 폭력 문제 및 따돌림 문제 해결 조력, 학생의 문제 및 어려움 조기 발견 가능성이 주요 응답으로 기술되었다. 각 응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상담을 통해서 소외아동, 학급부적응아, 따돌림 아동을 학교생활에 함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되는 아이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지지자 역할 제공한다는 응답이 제시되었다. 고립된 학생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상담이 필요한 학생과 교사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학급 내 갈등상황을 가장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개입을 가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또한, 또래상담은 같은 또래의 생각을 듣고 대화함으로써 고립감의 해소와 친구관계 개선하고, 학급에서 고립된 친구들에게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긍정적인 학급과 학교 분위기를 개선한다고 기술하였다. 타인을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왕따,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며, 또래상담자를 통해 문제 학생의 조기 발견 가능성 증대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제공되면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이나 도움으로는 업무 과다 완화, 인센티브 강화, 재정적 지원 강화, 시간 확보, 인식 개선 및 지지,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 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며, 세부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도 또래상담 담당교사의 업무 간소화와 또래상담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로 학생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래상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재료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추가적으로 또래상담에 대한 학생, 교사의 인식 개선과 지지가 필요하며, 또래상담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교재 보급 확대와 또래상담자를 위한 프로그램 매뉴얼 증대 및 지도교사 연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었다.

위의 설문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또래상담 정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도교사이며, 둘째, 또래상담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역교육청이다. 셋째, 또래상담자 요인으로는 사회성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넷째, 또래상담지도자 요인으로는 또래상담지도자로서의 자긍심 및 지지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다섯째, 또래상담프로그램 내용 및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는 인간관계 훈련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또래상담자 관리를 위해서는 또래상담자의 활동경험 및 사례 나누기가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 결과는 학교 현장 중심의 솔리언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인식을 제공한다.

2) 2010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설문

① 설문 대상 및 기간

본 설문은 2010년 7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실시되었으며, 또래상담 관련 교사직 무연수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며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가 소개된 후에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② 설문 내용

본 설문조사에서 실시된 설문지는 인적사항에 관한 문항 6문항을 포함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내용은 7개의 객관식 문항과 1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세부 문항의 내용은 <표III-6>과 같다.

표III-6. 2010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대상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영역	문항수
응답자 인적사항	성별	1
	나이	1
	담당업무 및 소속	1
	교사경력	1
	또래상담운영 여부	1
	지역	1
설문 내용	학교 문제의 영역	1
	학교또래상담 정착의 주요 영향 요인	1
	또래상담자의 역할	1
	또래상담프로그램의 필수 내용	1
	또래상담 정착의 어려움	1
	또래상담 정착에 효과적인 전략	1
	또래상담의 효과	1
총계		13

③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총 599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에서 56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 설문 결과는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④ 조사 결과

a. 설문응답자 기본 정보

설문응답자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91명(16.2%), 여자가 469명(83.5%), 성별을 표시하지 않은 무응답자는 2(0.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대를 확인한 결과, 20대 29명(5.2%), 30대 89명(16.0%), 40대 210명(37.6%), 50대이상 231명(41.3%), 설문지에 연령대를 표시하지 않은 미응답자는 3명(0.7%)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교사들의 담당업무 및 근무부서는 상담부 근무교사 311명(55.2%), 일반교사 176명(31.2%), 전문상담교사 43명(7.6%), 기타 29명(5.2%), 보건교사 2명(0.4%)로 나타났다.

교사경력을 살펴보면, 1-5년은 74명(13.2%), 6~10년은 46명(8.2%), 11~15년은 44명(7.8%), 16~20년은 64명(11.4%), 21년 이상은 334명(59.4%)으로 나타났다.

현재 학교에서 또래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운영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98명(17.5%), 미운영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461명(82.5.6%), 무응답 3명(0.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설문 응답자의 지역을 살펴보면, 광주 78명(14%), 부산 160명(28%), 서울 324(58%)로 총 562명이 설문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b. 학교 문제의 영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으로는, 교우관계 274명(48.8%), 학업 112명(19.9%), 사회성 72명(12.8%), 진로 48명(8.5%), 기타 36명(6.4%), 진로 48명(8.5%), 무응답 4명(0.7%)로 나타났다.

c. 학교또래상담 정착의 주요 영향 요인

또래상담을 학교현장에 정착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또래상담 지도교사 199명(35.4%), 또래상담에 대한 학교의 지원 197명(35.1%), 또래상담자 88명(15.7%), 또래상담에 대한 외부의 관심과지지 30명(5.3%), 또래상담의 가시적인 성과 23명(4.1%), 기타21명(3.7%), 무응답 4명(0.7%)으로 나타났다.

d. 또래상담자의 역할

또래상담자가 담당하는 주요 역할로는 학급의 고립된 친구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제공한다는 답변이 412명(7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또래상담자가 교사와 또래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한다는 응답이 57명(10.1%), 또래의 문제해결을 조력한다는 응답이 54명(9.6%), 학급 안에서 갈등을 중재한다는 응답이 27명(4.8%), 기타5명(0.9%), 무응답 4명(0.7%), 또래 학습지도 3명(0.5%)으로 나타났다.

e.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필수 내용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인간관계 훈련 218명(38.8%), 의사소통 훈련 215명(38.3%), 상담조력기술 훈련 90명(16.0%), 봉사정신 훈련 33명(5.9%), 무응답 4명(0.7%), 기타 2명(0.4%)으로 나타났다. .

f. 학교현장에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정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정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확인한 결과,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178명(31.7%),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129명(23.0%), 참여학생 부족과 학교의 비협조가 각각 84명(14.9%), 또래상담 지원체계 부족 63명(11.2%), 기타 17명(3.0%), 무응답 7명(1.2%)으로 나타났다.

g. 또래상담을 학교현장에 정착하는데 효과적인 전략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194명(34.5%), 학교장의 협조 177명(31.5%), 지역기관의 협조 83명(14.8%),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 44명(7.8%), 전략적 홍보 39명(6.9%), 기타 19명(3.4%), 무응답 6명(1.1%)으로 나타났다.

h. 또래상담이 효과적인 부분

또래상담이 효과적이거나 도움이 되는 부분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첫째, 또래상담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래상담이 학교폭력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으며, 주요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내에 잠재된 폭력의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 정서적 공감을 통한 감정 조절을 학생들이 습득함으로써 폭력예방에 효과적임.
- 지속적인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 빈도를 낮추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학교 폭력예방과 위기학생의 탈락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소외되거나 폭력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조기에 발견하는데 도움이 된다.
- 또래상담 활동을 통한 감정조절과 감정표현이 활발해지면서 학교 폭력 예방이 가능하다

둘째, 또래상담은 학교폭력 사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언급되었다. 또래상담이 학교폭력의 예방에 도움이 되면서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학생들을 다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언급되었다. 주요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교 폭력의 원인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됨.
-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폭력과 관련된 피해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많은데 또래상담을

통해 학교 폭력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이 가능함.

- 학교폭력 중재 교사에게는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성순화에 도움이 된다.
-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심리치료에 또래상담이 도움이 됨.
-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학교폭력이 피해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학생들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학교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소외받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에게 관심과 지지를 제공해주는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음.

셋째, 또래상담은 청소년의 내적인 성장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즉, 또래상담자 활동을 하면서 청소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다른 학생의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고, 자신을 이해한 과정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장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주요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또래상담이 청소년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됨.
- 청소년의 사고와 생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촉진하는데 도움이 됨.
- 정서적 지지를 통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 같은 또래의 시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도 또래의 부정적인 행동의 변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또래상담이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감 형성에 도움이 됨.

넷째, 또래상담은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나 교우관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으며, 또래 학생들 사이의 친밀감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또래관계 및 교우 관계 개선에 효과적임.
- 또래들간의 유대감 형성을 촉진하여 또래관계에 도움이 됨.
- 또래 친구를 이해하고 이해받는 마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됨.
- 또래학생들 사이의 친밀감 형성 및 증진에 도움이 됨.
- 또래상담을 통해서 같은 또래들 간의 이해도 증진에 도움이 됨.

다섯째, 또래상담은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들, 또는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또래 학생들간의 분위기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또래 학생들의 분위기 변화에 효과적일 것임.
- 교사와 또래 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것임.
- 또래끼리 어려움이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도움을 주고 이해하는 공감대형성에 도움이 됨.
- 교사와 또래 학생간의 의사소통 활성화에 도움을 줌

여섯째,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 증진에 또래상담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으며, 또래상담을 통해서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이나 협동 의식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또래상담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이 향상되고, 학생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음
- 학급과 전체 학교의 긍정적이고 협동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 됨.
- 학교문제 및 사회문제 발생을 줄이는데 효과적임.
- 학생들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학급 환경과 분위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음.
- 학교와 학급에 대한 학생들의 소속감이 증진됨.

3) 청소년 또래상담자 설문

① 설문 기간

본 설문은 2010년 8월 5일에 실시되었으며,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 중고등학생 청소년 1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래상담자 캠프에 참석한 교사를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여 실시되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한 후에 설문을 실시하고 수거하였다.

②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총 182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그 중에서 182부의 설문지가 회수되

었다. 설문문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4문항, 객관식 3문항과 주관식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문 결과는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③ 설문 내용

본 설문조사에서 실시된 설문지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세부 문항의 내용은 <표III-7>와 같다.

표III-7. 청소년 또래상담자 대상 설문지 구성

구분	조사영역	문항수	
응답자 인적사항	성별	1	4
	학년	1	
	학교형태	1	
	또래상담 활동 형태	1	
설문 내용	또래상담 촉진 요인	1	5
	또래상담에 효율적인 활동	1	
	도움이 되었던 또래상담 경험	1	
	또래상담자 참여한 이유	1	
	또래상담자 활동 지속하는 이유	1	
총계		9	

④ 조사 결과

a. 설문응답자 기본 정보

설문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74명(40.7%), 여자가 108명(59.3%)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의 학년 분포를 살펴보면, 중학생 71명(39%), 고등학생 103명(57%), 학년을 표시하지 않은 무응답자 8명(9.4%)로 나타났다. 학교형태는 공립 109명(59.9%), 사립 73명(40.1%)이고, 또래상담 활동 형태는 학교CA 60명, (33.3%), 학교 동아리 75명(41.7%), 상담센터 동아리 29명(16.1%), 기타 16명 (8.9%), 미응답 2명(0.1%)로 확인되었다.

b. 또래상담 촉진 요인

또래상담자 활동을 촉진하고 격려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요인 및 내용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답변이 도출된 빈도순으로 응답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임명장 수여 66명(36.3%), 또래 수첩 및 배지 49명(26.9%), 또래상담자 시상 31명

(17.0%)모임 때 제공되는 간식 27명(14.8%), 기타9명(4.9%)로 나타났다.

c. 또래상담에 포함되면 효율적인 활동

직접 전국에서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상담과 관련해 서 직접 해 보고 싶거나, 또래상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활동이 무엇 인지를 주관식 문항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세부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극이나 사례를 활용해서 직접 상담실연이나 상담기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다. 둘째, 또래상담자들이 모임이나 연합회를 통해서 또래상담자로서의 활동과 경험을 교류할 수 있는 활동이 요구된다. 셋째, 상담 문제별로 상담사례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부 적으로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실제로 상담 경험과 경력이 많은 상담전문가를 만 나서 상담활동에 대한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d. 또래상담활동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 및 경험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활동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활동 및 경험을 확인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상담을 받는 친구가 상담이 도움이 되었다는 피드백을 전해줄 때 보람을 느꼈다. 둘째, 또래상담자교육을 받으면서 또래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 는 과정이 도움이 되었다. 셋째, 지역의 또래상담자 연합회 활동을 하는 것이 또래상담자 로서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넷째, 또래상담을 통해서 친구의 고민이 해결되는 과 정이 또래상담활동 중에서 도움이 되었다.

e. 또래상담자로 참여하게 된 이유

또래상담자 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사와 부모의 권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세부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의 권유가 29명(15.9%)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서 부모의 권유가 8명(4.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의 추천은 17명(9.3%)이고, 또래상담 홍보는 9명(4.9%)으로 확인되었다. CA활동으로 선택했다는 인원은 27명(14.8%), 진학에 도움이 되므로 선택했다는 인원은 12명(6.6%), 또래상담에 관심이 있어서 신청한 인원은 65명(35.7%), 기타 인원은 14명(7.7%), 미응답 인원은 1명(0.1%)으로 나타났다.

f. 또래상담 활동을 지속하는 이유

현재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를 확인하였다.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세부 응답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131명(72.4%)이며, 기타라고 응답한 인원은 22명(12%)이고, 교사의 지지 및 인정이라고 응답한 인원은 15명(8%)이다. 또한 부모의 지지 및 인정으로 인해서 또래상담활동을 지속한다고 응답한 인원은 2명(1%)이며,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친구의 지지라고 응답한 인원은 11명(6.1%), 미응답 인원은 (1명, 0.5%)으로 나타났다.

4) 설문조사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실시한 2009년 또래상담지도교사 설문, 2010년 또래상담지도교사 설문, 청소년 또래상담자 설문 결과 또래상담 운영지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2009년 또래상담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의 결과, 또래상담의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며, 또래상담 운영에 있어서는 연계기관이 중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또한 또래상담자로서 학생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래상담에서 인간관계훈련 및 사례 수퍼비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또래상담을 실시할 경우는 지도교사가 또래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과 연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또한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조력하는 과정이 또래상담 지도교사가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상담 영역에서 상담 과정과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점검이 중요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래상담운영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해 준다.

둘째, 2010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설문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가 또래상담 운영지침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현장에서 교우관계가 중요한 문제 영역이라는 점을 설문에 응한 교사들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래상담자의 역할이 이러한 또래들의 교우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주었다. 또한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서 인간관계 훈련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또래상담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에 지도교사의 전문성 및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이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특히 또래상담이 학교 폭력 예방 및 학교 폭력 관련 사후 치료와 또래상담자들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론은 또래상담이 교우관계와 같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교 폭력 예방, 청소년의 내적 성장이 효과적이며, 학교 현장에서의 또래상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해 준다. 그리고 또래상담을 학교 현장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확대와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준다.

셋째, 또래상담을 담당하는 또래상담 지도교사 이외에도 또래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본 연구에서는 실제 또래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국적인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도출된 세부 결과를 분석해 보면, 또래상담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또래상담자 임명장 수여가 중요하며, 상담에 대한 실제 사례를 다루는 것이 또래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또래상담 내담자 학생이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또래상담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또래상담을 시작한 경우가 많으며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이 또래상담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이유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론을 통해서 또래상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법으로서 임명장 수여와 같은 방법들이 촉진되어야 하며, 또래상담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또래상담 참여에 학생들의 자발성을 높이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라. 실무자 포커스그룹 인터뷰

포커스그룹(focus group)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이해나 정보 제공자의 통찰력에 근거해 새로운 가설을 일반화하거나 정보를 정리하고자 할 때 집단의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연구목적에 이루려는 방법이다(Morgan,1988). 또한 주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 모여 상호 토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내적 경험, 감정, 및 신념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경험의 폭과 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윤택림,2004; 이규미, 권해수, 김희대, 2008). 이에 또래상담의 학교 운영 지침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마련

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또래상담 운영지침서를 구성하기 위하여 또래상담을 운영한 현장 전문가들의 요구를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교사,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표III-8〉 참조). 포커스그룹에 필요한 질문사항은 문헌연구를 통해 운영지침서의 문제점과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여 작성하였고 대상에 따라 교사 또는 센터 담당자들에게 요구되는 질문으로 보완하여 구성하였다(〈표III-9〉 참조).

인터뷰 실시는 연구진 2~3명(교육학 박사1명, 상담관련 석사 2명)이 참여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룹 당 약 120분 동안 실시되었으며 사회자는 주제에 적합한 토론이 되도록 연구 목적에 맞는 단서를 제시하면서 토의를 이끌었다.

1)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

포커스 그룹 인터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또래상담 운영 경험 및 또래상담 우수 사례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자들이 또래상담 사업 실적 기록과 또래상담 표창 기록 등의 자료를 검토하고 포커스 인터뷰 대상자 선정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III- 8. 포커스그룹 인터뷰 개요

구분	대상		인원	기간 및 장소
A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		센터 실무자(6명)	2010.3.26 도봉숲속마을
B	지역별 또래상담 현장 전문가 집단 (또래상담 우수 운영 지역)	B-1:경남진주	센터 실무자(3명) 학교교사(1명)	2010.6.29 진주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B-2:강원도	센터 실무자(2명) 학교교사(3명)	2010.7.2 강원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B-3:충남천안	센터 실무자(1명) 학교교사(2명)	2010.7.9 천안시청소년상담지원센터
C	또래상담 현장전문가		2010 또래상담캠프 참여 센터 실무자(19명) 및 교사(6명)	2010.8.4 강원도 횡성 숲체원

2) 포커스그룹 인터뷰 질문 문항

2010년 4월 6일부터 4월 16일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실시된 기존지침서 분석과정을 통해 인터뷰 질문문항의 요소를 추출하였으며, 5월17일부터 5월29일까지 실시된 2009년 또래상담 지도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질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들을 추출하여 반영하였다. 인터뷰 문항 선정은 2단계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1단계: 기존 지침서 재검토 및 핵심 요소 논의 및 수합

연구진 5인이 각각 기존 지침서를 검토하고 또래상담운영과 관련된 문헌을 검토하여 또래상담 운영 개선을 위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검증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연구진 각각이 기존 지침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또래상담운영 개선과 관련해서 포커스그룹에서 검증해야 하는 요소들을 검토 및 논의하였다. 각 연구진이 핵심 요소에 대해서 중요하게 검증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하고 이를 연구진의 합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진 합의 과정을 통해서 포커스 그룹 대상 설문 문항의 내용들이 초기 결정되었다.

2단계: 또래상담 핵심 요소와 지침서의 단계 반영하여 최종 인터뷰 질문 문항 도출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된 포커스 그룹 대상 설문 문항을 재검토하고, 문헌 조사 및 설문조사 설문지 구성에서 도출된 내용과 비교 검토하였다. 문헌 조사를 통해서 또래상담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 요소로 도출된 총 7개의 영역(또래상담 정착,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자 모집 및 관리,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지도자, 프로그램 내용, 효과 및 활성화 요인)에 근거하여, 또래상담 지침서의 준비, 기획, 훈련, 활동지도, 평가 단계에서 또래상담과 관련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와 달리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좀더 심층적인 정보 탐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한 형태로 질문하도록 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세부 질문 문항 구성은 <표III-9>와 같다.

표III- 9. 인터뷰 질문 문항 구성

단계	질문내용
전체	1. 이전 지침서 단계와 현재 제시된 지침서 단계를 비교하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2. 실제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1. 준비 단계	1.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는 자긍심 및 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2.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인간적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기획 단계	1. 학교장이 비협조적인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협조를 구하셨나요?
	2. 학교에서 솔리언 또래상담 프로그램 교육시, 보조적으로 추가하면 적합하다고 생각 되는 다른 훈련 프로그램(활동)은 무엇입니까?
	3. 수첩과 뺏지가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만약 수첩과 뺏지 이외에 또래상담자의 응집력 강화나 활동에 도움이 될만한 기념품을 제작한다면 어떤 물건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5. 센터와 예산 활용 의논 필요?
	6. 또래상담은 학교에서 어떠한 형태로 운영이 되나요? (ex. CA, 동아리 등)
	7. 센터: 또래사업과 관련해서 센터를 가장 우선적으로 연계대상으로 지목해 지침서에 언급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가능한가요?
	8. 학생들의 또래상담 활동이 활성화 될 경우에 어떤 제도적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또래상담자들에게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학교내에서 봉사점수를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9. 공립학교에서 전근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신가요?
	10. 현재 센터와는 어떻게 연계를 맺고 계신가요?
3. 훈련 단계	1.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2. 또래상담자 선발방법과 주의사항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본원에서 또래상담자 보수교육을 실시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까?
	4. 사이버상에서 카페를 운영해본적이 있나요? -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 운영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5. 또래상담자 인원관리를 교육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요?
4. 활동 지도 단계	1. 또래상담자들의 활동으로는 어떤 것들을 실시하고 있으신가요? - 동일학년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활동 - 선배 또래상담자의 역할과 활동
	2. 또래상담자 활동지도와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또래상담지도자가 할 일에서 필수적으로/ 선택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4. 현재 또래상담자 활동을 어떻게 지도하고 계신가요? 또한 또래상담자 활동지도에 더 추가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5. 평가 단계	1. 평가는 현재 어떤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2. 또래상담 운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3)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통한 범주 도출 과정

1단계: 포커스 그룹 인터뷰 축어록 코딩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 지역별 또래상담 현장 전문가, 또래상담 현장 전문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 축어록을 코딩하였다. 축어록 코딩은 본 연구에 참여한 상담관련 석사 3인이 음성 축어록의 내용을 변형하지 않고 내용 그대로를 코딩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에 진행되었으며,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구분하여 축어록을 코딩하였다.

2단계: 1차 범주 구성 회의 및 전체적인 범주 목록 도출

또래상담 지침서 모형 및 수정본 개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합의 및 연구진 회의가 진행되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 지역별 또래상담 현장 전문가, 또래상담 현장 전문가 각각의 축어록 내용을 연구자(5인)이 논의하여 또래상담 이해, 기획, 운영, 평가를 중심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전체 범주 리스트 21개를 추출하였다. 연구자(5인)이 코딩된 축어록의 내용이 해당하는 범주를 각각 정리해 온 후에, 연구자(5인)이 모여 각각의 범주를 비교 검토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주를 선정하였다. 1차 범주 구성 회의에서 구성된 범주 목록은 <표III-10>과 같다.

표III- 10. 전체적인 범주 목록표

1	공문의 필요성
2	또래상담 기획절차
3	또래상담 운영기획
4	또래상담 운영효과
5	또래상담 이해 및 필요성 인식
6	또래상담 지도교사 역할
7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노력
8	또래상담 지도자의 자질
9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
10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11	또래상담자 임명
12	또래상담자 활동 관리
13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1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15	상담지원센터 역할
16	학교 또래상담 활성화 저해요인
17	학교운영형태-동아리
18	학교운영형태-CA
19	학교장의 중요성
20	학교활동 프로그램 지원요청
21	홍보의 필요성

3단계: 2차 범주 구성 회의 및 추가 범주 목록 도출

1차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 요소들 이외에 추가되어야 하는 세부 범주들을 선정하고 추출하였다. 연구자(5인)들은 1차 범주 구성 회의에서 도출된 21개의 범주 목록 이외에 세부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범주 목록 8개를 선정 및 추가하여 총 28개의 범주 리스트를 도출하였다.

표III-11. 추가 범주 목록표

1	공문의 필요성
2	또래상담 기획절차
3	또래상담 운영기획
4	또래상담 운영효과
5	또래상담 이해 및 필요성 인식
6	또래상담 지도교사 역할
7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노력
8	또래상담 지도자의 자질
9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
10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11	또래상담자 임명
12	또래상담자 활동 관리
13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1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15	상담지원센터 역할
16	학교 또래상담 활성화 저해요인
17	학교운영형태-동아리
18	학교운영형태-CA
19	학교장의 중요성
20	학교활동 프로그램 지원요청
21	홍보의 필요성
22	교육청 역할 및 관계
23	또래상담 지도교사 선정
24	지침서 수정 요구사항
25	wee 센터의 역할 및 관계
26	또래상담을 평가체제에 활용
27	또래상담 사례모임 및 수퍼비전 운영
28	중학생 대상 또래상담의 특징

4단계: 3차 범주 구성 회의 및 추가 범주 목록 도출

2차 범주 구성 회의에서 도출된 핵심 범주 요소들을 전문가 5인이 모여서 다시 재검토 및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 회의에서 추가된 항목들을 검토하고 재확인하는 3차 범주 구성 회의를 진행하였다. 3차 범주 구성 회의에서는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과 또래상담 활성화 저해 요인을 세분화하고, 또래상담 운영 평가와 관련된 요인들을 통합하여 범주들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총 22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22개의 범주들은 <표III-12>와 같다.

표III-12. 핵심 범주 요소 목록

1	공문의 필요성
2	또래상담 기획절차
3	또래상담 운영기획 - 예산관련
4	또래상담 운영효과
5	또래상담 이해 및 필요성 인식
6	또래상담 지도교사 역할 - 지도자 보상, 자긍심
7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노력 - 간식
8	또래상담 지도자의 자질
9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 - 교육청, 교과부 협조 필요 / 상담원 협조 필요 / 정책적 제도 필요/ 활동기록 축적 / 보상 / 소식지&웹사이트/ 상담원, 센터, 웹,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연계 / 연합회/ 공간의 필요성 / 교사모임 / 사례집
10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 모집의 어려움
11	또래상담자 임명
12	또래상담자 활동 관리 - 인터넷 카페 / 센터에 수수료 요청방법
13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14	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 사례 / 시간확보의 어려움
15	상담지원센터 역할 - 캠프 진행
16	학교 또래상담 활성화 저해요인 -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 / 공립학교에서의 어려움 / 교사 혼자서 하기 어려움 / 교사모임 활성화 저해요인/ 봉사시간
17	학교운영형태-동아리
18	학교운영형태 - CA
19	학교장의 중요성
20	학교활동 프로그램 지원요청 - 센터 입장 / 교사
21	홍보의 필요성 - 홍보내용
22	또래상담 운영평가

5단계: 최종 범주 목록 구성

3차 범주 구성 회의에서 도출된 총 22개의 범주 목록 중에서 범주들을 단계에 따라서 통합 및 분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개의 주요 범주들과 23개의 세부 핵심 범주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최종 범주들을 또래상담 이해, 기획, 운영, 평가의 4단계에 따라 재분류하였다. 단계에 따라 세부 범주 목록을 정리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범주 구성을 하였다. 최종 결정된 또래상담 범주에 따라서 각 전문가들이 언급한 축어록의 피드백을 정리하고 분류하여 <표III-13>에 제시하였다. 범주에 따라 축어록 원문 정리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III- 13 단계별 주요 범주와 세부 범주 목록

단계	주요 범주 목록(11개)	세부 범주 목록(23개)
1 또래상담 이해	1) 또래상담의 필요성 및 운영	또래상담 이해 및 인식의 필요성 또래상담 운영 효과
	2) 또래상담 지도교사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자질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역할
2 또래상담 기획	1) 또래상담 운영 기획	또래상담 학교운영형태 소요예산 책정 및 재정적 지원확보
	2) 운영관련 자원 확보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보충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지원
	3) 홍보의 필요성	홍보의 필요성
3 또래상담 운영	2) 또래상담자 모집, 선발, 임명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또래상담자 임명
	3) 프로그램 운영	훈련 프로그램 운영 보충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4) 또래상담자 활동관리	또래상담자 활동관리
	1) 또래상담 운영 평가	또래상담 운영 평가
4 또래상담 평가	2)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 평가	또래상담 관련 기관의 협조와 연계
		또래상담자 보상
		또래상담지도교사에 대한 보상
		지도자와 지도교사 연합회
	3) 또래상담 저해 요인 평가	또래상담 홍보
		공립학교에서의 교사 전근
		업무 과중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

4) 인터뷰 결과

인터뷰 정리는 포커스그룹을 운영한 결과로 도출된 반응을 ‘또래상담의 이해’, ‘기획’, ‘운영’, ‘평가’ 단계로 구분하여 세부 내용을 정리하였다. 인터뷰 질문은 기존 지침서의 단계(5단계)에서 추출하였지만 새롭게 구성하는 지침서의 4단계를 중심으로 자료를 기술하였고 정리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첨가하여 지침서를 완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 또래상담의 이해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또래상담의 이해와 관련해서 또래상담 이해 및 운영과 또래상담

지도교사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상담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또래상담의 운영과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역할이나 자질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① 또래상담의 필요성 및 운영

또래상담의 필요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래상담을 이해하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래상담의 운영 효과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a. 또래상담 이해 및 인식의 필요성

또래상담 이해 및 인식의 필요성에 관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상담 운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학교 관리자들이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교육에 있어서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면서도 실제로 또래상담과 같이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또래상담 활동을 하는 또래상담자들도 또래상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면 또래상담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 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상담 연수에 대한 참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일부 또래상담을 담당하는 센터 담당자나 학교 교사들 중에서도 또래상담의 개념, 운영, 진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경우가 있다. 또래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아쉬움이 있다면 관리자는 상담에 대한게 없으시다는 것이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다들 말씀으로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실제 할 때는 없으세요. (현장전문가:강원)”
-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면 이게 집단상담이니까 계속 또 거기에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대화법들을 통해서 중학생들이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현장전문가:천안)”
- “요즘에는 정서적으로 힘든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아이들로 인해서 반 전체 분위기가 흐려지고 많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알아보려고 하고 관심있어 하고 그렇게 하세요. 상담연수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중략-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현장전문가:진주) ”

b. 또래상담의 운영 효과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또래상담의 효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또래상담지도자가 느끼는 보람과 자부심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또래상담 운영의 세부 효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또래상담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또래상담자들간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러한 연계가 또래상담자들이 학교생활 전반과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둘째, 또래상담자들은 또래상담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을 도우면서 책임감도 갖게 되고, 자신의 인성을 키우는 성장의 기회를 갖는데 도움이 된다.

셋째, 또래상담 활동을 통해서 또래상담자들간의 대화와 토론의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의 고민과 감정을 나누는 감정표현의 기회를 갖게 된다.

넷째, 또래상담 평가에서 질적인 자료를 통해서 또래상담의 효과를 확인하면 좀 더 깊이 있는 자료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당장은 효과를 못 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가고 그게 연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요(현장전문가:강원도).”
-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을 알아가게되고 활동은 활발하게 못하겠지만 본인의 인성을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현장전문가:천안).”
- “또래상담자라고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요(현장전문가:천안).”
- “자기가 그런 상황에 처해보기도 했던 것 같고, 이러했을 때 느낌이 어땠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한번쯤은 겪어본 일들이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다(현장전문가:진주).”

② 또래상담 지도교사

a. 또래상담지도교사의 자질

또래상담지도교사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첫째, 인내심과 사회성이 높은 교사들이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둘째, 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고, 또래상담자 학생들을 잘 이끌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하였다.

셋째, 또래상담과 또래상담자 활동 지도 및 관리에 관심과 열정이 높은 사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 “인내심. 포용력. 사회성. 사회성이 있고 성취감이 높은 교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성이 발달한 교사(현장전문가:강원)”
- “자기가 상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아왔다(센터담당자:도봉)”

b. 또래상담지도교사의 역할

또래상담지도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또래상담지도교사가 담당하는 핵심적인 역할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래상담자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또래상담지도교사는 또래상담과 관련된 교재 및 활동을 관리하고, 또래상담자들을 인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셋째, 또래상담에 사명감을 갖고 또래상담자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교사는 핵심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현장전문가:강원).”
- “저희들은 오면 교재, 아이들관리, 그리고 다른 상담지원센터에서 하는 활동 알려 주고 인솔도 하고(현장전문가:강원). ”
-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센터담당자:도봉).”
-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떠한 보람이라던가 그걸 느끼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선생님이 상담쪽에 어떤 관심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본인이 좋아서 할 때 힘들어도 되는거잖아요(센터담당자:도봉).”

■ 또래상담 기획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또래상담 기획과 관련해서 운영형태와 운영관련 자원확보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 도출되었다.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자, 학교, 연계기관처럼 보다 큰 범주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또래상담 운영기획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운영기획을 세우는 것은 중요하다. 이러한 운영기획은 학교장의 허가를 받기위한 준비과정이며 향후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필수과정이다.

- “계획서를 내고 활동한 다음에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요. 그런데 그게 일이지만,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있어요.(현장전문가:강원).”

a. 또래상담 학교운영형태

포커스그룹 인터뷰결과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운영형태는 크게 CA, 동아리, CA와 동아리가 병행되는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아리의 경우 학교에서 활동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CA는 시간확보가 가능하나 훈련프로그램 진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는 CA의 장점과 동아리의 장점이 혼합되어 운영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다.

- “저는 동아리로 묶었을 때, 효율적인 것 같아요. CA를 하실 때, 구성원을 동아리로 묶어서,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3년 동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개네가 끝나면 후배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아리를 해보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후배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거예요. (현장전문가:강원)”
- “또래상담반이죠. 일종의 동아리죠. CA시간에 또래상담반 운영 한적도 있고.(현장전문가:천안).”
- “올해 학교에서 동아리가 3-4년 정도 되어서 있는 아이들이 후배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동아리가 유지만 되면 일단 가입은 하고 꾸러가니까, 학교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애들이 하는게 더 많은 것 같다.(센터담당자:도봉).”
- “예산도 학교 관리자랑 이야기를 해서 상담샘을 초빙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원래 클럽 활동일 1시간인데 2시간을 한다. 격주로 2시간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담임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또래상담 활동을 하고 시간을 빼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다. 1박 2일로 하기도 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친구들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캠프 실무자).”
- “정식으로 수업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10개 학교 중에서 1학교나 2학교 정도가 동아리로 하는데,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절반은 탈락해요. (현장전문가:진주).”

② 운영관련 자원확보

a. 소요예산 책정 및 재정적 지원확보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 예산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대체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경우 학교에서 예산책정이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있으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한 예산부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예산결정권자로서의 학교장이 중요한 역할을 가지며, 운영예산확보가 어렵지만 계획안과 학교장 설득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함이 제시되었다.

- “상담부가 있을 때에는 상담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말이죠.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현장전문가:강원).”
- “학교에서 동아리로 만들게 되면 담당교사가 배치가 되어요. 소정의 예산이 채워져야 되고.(현장전문가:천안).”
- “저희는 주면 받을텐데, 예전부터 너무 공짜 집단이라고 너무 인식이 박혀 있어서요.(현장전문가:강원도).”
- “문제는 원하는 곳이 너무 많으면 우리도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넓어서 출장비만 해도 많아요.(현장전문가:강원).”
-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또래상담이거 교재만 주면 선생님들이 다한다. 왜 굳이 외부 강사분들이 와야 되나 하는 경우도 계신가 보더라구요.(현장전문가:진주)”

b.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계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의 협조하에 캠프진행, 봉사활동 시간 인정, 인력지원, 시상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원하는 지원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다.

첫째, 초기에 학교에서 또래상담 정착을 위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전문가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사례집이나 또래상담이 활성화된 학교의 운영사례가 제시되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셋째, 또래상담자들을 대상으로 추수교육이나 수퍼비전 등의 인력지원이 있으면 보다 또래상담지도교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해주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초기교육의 시작을 잡아주는. 오픈하는 것 정도는 잡아주시고 거기서부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까.(현장전문가:강원)”
-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래상담사례집이라는 책자를 매년 만들거든요. 또래상담을 1년동안, 강원도 또래상담과 관련된 일이 뭘 했는지가 들어가지만, 그 안에 선생님들의 또래상담 운영사례를 넣어요.(현장전문가:강원도)”
- “강원도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를 하잖아요. 강원도내 아이들200명을 모아서 하잖아요. (현장전문가:강원도)”
- “선생님들끼리 프로그램을 짜서 하려면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센터에서 교사모임(현장전문가:강원).”
- “제가 아쉬운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역량들을 지도해주면 좋겠다. (현장전문가:천안).”

c. 보충교육 및 활동프로그램 지원

또래상담자들을 위한 보충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 지원에 대한 요청 또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제기되었다.

- “교사는 교과목과 관련해서 애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수업을 하는 현장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현장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장자체가 양쪽이 다른 현장이구요. 거기서 부조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가.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그런 장면에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아이들한테.(현장전문가:강원).”
- “진행자도 보내주시고 하면 참여했을 때, 원래 봉사활동도 교육시간도 봉사시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도 좀 주고.(현장전문가:강원도).”

■ 또래상담 운영

또래상담반을 기획한 이후에 실제로 모집을 위한 홍보에서부터 실제적인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실시, 수료 및 임명, 활동 프로그램 실시, 또래상담 활동 관리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기 어려운 요인들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학교운영 사례와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유의점들에 관한 내용들이 도출되어 지침서에 제시되었다.

① 홍보의 필요성

또래상담의 의미와 활동내용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 또래상담의 인지도를 높이고 보다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홍보와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1388 아니 또래상담 동영상 홍보 동영상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중략- 정말로 봤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현장전문가:강원).”
- “애들 교육할 때도 또래상담 교육할 때도 필요한 거 같아요. 또래상담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워 갈 때 이용하는 사례들 같은. 성공한 사례도 조금(현장전문가:강원)
- “워낙에 인식이 안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기초훈련을 해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저희는 상담교사가 안계 신 학교가 너무 많아서(현장전문가:천안).”
- “또래상담. 했을 때 ” 와~ 나 그거 해보고 싶다 “라는 느낌이 잘 안들잖아요(현장전문가:진주).”

② 또래상담자 모집, 선발 및 임명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학교에서의 운영형태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또래상담자를 모집하고 선발하여 운영이 되고 있었다.

a.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학교에 따라서는 또래상담반을 운영하기 위해 또래상담자를 모집하고 임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요소들은 다음

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성적이 중요시되다보니 학부모나 학교 선생님들의 또래상담의 필요성 인식의 부재로 인해 또래상담자를 모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또래상담자 역할의 인식 부재와 운영형태에 따른 대상자 선정의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또래상담자를 모집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동기유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과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저는 애들 모으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오로지 목표는 성적을 얼마나 올리느냐예요” (현장전문가:강원).”
-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로 안 하하고 특별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또 학기 초에 뽑는다고 뽑아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받아들여서 합니다.(현장전문가:강원) “
- “또래상담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어려웠었다. 잘 받으려고도 안하고 신청만 해놓고.(현장전문가:천안).”
- “요즘 애들은 제일 크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해요. 정말 이 애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애들은 잘 안와요(현장전문가:진주).”
- “공부잘하는 아이 이렇게 기준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관심이 있고 친구를 돕고 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애들이 또래상담자로 필요하지 않나(현장전문가:진주).”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침서에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방법 및 모집과 선발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대상자 선발 시 유의해야할 사항들과 실제로 또래상담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학교의 여러 가지 모집 사례를 제시하여, 또래상담을 운영할 때 보다 학교의 실정에 맞게 방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b. 또래상담자 임명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명장을 수여하고 또래상담자의 역할을 부각 시키기 위해 배지와 수첩이 필

요성이 강조되었다.

또래상담자 임명과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그 아이들이 뺏지를 받고 수첩을 받는다는건 내가 또래상담자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 선서를 하고 그걸 받는거고(현장전문가:친안).”
- “상담자선서 하기도 하니까, 하반기때는 뭔가 조금 활동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는 것 같고, 의무감도 가지는 것 같고(현장전문가:진주).”
- “수첩을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더라고요. 뺏지는 정말 좋아하고 항상 달고 다니고(현장전문가:진주).”
- “뺏지가 예쁘고 작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면 또래상담자들은 항상 이름표 옆에 달고 다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 선도부 있듯이 또래상담자 해서 다니면 누구든지 애한테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애가 해결해 주는 건 아니더라도 비밀이 보장되고 언제나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조례시간에 알리면 더 좋겠어요.(현장전문가:진주).”

③ 프로그램 운영

a. 훈련 프로그램 운영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운영형태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의 고정된 시간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지적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규모를 정할 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토의를 할 수 있는 학급단위나 소그룹 단위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이 언급되었다.

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그러면 또 상황에 맞는 어떤 시간인가를 제가 찾아야 하는 거죠.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요(현장전문가:장원).”
- “적극적인 아이들이 아니어서 운영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현장전문가:장원).”
-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학교조차도 교사들이 하기 어려웠다. 수업시간이나 기타시간을 초과로 할애해야한다는 것이(센터담당자:도봉).”
- “학교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시간은. 이게 또래상담이 전체를 놓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룹을 나누어야 해서(현장전문가:강원).”

- “제일 가능한 얘기는 학급 단위인데 학급 단위도 사실 큰 학교는 사람이 많다(현장전문가:강원).”

b. 보충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 첫째, 1년 단위로 또래상담반을 운영할 때, 기본 훈련프로그램만으로는 또래상담자로서 본격적으로 또래상담자 활동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다. 둘째,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교사들이 훈련프로그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손쉽게 보충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충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그냥 특활시간에 아이들 프로그램 하고 1년을 하니까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많이 쓰기도 하고 게임이라든지 이런것도 하기도 하고(현장전문가:강원).”

- “또래상담 교육을 이것만 하지 말고, 개네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천안, 천안C)

-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현장전문가:강원).”

- “MBTI를 해봤는데, 애들 집단에 효과적이더라고요. 애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MBTI결과를 활용해서 대화하는 거 훈련하는 거를 재밌게 한 것 같아요.(현장전문가:강원도).”

- “니코프리스쿨. 또래상담자들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금연프로그램을 실시(현장전문가:천안).”

- “자살이랑 학교폭력. 이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 보다 니네가 좀 키워가 되달라. 키워의 역할을 지네끼리는 알죠. 누가 위험한지. 상담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현장전문가:천안).

- “자매멘토링, 봉사(현장전문가:천안).”

- “전학온 아이들이라든지. 적응. 모든게 낯설잖아요. 폭력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신고하는 신고자로서의 역할도 좋더라고요(현장전문가:진주).”

④ 또래상담자 활동관리

또래상담이 보다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자의 활동 및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포커스그룹 인터뷰의 결과 또래상담자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상담지원센터나 학교에서 발급되는 수료증을 통해서 또래상담자들에게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심어줄 수 있다. 둘째, 또래상담자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또래상담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셋째, 또래상담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을 확보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자 활동관리와 관련하여 도출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몇일부터 몇일까지 했다 그러면 번호를 달아서 수료증을 보내주시죠.(현장전문가:강원).”
- “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기록을 적게 해요. 자기가 적을 수 있는 만큼만. 그걸 가지고 또래상담 봉사시간을 줘요.(현장전문가:강원).”
- “저가 봉사시간 줘던건 뭐였냐면, 학년초에 기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도서관관리에 다 봉사시간을 줘었어요.(현장전문가:강원).”

■ 또래상담 평가

① 또래상담 운영 평가

또래상담 프로그램 보급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또래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실시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또래상담 운영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첫째, 실제로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 또래상담에 대한 또래상담자들의 만족도나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과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

둘째, 또래상담 활동 경험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설문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래상담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셋째, 또래상담에 대한 또래상담자들의 평가를 조사한 결과, 또래상담자들은 대체로 또래상담이 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래상담 운영 평가와 관련해서 도출된 주요 응답은 다음과 같다.

- “상담실을 제가 운영하니까 학기마다 매번 정기적으로 설문을 하는데 설문 문항에 포함시켜 놓는 거죠. 또래상담을 받은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학교생활전반에 대한 설문을 하는데 거기에 끼워서(현장전문가:강원).”
- “저는 평가는 안해봤어요(현장전문가:강원).”
- “아이들 자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죠. 그런데 자기들한테 도움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현장전문가:강원).”

②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 평가

a. 또래상담 관련 기관의 협조와 연계

또래상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과 관련된 연계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또래상담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첫째, 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교육청을 통해서 또래상담 운영에 대한 공문이 직접적으로 각 학교로 발송되면, 또래상담 운영의 필요성과 운영을 위한 승인을 얻는데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둘째, 또래상담을 개발하고 보급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또래상담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도 또래상담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한국청소년상담원이 학문적으로 또래상담 모형을 개발하거나 또래상담의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또래상담을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셋째, 한국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학교, 정부기관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또래상담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또래상담 관련 기관의 협조와 연계와 관련된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는 모든 학교는 기본적으로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한 교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구요(현장전문가:강원).”
-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걸로 해야지요(현장전문가:강원).”
- “어떤 상황이든 학교에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모형이든 여러 가지. 이것의 기대효과라든가. 이것의 필요성은 그 쪽에서 학문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잖아

요(현장전문가:강원).”

- “웹에서와 함께 지역의 센터는 오프라인으로 그 지역 아이들하고 연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현장전문가:강원).”

b. 또래상담자에 대한 보상

첫째, 또래상담자들의 진학에 또래상담 활동 경력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래상담자들의 활동 기록을 저장 및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또래상담자들에 대한 보상으로 또래상담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여, 또래상담 뱃지와 수첩과 같은 도구를 활용하여 이러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셋째, 여성가족부나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직인으로 발행된 또래상담자 증서, 임명장 및 봉사활동 확인서가 발급되면 또래상담자들의 또래상담 활동이 촉진될 수 있다.

또래상담자 보상과 관련된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공이라든지 교육학과라든지 청소년지도학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활동을 너는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해 왔고 준비를 해 오면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얘기는 하는데 (현장전문가:강원).”

- “긍지와 프라이드를 심어주고 뱃지를 달아주고(현장전문가:강원).”

- “애들한테 메리트 줄 수 있는 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고생 안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시키시려면 아이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해야지요(현장전문가:강원).”

- “한국청소년상담원 증서나 여성가족부나 교과부에서 발행하는 증서를 주지요(현장전문가:강원).”

c. 또래상담지도교사에 대한 보상

첫째, 일반적으로 또래상담 지도교사는 일반 과목을 담당하거나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또래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래상담지도교사에게 가산점수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둘째, 학교에서 또래상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상담실과 같이 또래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래상담자 보상과 관련된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활성화가 되려면 전담교사가 있고 그 교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학생들이 또래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모둠방 필요(센터담당자:도봉).”
- “조금 더 가산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센터담당자:도봉).”

d. 또래상담지도자와 또래상담지도교사 연합회

첫째, 일부 지역에서는 또래상담 연합회가 있지만, 현재 전국적인 또래상담 연합회의 구축과 활발한 활동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또래상담 연합회는 또래상담자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또래상담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의 일환으로 또래상담자 발대식과 같은 연합회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셋째, 지역별로 또래상담 지도교사들이 또래상담 활동과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연합회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연합회 구성과 활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기모임과 같은 형태로 지속되어야 한다.

또래상담지도자와 또래상담지도교사 연합회와 관련된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상담을 하시면서 그때그때 각 학교별 진행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의 모임들이 지역별로 이루어 질 수 있고 그것이 자발적인거면 더 좋을 수 있지만, 그냥 그것도 뭐 작은 거라도 1년을 모았을 때 몇시간 인정 이런것도 좋을 것 같아요.(현장전문가:진주).”
- “저는 아까 생각한 게 선생님들 사이의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RCY라던가 아니면 청소년연맹 스카우트 했던 사람들은 정말 거기 몇 십년씩 목숨걸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래상담도 상담에 관심있고 처음부터 교육받아서 구심점이 없다는거죠.- 중략-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 애들 데리고 발대식이라는 데를 갔다 오잖아요. 5월 달쯤에 발대식에 갔다오면 애들이 또 마음이 달라져요(현장전문가:강원).”

⑤ 또래상담 홍보

첫째, 또래상담자들의 활동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 사례집을 각 시도 학교와 센터에 배송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또래상담 홍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둘째, 또래상담 관련 소식지 발간이나 웹사이트 구축을 통해서 또래상담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래상담 홍보와 관련된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소식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하구요. 소식지가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 제작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뭔가 유인책이라던가가 있어야 되고. 저는 온라인상에 전국적으로 웹을 관리를 하세요(현장전문가:강원).”
- “사실은 이제 또래상담이 활성화된다 하면 그것이 이제 사례집으로 나온다면지 활동 시킬 수 있게 나온다면지(현장전문가:진주).”

3) 또래상담 저해 요인 평가

① 공립학교에서의 교사 이동에 따른 어려움

사립학교와 달리 공립학교에서는 일정 기간이 경과되면 학교를 이동해야 하며, 이러한 공립학교에서의 교사 이동에 또래상담을 정착시키고, 또래상담 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었다.

공립학교에서의 교사들의 또래상담 업무 지속의 어려움과 관련된 세부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기는 공립이니까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맡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립이니까 제가 또 1년 있으면 가야하거든요. 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니까 제 생각에도 특별활동 시간에만 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아이들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긍심이라던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로 하는 게 좋은데,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발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해요 (현장전문가:강원).”

② 교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인한 어려움

또래상담을 전문상담교사나 상담반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교과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또래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대다수이다. 이렇게 교과를 담당하면서 또래상담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또래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교사의 피로가 누적되는 부작용일 발상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교사들의 업무 과정과 관련된 세부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아리 유지된다는 게 사실 굉장이 어려워요. 내거를 누가 도와 줘야하는데. 교사 어떤 사람들이면은 자기 교과목이 다 있어요. 교사가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잖아요. 또래상담 말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래상담이 그 뒤에 붙는 거예요(현장전문가:강원).”
- “저희는 만날시간도 없고 중학교는 또 선생님들이 수업시수도 많고 굉장히 바빠요. 예전에는 보충수업이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충이 야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내에서 일단 애들 일지 써서 상담한 아이들 사례를 들어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그걸 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현장전문가:강원).”

③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래상담과 같은 인성교육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또래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에서 쉽지 않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인성교육을 실천하기 어려운 입시위주의 학교 풍토와 관련된 포커스 그룹 응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성교육부도 없고 교과 위주로 막 가니까 아이들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거 같아요(현장전문가:강원).”
- “저희가 입시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생각도 못해요(현장전문가:천안).”

5) 시사점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솔리언또래상담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침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래상담지도자 양성 및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대상자들은 교육대상자 선발, 지속적인 연계와 관리, 인력관리, 담당자 및 담당교사의 열의 및 관심도라고 답하였다. 이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나, 교사들의 잦은 이동과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에서 교과외 시간을 학생들과 교사들이 할애하는 것이 어렵다보니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직접 또래상담을 운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고, CA 담당자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또래상담지도자를 파견한다 하더라도 1년 이상 지속을 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렇듯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데 어려운 요인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또래상담반 담당교사의 경우 RCY나 보이스카우트 같은 타 동아리와는 다르게 또래상담반을 운영한다고 해도 승진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또래상담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요인별로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교사관련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었다. 솔리언 또래상담 학교정착을 위한 전담교사제와 담당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며, 전근이나 잦은 이동에 대한 문제 해결과 또래상담 시간 할당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둘째,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기관인 센터 연계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가 또래상담 운영의 중심이 되고, 센터는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며 센터와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셋째, 행정적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또래상담반 모임공간이 필요하고, 학교 내의 또래상담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지침서 초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또래상담 지도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또래상담지도자의 보상과 추수관리, 센터연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모형 구축과 동시에 교사들이 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과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이 필요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고 분석하여 지침서 초안을 작성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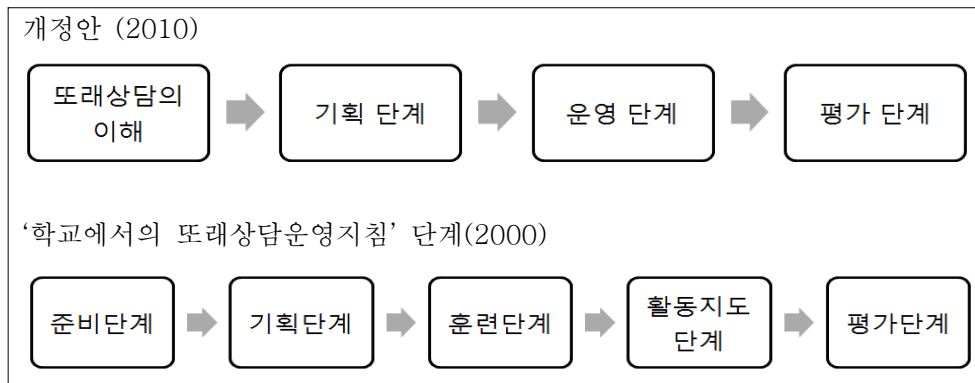
2. 지침서 운영 단계 구성

가. 운영지침서 구성과 내용

1) 운영지침 단계 구성

운영지침서 단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기존 발간된 운영지침서 분석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한 현장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또래상담의 이해’, ‘기획단계’, ‘운영 단계’, ‘평가 단계’의 운영단계를 구성하였다(〈그림III-3〉 참조). 기존의 5단계 중 내용이 중복되는 준비와 기획단계를 통합하여 ‘기획단계’에 포함하였으며 훈련과 활동지도 단계를 통합하여 ‘운영단계’로 포함하였다. 또한 운영자의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에 준비단계에 포함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또래상담의 이해’부분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그림III-3 : 운영지침서 비교



2) 운영지침 범주 구성

범주구성을 위해 인터뷰 녹음자료를 축어록으로 정리하였으며 자료분석은 포커스그룹의 분석방법 중 Krueger(1998)의 근거이론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분석방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졌다. 이 방법은 자료를 부호화하는 것으로 자료속의 어떤 현상이나 개념에 대해 이름을 붙이고 같은 이름의 명명 자료에 대해 조합하는 것이다. 즉 비슷하게 명명한 개념들을 모아 범주화 하고 더 큰 범주로 통합하며 차원과 속성에 따라 분류하게 된다(김

성재, 김후자, 이정자, 이선옥, 1999).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다섯 단계에 거쳐서 범주를 도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의 축어록을 코딩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전체적인 범주들의 목록을 도출하고, 3단계에서는 추가 범주를 확인하였다. 4단계에서는 범주들의 세부 요인들을 구체화하고 핵심 범주 목록 작성하였으며, 5단계에서는 최종 범주들을 결정하였다.

연구진 5명(교육학 박사 2인, 상담관련 석사 3인) 각자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주제를 코딩한 후 함께 모여 이를 합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합의는 연구진 5인 이상이 일치한 내용으로 하였으며 일치하지 않은 경우 토론을 거쳐 다시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축 코딩 단계에서는 개방형 코딩 단계에서 정리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이 역시 개방형 코딩 단계와 동일하게 평정자 4인의 지속적인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2) 운영지침서 내용 구성

운영지침서의 내용 구성은 공통 범주로 정리된 내용(〈표III-13〉 참조)을 운영단계 4단계에 배치하여 각 내용을 확정하였다. 각 단계별 세부 목차와 구성 내용의 특징은 〈표III-14〉와 같다. (세부내용은 〈부록 7〉 세부내용은 지침서 완성 본 참조).

표III- 14. 학교운영지침서 구성안

단계	세부 내용	비고
1. 또래 상담의 이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의 필요성 2. 또래상담의 발전과정과 현황 3. 또래상담 지도자란? 4. 또래상담지도자의 기본자질 	<p>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가 알아야 할 프로그램의 필요성, 특징, 현황, 지도자의 역할 등에 대해 소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p>
2.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자 대상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솔리언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기획 1-2.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기획 2. 학교 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학교장의 허가 2-2. 또래상담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2-3. 운영관련 자원확보 3. 연계기관 대상 기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상 연계 	<p>학교에서 또래상담을 운영할 때 사전에 기획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으로 기획 내용을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또래상담자, 또래상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장인 학교, 그리고 또래상담 사업을 보급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과 같은 연계기관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기획 내용을 정리함</p>
3.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또래상담자 모집을 위한 홍보 1-2.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 (훈련대상자 모집과 선발) 2.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또래상담자 훈련 2-2. 훈련 프로그램 수료 3.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또래상담자 임명 3-2. 또래상담자 활동영역(내용) 선정 3-3. 또래상담자 활동 관리 3-4. 효율적인 활동관리 방법 	<p>기획단계의 내용들을 토대로 또래상담을 직접 운영할 때 요구되는 구체적인 상황 등을 정리함. 학생들을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훈련 프로그램과 활동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 또래상담자들의 활동을 지도자로서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실제 사례와 팁 등을 제시하여 학교 현장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함</p>
4.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또래상담 운영 평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또래상담 평가의 필요성 1-2.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의 운영평가 1-3. 또래상담 활동 평가 2. 또래상담 평가의 활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또래상담 활용 방식 2-2. 또래상담 평가 활용 	<p>또래상담의 효율적인 운영을 검토하고 운영 효과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 또래상담 관련 평가에 대해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평가 및 운영한 내용에 대해 양적뿐 아니라 질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평가 척도를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정리함</p>

3. 지침서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수정된 지침서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1차 타당도는 또래상담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2차 타당도는 또래상담 운영 교육을 받은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회에 걸쳐서 지침서의 현장 활용도를 검증함으로써 지침서의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1) 1차 타당도 검증 절차

① 전문가 인적사항

본 연구에서 수정된 지침서에 대한 의견 제시 및 현장활용도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1차 타당도 검증 전문가들은 총 13명으로, 현직 교사 6명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 7명이며, 공통적으로 현장에서 또래상담을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현장활용도 타당도 검증은 집단 1과 집단 2를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집단 1은 또래상담 담당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집단 2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3차 타당도 검증 집단은 교사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들로 구성되었다. 전문가들이 속한 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강원, 경남, 충남, 광주로 이루어져 있다.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적사항은 <표III-15>와 같다.

표III- 15. 타당도 검증 전문가 집단 인적사항

타당도 집단	대상 구분	성별	지역	소속	인원
집단 1	A	여	강원	학교	5명
	B	여	강원	학교	
	C	여	강원	학교	
	D	남	서울	학교	
	E	여	부산	학교	
집단 2	F	여	경남	센터	4명
	G	여	충남	센터	
	H	여	서울	센터	
	I	남	광주	센터	
집단 3	J	여	경기	학교	4명
	K	여	강원	센터	
	L	여	강원	센터	
	M	여	부산	센터	
합계					13명

② 타당도 검증 절차

본 연구에서 전문가에 의한 지침서의 타당도 검증은 총 3개의 집단에 의해 실시되었다. 집단 1의 타당도 검증의 실시 기간은 2010년 10월 9일이며, 집단 2의 타당도 검증은 2010년 10월 12일, 집단 3의 타당도 검증은 2010년 10월 11일에서 13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집단 1과 집단 2의 타당도 검증 진행 절차는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고, 우편을 통해서 수정된 지침서를 미리 발송하였으며 집단 참가자와 연구진이 직접 만나 심층 논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집단 3의 타당도 검증은 의견과 설문지를 서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현장 활용도 전문가 타당도 검증 설문은 <표III-16>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표III-16. 현장활용도 1차 타당도 검증 설문지 문항구성

문 항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운영지침서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 운영지침서가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본 운영지침서가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본 운영지침서를 교사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본 운영지침서가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운영지침서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1차 타당도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 수정된 지침서의 타당도 검증은 양적인 방식과 질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실시되었다. 양적인 방식으로는 교사들로 구성된 집단 1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들로 구성된 집단 2를 대상으로 총 6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객관식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질적인 방식으로는 수정된 지침서의 내용에서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가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에 대한 피드백 및 의견을 수렴하였다.

① 양적 타당도 검증 결과 분석

객관식 설문지를 통해서 현장 활용도 타당도 검증 결과를 분석 한 결과, 평균 4.55(91%)이상의 높은 평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정된 지침서가 전문가의 판단으로 볼 때, 체계적으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사들로 구성된 집단 1과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담당자들로 구성된 집단 2를 대상으로 실시된 지침서의 현장활용도 타당도의 검증결과는 <표III-17>과 같다.

표III- 17. 현장 활용도 1차 타당도 검증결과(5점 만점)

문항	평점						합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집단 1 (교사)	4.80	4.60	4.40	4.80	5.00	4.40	4.67
집단 2 (센터 담당자)	4.75	4.50	4.25	4.50	4.75	3.75	4.42
합계	4.78	4.55	4.33	4.65	4.88	4.08	4.55

② 질적 타당도 검증 결과 분석

설문지를 통한 양적인 타당도 검증이 지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전문가들로부터 좀 더 깊이 있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연구진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실시되었다. 전문가들의 의견과 피드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침서를 재수정하고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지침서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표III-18> 참조)

표III- 18. 질적 타당도 검증결과

영역	전문가 피드백	수정한 사항
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사업과 관련해서 주요 연계기관이 센터 및 청소년상담원,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연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 기존의 지침서 이후에 또래상담 관련 정보가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며, 또래상담 관련 최신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 기존 지침서에는 또래상담과 관련된 현장의 소리 및 또래상담의 실제 운영 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장의 부분에서 주요 연계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 또래상담 연계기관 리스트 및 또래상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추가 및 수정하였다. • 현장의 소리 및 또래상담 실제 운영 팀과 같은 내용을 전체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또래상담의 실제와 관련된 내용을 지침서에 수정하였다.
1장 또래 상담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배출현황 표 수정 및 확인이 필요하다. • 기존 또래상담지침서 및 관련서적 취득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가 요구된다. • 전문상담교사의 구체적 대상 명시가 필요하다. • 또래상담지도교사의 열정 강조가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 정 및 숫자를 확인하고 수정하였다. • 지침서제공 안내 수록하였다. • 전문상담교사의 자격을 제시하였다. • 또래상담지도교사 선발활용tip에 교사의 열정 강조하였다.
2장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반 운영형태별 장단점 사례 보장하고 관련 구체적 사례 수집하여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 훈련 프로그램 계획표를 나누어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와 넉넉한 경우 각각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 보상체계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피드백을 토대로 관련 내용 보장하고 창의적체험활동 소개하였다. • 전체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시간이 부족한 경우 활용방법을 별도 언급하였다. • 보상체계 사례를 늘리고 그에 대

	<p>설명 필요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계기관의 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가능한 내용 위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 	<p>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관련하여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내용들로 재구성하였다.
3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별로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제공이 필요하다. 또래상담자 모집시 선발되는 학생들에 따라 유의해야할 사항들이 있다. 모집시 좀 더 또래상담자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효과성이 있는)학생들로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충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프로그램 소개를 더 많이 해주었으면 좋겠다. 부록에 있는 면접평가양식의 질문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상담 훈련 프로그램 및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 참고서적,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홍보방법에 있어 또래상담자 모집시 홍보방법과 교사와 학부모 대상의 홍보방법을 추가하였다. 선발시 유의사항의 예시추가 및 참고할 수 있는또래상담자 역할을 잘해낼 수 있는 자질(성향)을 제시하였다.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기관 안내 및 활동프로그램 예시를 추가하였다.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접질문으로 수정하였다.
4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부분의 또래상담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평가부분에서는 또래상담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나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실시할 수 있는 척도로서 대인관계가 또래관계에 대한 척도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래상담의 평가가 또래상담의 성과를 확인하는데 중요하는 점을 지침서에 추가하였다. 또래상담의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척도를 추가하였다. 특히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사전과 사후에 활용할 수 있는 대인 또래관계 척도를 추가하였다. 또래상담자의 내적인 변화를 확

<p>추가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효능감과 같이 또래상담자의 내적인 성장과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유용해 보이며, 추가로 또래상담자의 내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가 추가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 평가부분에서 안내된 평가 방법과 평가 척도들이 실제로 또래상담지도교사가 어떻게 활용하면 효과적 인지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한다. 	<p>인 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척도 이외의 대인관계 척도를 추가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 평가와 관련해서 기재된 검사들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	---

3) 2차 타당도 검증 절차

① 전문가 인적사항

타당도 검증에 참여한 대상은 2010년에 또래상담 교육을 받은 현직교사 총 209명으로 서울 64명, 광주 36명, 부산 109명으로 구성되었다. 지역별로 2차 타당도 검증 전문가 집단의 세부 인적사항을 정리하면 <표III-19>와 같다.

표III- 19. 2차 타당도 전문가 인적사항

	구분	서울	광주	부산
성별	남	9	12	13
	여	55	23	95
연령	20대	2	3	11
	30대	3	6	14
	40대	12	18	46
	50대 이상	47	9	38
교사경력	1년 미만	0	0	8
	1-5년	3	3	13
	6-10년	0	4	8
	11-15년	2	6	7
	16-20년	6	5	9
	21년 이상	53	18	64
	합계	64	36	109

② 타당도 검증 절차

2차 타당도 검증은 1차 타당도 검증에서 이루어진 현장활용도 설문과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실시되었으며, 서울 지역은 2010년 11월 8일, 광주 지역은 2010년 11월 4일, 부산 지역은 2010년 11월 2일에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운영지침서의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타당도 검증 진행 절차는 40분간 토론회를 통해 지침서의 수정 의도와 연구 내용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고, 지침서 내용을 단계별로 요약하였으며 지침서 내용을 보도록 시간을 제공한 이후, 현장활용도 평가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다.

표III- 20. 현장활용도 2차 타당도 검증 설문지 문항구성

문 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본 운영지침서 개발은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본 운영지침서가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본 운영지침서가 현장에서 활용되기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본 운영지침서를 교사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5. 본 운영지침서가 현장에서 활용된다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6. 운영지침서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4) 2차 타당도 검증 결과

양적인 방식과 질적인 방식을 적용하여 수정된 지침서의 타당도 검증이 실시되었다. 1차 타당도에서 사용한 문항과 동일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된 총 6문항의 객관식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① 양적 타당도 검증 결과 분석

객관식 설문지를 통해서 현장 활용도 타당도 검증 결과를 분석 한 결과, 평균 4.08(81.60%)이상의 높은 평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본 연구에서 수정된 지침서가 현직교사들의 판단으로 볼 때, 타당하게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침서의 현장활용도 타당도의 검증결과는 <표III-21>과 같다.

표III- 21. 현장 활용도 2차 타당도 검증결과(5점 만점)

문항	평점						합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서울(교사)	3.98	4.11	3.97	3.97	3.89	3.98	3.98
광주(교사)	4.14	4.14	4.06	4.03	4.00	4.09	4.08
부산(교사)	4.15	4.29	4.17	4.14	4.15	4.15	4.18
합계	4.09	4.18	4.07	4.05	4.01	4.07	4.08

5) 1차 타당도 및 2차 타당도 검증 결과

1차 현장활용도 검증 결과와 2차 현장 활용도 검증 결과의 평균을 합산한 결과 5점 만점의 문항에서 4.32(86.40%)점의 높은 점수가 도출되었다. 1차 타당도 검증과 2차 타당도 검증의 세부적인 결과는 <표III-22>에 제시하였다.

표III-22. 현장 활용도 타당도 검증결과 총합

문항	평점						합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차 타당도 검증	4.78	4.55	4.33	4.65	4.88	4.08	4.55
2차 타당도 검증	4.09	4.18	4.07	4.05	4.01	4.07	4.08
총합	4.43	4.37	4.20	4.35	4.45	4.08	4.32

1차 타당도 집단(전문가 집단)과 2차 타당도 집단(교사집단)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2차 타당도 집단의 현장 활용도 검증 결과가 1차 타당도 집단의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2차 타당도 집단이 지침서 수정본의 내용을 검토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실제 운영을 해 본 경험이 많지 않고 또래상담 운영의 부담이 있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IV.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또래상담 지도자교육을 받은 교사가 현장에서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또래상담반을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또래상담 운영에 필요한 구성 요소들을 현장전문가인 또래상담지도 교사와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무 담당자들의 인터뷰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4단계의 운영지침 모형을 구성하고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운영지침서를 개발하기 위해 우선 또래상담 운영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먼저 2000년에 개발된 ‘학교에서의 또래상담운영지침’을 분석하여 기존 지침서의 문제점 및 보완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침서 사용의 주 대상이 될 또래상담 지도교사 집단과 청소년 또래상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침서가 학교 운영에 구체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 현장 활용성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5개의 포커스그룹을 구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고 자료를 토대로 운영지침서의 전체적인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4단계의 운영 모형에 대한 세부 구성안을 토대로 지침서 초안을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 운영 시 지도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사례와 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초안으로 완성된 지침서는 다시 현장전문가(교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실무자)에게 검증을 받고 수정하였으며 최종지침서에 대해 타당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운영지침서는 학교라는 현장을 고려하여 반드시 점검해야 할 영역들을 ‘또래상담의 이해, ‘기획, ‘운영, ‘평가의 4단계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에서 실시하게 될 내용들을 정리하고 운영의 팁과 실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운영지침서 개발을 통해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받은 지도자들이 학교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실시해오던 또래상담 운영을 4단계 모형과 세부 지침을 통해 체계성을 갖추고 운영의 통일을 모색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연구를 통한 지침서 발간은 또래상담 지도자 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다. 즉 전문

지도자들은 또래상담지도자 양성 교육 시 본 지침서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운영방안에 대한 공동의 지침과 다양한 사례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도자들 중학교에 보조운영자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 상황에서 '학교또래상담 지도자 지침서' 활용을 통해 학교 현장성에 보다 수월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운영지침서는 최근의 교육 현황과 또래상담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운영의 실제적인 지침을 구성하였다. 특히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하나로 또래상담자 보급이 명시되어 전국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상담지도 교사 연수가 의무적으로 시행되었는바 운영지침서의 발간은 훈련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육으로만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으로 돌아가 보다 실제로 또래상담반을 운영하여 수월하게 프로그램을 보급할 수 있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2011년부터 본격 운영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또래상담이 활동 프로그램으로 인증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사들의 또래상담 활용영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운영지침서에 '활용Tip', '현장의 소리' 등 또래상담 운영 현장에서 보고되는 다양한 의견을 강화하여 학교운영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동안 또래상담운영은 학교별, 지역별, 지도자별로 그 운영방식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연1회 실시하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또래상담 실무자 워크숍과 또래상담 활동 내용을 공적조서로 정리하여 우수또래상담자(기관, 청소년, 지도자) 표창시 내용으로만 파악되어 또래상담 지도자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았다. 이번 지침서 발간을 통해 학교나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지도자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례와 팁을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하여 지도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 사례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발간된 지침서를 사용하여 시범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또래상담 운영 4단계가 가능한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발간된 지침서를 직접 사용하여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또래상담 운영을 해본 현장전문가(교사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실무자)의 운영 경험을 통해 검토를 받았고 이에 대한 수정과 타당화 작업이 실시되었다. 따라서 차후 실시되는 또래상담지도자 추후교육을 통해 지도자 지침서를 교육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시범운영을

통해 지침서의 활용성을 검토해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또래상담 학교 운영과 관련한 학교현장의 다양성 반영이 다소 미흡하였다. 현재 지침서 구성을 위한 인터뷰나 설문조사 대상이 또래상담이 활성화된 지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다보니 지역에 따른 학교현장의 상황 등이 모두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학교별,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상황을 반영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소년 또래상담자의 의견 반영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 지침서를 사용하게 될 대상이 학교 교사인 관계로 대부분의 내용이 또래상담 지도교사의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때문에 실제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대상인 청소년의 견해가 미약하게 반영되어 현장의 또 다른 목소리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의 요구를 또래상담운영 지침서에 제한적으로만 반영하였다. 차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터넷 ‘클럽’ 과 전국또래상담자 캠프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한 관점에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영미(2004). 또래상담 훈련이 농촌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영진(1999). 또래중재인' 으로 '왕따' 없앤다. 신동아 3월호, 386-397.
- 경기도교육청(2004).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 추진계획. 수원: 경기도 교육청.
- 고정숙(2000). 또래상담 훈련이 자존감 및 인간관계 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본용(1999). 학교상담의 활성화 방안. 사학 88호, 78-89. 전국사립중고등학교장회.
- 구본용, 구혜영, 이명우(1994). 또래상담 훈련프로그램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김계현, 권대훈, 이상관, 이창호, 최균희, 추석호 홍태식(2003). 학생 상담활동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교육마당21, 6월호.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노성덕(2006). 고등학교 또래상담 정착과정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성덕(2009). 학교 또래상담. 서울: 학지사.
- 노성덕, 김계현(2004). 국내 또래상담 성과연구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2(2), 3-10.
- 노성덕, 김계현(2007). 학교 또래상담 정착평가 기준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5(1), 29-38.
- 노성덕, 정지연, 명선희, 김병관(2010). 소년원 또래상담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박선주(1999). 청소년의 또래상담자 훈련경험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원미(2003). 또래상담 훈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정화(1998). 여자중학생에 의한 동료상담이 선도학생의 비행성향감소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연문희, 강진형(2002). 학교상담-21세기 학생생활지도. 서울: 양서원.
- 오혜영, 지승희, 조은경, 백현주, 신주연(2006). 또래상담조직의 운영체제 구축 및 활성화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유성경(1999). 청소년비행예방 및 대처방안 - 또래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중심으로. 제5회 추계 교육연수회 자료. 영남상담및심리치료 연구회.
- 유순덕, 김현미, 김상수(2003). 경기도 청소년 의식 실태조사. 수원: 경기도청소년종합상담실.
- 유헌식(1990).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자존감 및 인간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용준(1988). 또래에 의한 집단상담이 대학생의 자기존중감 변화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희 (2000). 또래상담 훈련이 고등학생의 인간관계 및 학교생활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관용, 김순화(1983). 대학에서의 동료카운슬링. 학생연구, 9(1), 18-29.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관용, 김순화(1983). 대학에서의 동료카운슬링. 학생연구, 9(1), 18-29. 서울: 서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기정(2007). 학교개조론. 미래M&B.
- 이남희(2005). 또래상담자 활동이 교우관계 및 학급분위기에 미치는 효과. 서경대학교 사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희, 노성덕, 이지은(2000). 단계별 또래상담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상희, 이지은, 노성덕(2000). 학교 현장에서의 또래상담 프로그램 효과검증 연구. 한국청소년상담원.
- 이선숙(2005). 또래상담자 훈련경험이 여자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효과.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미(1991). 동료상담자 훈련경험이 내담자의 교우관계와 학교관련태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형득, 김정희(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상담, 8, 41-63.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이형득, 김정희(1983). Peer Group Counseling의 효과에 관한 연구. 지도상담, 8, 41-63. 계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장혁표(1986). 동료집단상담을 위한 훈련프로그램. 연구보, 22, 35-49.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정영실(2005). 또래상담 훈련이 또래상담자의 자기평가와 학급구성원의 집단따돌림에 미

- 치는 영향.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영실(2005). 또래상담자 훈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인호(2003). 또래상담자 훈련이 중학생의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여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연희(2003). 또래상담 운영이 또래상담자의 자기평가와 학급 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룡(2004).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공업계 고교생 또래상담자의 자질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2003).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인간관계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혜숙(2006). 또래상담 훈련과 활동이 또래상담자 및 소속학급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추석호(1987). 동료집단상담 장면에서 의사소통기술 훈련의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청소년상담원 CYS-NET 종합정보망. www.counselingsystem.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2004). 청소년또래상담.
- 한길자(2000). 또래상담 훈련이 교우관계 및 학급의 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경자, 김선남(1986). 또래상담자 경험이 또래상담자 자신의 자아실현도, 인간관계능력, 자기발표력의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학생생활연구, 18, 43-59.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화성시청소년상담실(2003). 화성시청소년실태조사. 경기도: 화성시청소년상담실.
- 황미숙(2007). 또래상담 활동이 또래상담자의 의사소통 능력과 학교생활 관련 태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ela, J. R. Z., & Payne, A. V. L.(2003). A test of the integration of the hopelessness and self-esteem theories of depression in schoolchildre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 519-535.
- Alford, B. A., & Beck, A. T.(1997). *The integrative power of cognitive 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oias, A. K., & Myrick, R. D.(1999). A peer facilitator led intervention with middle school problem-behavior student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3*, 27-34.
- Bowman, R. P., & Myrick, R. D.(1980). I am a junior counselor having lots of fun. *School Counselor, 28*, 31-38.
- Brackenbury, C.(1995). *Peer Helpers Plus*. Ontario: Pembroke Pub.
- Canning, J.(1983). Peer facilitator projects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18*(2), 124-129.
- Carr, R. A.(1993) Peer Helping in Canada. *The Peer Facilitator Quarterly, 11*, 15-18.
- Carr, R. A., & Saunders, G. A. K.(1998). *Peer counseling starter kit*, Victoria: Peer Resource.
- Fors, S. W., & Jarvis, S.(1995). Evaluation of a peer-led drug abuse risk reduction project for runaway/homeless youths. *Journal of Drug Education, 25*, 321-333.
- Grant, T. H. (1987). Peer assistance and leadership (PAL)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NPHA Conference.
- Grant, T. H.(1987). *Peer assistance and leadership program*.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National Peer Helpers Association Conference.
- Lombardi, J. S., & Carek, R. (1978). Making the helping network f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 367.
- May, R. J., & Rademacher, B. G. (1980). Making the helping network for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 367.
- May, R. j., & Rademacher, B. G. (1980). The use of paraprofessionals as environment assessors in student affairs agencie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1*, 61-67.
- McKeon, L. H., & Dinero, T. E.(Oct. 1999). Positive peer solutions: One answer for the referred student. Kappan Professional Journal from <http://www.pdkntll.org/kappan/kross9910.htm>.
- Miller, A.L., Rathus, J. H., Linehan, M. M., & Wetzler, S.(1997). Dialectical behavior therapy adapted for suicidal adolescents, *Journal of Practical Psychiatry and Behavioral Health, 3*, 78-86.
- Myrick, R. D., & Sorenson, D. L.(1997). *Peer Helping: A Practical Guide*. MN: Educational Media.

- Nenortas, G. V.(1987). A drop out prevention program utilizing peer group counseling with middle school alternative students. Florida: Nova University.
- Peer Program Descriptions(2010, May, 9).
<http://www.peer.ca/peerprogrmas.html#schools>.
- Rapp, H. M., DroorKin, A. L., & Moss, J. L.(1987). Student to student helping program. *The Humanist Educator*(Dec), 81-90.
- Rapp, H. M., et al. (1987). Student-to-student helping program. *The Humanist Education*, 17(2), 81-90.
- Tindall, J. A.(1995). Peer Programs. *In depth look at training peer helpers: Planning, Implementation and administration*. Bristol: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Tindall, J. A., & Gray, H. D.(1985). *Peer power-Becoming an effective peer helper Book 1. Introductory programs*. Bristol: Accelerated Development Inc.
- Varengorst, B. B. (1998). Real Friends: Becoming the friend you'd like to have. Haper colliins. 당신이 원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는법(홍창희 외 공역, 2001). 서울: 학지사.
- Varenhorst, B. B. (1980). Curriculum guide for student peer counseling training. Palo Alto Unified School District.
- Vriend, T. J. (1969). High-performing inner-city adolescents assist low-performing peers in counseling group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7(9), 897-904.
- Vriend, T. J. (1969). High-performing inner-city adolescents assist low-performing peers in counseling groups. *Personnel & Guidance Journal*, 47(9), 897-904.
- Vriend, T. J. (1969). High-performing inner-city adolescents assist low-per-forming peers in counseling group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7, 897-904.

〈부록 2〉 2009년 또래상담 교사대상 설문지

가. 인적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소속: ① 시도 ② 시군구 ③ 기타
4. 사업경력: ① 1년 미만 ② 1~2년 ③ 3~5년 ④ 5년 이상 ⑤ 경력 없음
5. 지역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남
 - ⑬ 전북
 - ⑭ 경남
 - ⑮ 경북
 - ⑯ 제주

나. 공통질문

6. 또래상담 정착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지도교사 ② 또래상담자 ③ 학교지원 ④ 가시적인 성과 ⑤ 외부의 관심과지지 ⑥ 기타 ()
7. 솔리언또래상담을 학교현장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학교의 비협조 ② 지역기관의 비협조 ③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④ 지원체계 부족
⑤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⑥ 기타 ()
8.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기관과 구체적인 지원방법 무엇입니까?
① 한국청소년상담원. 지원방법: ()

- ② 시도 지역 상담센터. 지원방법: () ④ 사회복지기관. 지원방법: ()
- ③ 지역 교육청. 지원방법: () ⑤ 기타 ()

9.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이 학교적응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학업 ② 진로 ③ 교우 관계 ④ 협동심 ⑤ 사회성 ⑥ 기타 ()

10. 솔리언 또래상담에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인간관계 훈련 ④ 봉사정신 훈련
- ② 의사소통 훈련 ⑤ 기타 ()
- ③ 상담조력기술 훈련

11. 또래상담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급의 고립된 친구들에게 관심과 지지 제공 ④ 또래 학습지도
- ② 학급 안에서의 갈등 중재 ⑤ 교사와 또래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조력
- ③ 또래의 문제해결 조력 ⑥ 기타 ()

12.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의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행정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13. 특정 영역과 관련해서 또래 상담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래상담은 대인관계와 교우 관계에 대한 개선을 통해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 형성에 도움이 된다.

다. 또래상담 프로그램 운영한 교사 대상 문항

14. 솔리언또래상담의 학교현장 정착에 도움이 된 요인이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장의 협조 ② 지역기관의 협조

- ③ 탐구정신과 창의성
- ④ 융통성과 유머 감각
- ⑤ 상담에 대한 열의
- ⑥ 기타 ()

20. 또래상담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상담에 관한 지식과 경험
- ② 의사소통 방법의 인식
- ③ 훈련 목표에 대한 명확한 인식
- ④ 집단체험 지도 능력
- ⑤ 또래상담에 대한 이해
- ⑥ 기타 ()

21. 또래상담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① 포스터나 게시물을 이용하는 방법
- ② 유인물을 나눠주는 방법
- ③ 또래상담반 선배가 후배를 섭외하는 방법
- ④ 담임교사가 수업시간이나 조회, 종례 시간에 언급하는 방법
- ⑤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는 방법
- ⑥ 기타 ()

22. 또래상담지도자의 수퍼비전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입니까?

- ① 주기적인 교육제공
- ② 관련기관과의 연계
- ③ 업무시간 내 수퍼비전 시간 배정
- ④ 역량있는 지도교사 선발
- ⑤ 기타 ()

23. 학교현장에서 솔리언또래상담자 훈련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훈련프로그램에서 개선점은 무엇입니까?

- ① 훈련기간
- ② 교재구성
- ③ 교재수준
- ④ 적용영역
- ⑤ 기타 ()

24. 또래상담자를 선발하고 훈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5.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솔리언또래상담이 문제영역별로 또래상담자가 수월하게 초기개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26. 그 이유는?

27. 솔리언또래상담이 학교현장에 주는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교사 대상 문항

28. 또래상담을 운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지도자 인력 부족
- ② 참여 학생 부족
- ③ 과중한 업무
- ④ 학교에서의 지원 부족
- ⑤ 기타 ()

29. 어떤 지원이나 도움이 제공되면 학교현장에서 또래상담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30. 솔리언또래상담의 학교현장 정착에 효과적인 요인이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교장의 협조
- ② 지역기관의 협조
- ③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
- ④ 전략적 홍보
- ⑤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 ⑥ 기타 ()

④ 또래 학습지도

⑥ 기타 ()

4번.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하는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인간관계 훈련

③ 상담조력기술 훈련

⑤ 기타()

② 의사소통 훈련

④ 봉사정신 훈련

5번.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 정착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학교의 비협조

③ 지도자의 전문성 부족

⑤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부족

② 참여 학생 부족

④ 지원체계 부족

⑥ 기타 ()

6번.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학교현장 정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학교장의 협조

③ 또래상담 연합회 활동

⑤ 또래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

② 지역기관의 협조

④ 전략적 홍보

⑥ 기타 ()

7번. 학교폭력 영역과 관련해서 또래 상담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록 5〉 또래상담 학교운영 지침서 현장활용도

1. 프로그램명 : 또래상담 학교운영 지침서
2. 평가 그룹(해당사항에 √표):교사, 청소년상담센터 상담원, 기타(_____)
3. 평가내용

질 문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운영지침서 개발은 시의 적절하 다고 생각하십니까?					
2. 본 운영지침서가 개발 목적에 맞게 잘 개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 운영지침서가 현장에서 활용되기 에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본 운영지침서를 교사에게 적용할 경우,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본 운영지침서가 현장에서 활용된다 면 기여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6. 운영지침서 내용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2010년 월 일

성명_____

〈부록 6〉 실무자 워크숍 설문자료

솔리언또래상담 현장전문가 인터뷰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는 솔리언또래상담 학교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또래사업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래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응답자 인적사항

1. 성별: 남(1명), 여(5명)
2. 나이: ① 20대 ② 30대(2명) ③ 40대(4명) ④ 50대 이상
3. 솔리언또래상담 사업 경험 기간 : 년
4. 또래지도자 자격 취득: 지도자 (년) 전문지도자 (년)

번호	성별	나이	사업경험기간	자격취득년도
1	남	40대	8년	지도자(1999), 전문지도자(2001)
2	여	30대	2년	지도자(2006), 전문지도자(2008)
3	여	30대	3년	지도자(2010예정), 전문지도자()
4	여	40대	12년	지도자(2000), 전문지도자(2001)
5	여	40대	10년	지도자(2000), 전문지도자(2000)
6	여	40대	7-8년	지도자(2000), 전문지도자(2000)

I. 센터 또래상담 사업 관련(현재 근무중인 센터 기준)

1	센터 또래상담 사업기간	① 1998년 ~ 2010년		
		② 1999년 ~ 2010년		
		③ 2004년 ~ 2010년		
		④ 2002년 ~ 2010년		
		⑤ 2000년 ~ 2010년		
		⑥ 1996년 ~ 2010년		
2	또래상담 운영형태 (복수기재 가능)	학교	CA	6
			동아리	3
		센터동아리		3, 1(없어짐)

3	지도자 보유현황	전문지도자		② 7~10명	
				④ 1명	
				⑤ 2명	
				⑥ 3명	
		지도자		교사	⑤ 13명(활동 무)
					⑥ 교육다수(활동 무)
		자 원 봉 사자	④ 5명		
			⑤ 15명		
			⑥ 20명		
4	또래상담사업 경험 정도 (연간 사업실적 등)	② 학교 및 사회기관 또래상담 프로그램 실시, 또래상담자 연합회 센터 동아리 운영, 또래상담 지도자 연구회 운영, 전국또래캠프, 울산 연합수련활동			
		③ 또래상담 활성화 대회 개최, 책자 발송, 지도자 양성교육 개최			
		④ 9년정도 연간 사업으로 2회정도 실시함			
		⑤ 사례회의 : 월1회, 캠프 : 연1회, 캠페인 활동 연2회			
		⑥ 연 20개교, 200명 정도			
5	또래상담지도자 양성 교육 횟수	② 연 1~2회			
		③ 연 0~1회			
		④ 연 2회			
		⑤ 연 1회			
		⑥ 연 2회			
6	또래상담지도자 양성 및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점	① 교육대상자선발 (교육대상자가 또래상담지도자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이유)			
		② 지속적인 연계와 관리, 지도자 활용의 기회, 슈퍼비전			
		③ 인력관리(동기부여, 자료제공, 노하우전수, 슈퍼비전), 수요와 공급의 중간 역할			
		④ 학교에서 CA활동지도자들을 양성해보려 하였지만 인적자원의 부재로 인한게 가장 힘들			
		⑤ 현장활용도가 높은 대상층의 참여 유도			
		⑥ 담당자 및 담당교사의 열의 및 관심도			
7	양성된 또래상담지도자들의 요구사항 (또래상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여부)	① 또래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 장과 추후사례관리 및 보수교육 필요			
		② 다양한 촉진활동 자료, 슈퍼비전 및 특강			
		③ 또래상담자 지도를 위한 기회제공, 슈퍼비전, 또래상담자들간의 교류 기회제공			
		④ 현장활용기회부족과 재교육(보수)			

		⑥ 학교에서의 관심, 협조 및 센터 추수 관리와 슈퍼비전
8	청소년 또래상담자 모집 및 선발 방법(간략히 기재)	① 교육청이나 센터 자체적으로 각 학교에 공문 발송 후 모집 ② 1차 자기소개서, 2차 면접 전형 ③ 동아리 공지, CA모집 등 ④ 학교 CA활동 프로그램 자원요청 ⑤ 중학교 1학년 신입생 대상 학교장 추천, 학부모 동의, 성적상위20% 이내 본인희망 반별 1명 선발 ⑥ 담당교사의 수준과 기대에 의존(센터의 조언 참조)
9	또래상담자 활동 영역 (일대일상담, 사이버상담, 자원봉사 등 활동내용 기재)	① 일대일 상담, 자원봉사활동 ② 개인상담 사이버상담 외 ④ 자원봉사활동 ⑤ 소속된 반에서 쪽지 상담. 1:1상담 등 ⑥ 개인상담, 학급도우미 활동 등
10	또래상담자 슈퍼비전 등 추수관리 실시여부 (한다면 어떻게, 안한다면 이유는)	① 활동 후 한달에 한 번 모임을 통해 사례를 나눈다. ② 월레교육:사이버상담, 성교육 및 성상담 실제 ④ 추수관리 실시하려 했으나 관리의 미흡으로 유지 되지 못함 ⑤ 월1회 사례회의 ⑥ 지도자 보수교육 및 간담회 등 운영
11	또래상담 홍보 실시여부 (한다면 어떻게, 안한다면 이유는)	① 공문발송, 청소년축제 및 아웃리치 홍보 ② 각종 TV 및 라디오 인터뷰, 신문보도자료 ④ 또래상담 홍보 학교를 통한 홍보를 실시함 ⑤ 행사홍보 및 교내홍보(신입생 선발), 원고기고, 라디오인터뷰 ⑥ 교육청 공문 발송
12	또래상담자에 대한 인식 (학교/ 자신/ 또래들의 인식)	① 평범함, 관심미비 ② 학교: 유용하나, 필수는 아니다 ④ 학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서 좋다고 함 자신: 청소년들이 남을 위한 배려와 인내심을 가질 때 보람을 느낌 또래들의 인식: 또래상담을 통해 대화기법을 알 수 있어서 좋고 친구를 위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이야기함. ⑤ 문제해결능력이 생기고 자긍심이 높아짐, 또래관계호전 등 ⑥ 프로그램 및 교육에 대해 긍정적 인식, 본인 및 또래에게도 긍정적 인식 주고 있다.
13	또래상담을 통한 보상 (직원/지도자/또래상담자)	①,③ 자원봉사 활동 인정 ④ 직원인센티브/지도자(강사비)/다양한 혜택, 상자, 자원봉사 접수 ⑤ 연말시상계획(공통사항)

	⑥ 학교 및 교사로부터 선발되었다는 심리적 보상
--	----------------------------

II. 학교에서의 또래상담 운영

1	또래상담 운영 관련 센터 예산 지원 유무 (있다면 어느정도규모인지 기재)	① 없음 ③ 전무. 2008년까지는 700만원정도 활성화대회(캠프)에 소요 ④ 또래상담 캠프 참여시 여비와 간식비 ⑤ 도지원센터 보조 : 1인당 간식비 정도 1,100,000 ⑥ 600~700만원 정도	
2	학교 또래상담 사업 운영 관련 애로사항	① 관심없음, 학교 업무에 밀림, 잦은 이동(지도자) ④ CA활동이 토요일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다른 타학교는 <u>인력이 없어</u>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한 곳만을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⑤ 교과일정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임을 허락하기 때문에 <u>시간적 제약</u> 이 많음 ⑥ 자주 바뀌는 교사, 지도자 문제로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고 자원이 축적되지 않음	
3	학교 또래상담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청소년 상담원	① 청소년문제를 예방적차원 및 해결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관계부처에 알리고 설득하는 일 ④ 학교에서의 지도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함이 더 좋을듯함 ⑤ 상담순회교사, 청소년동반자 등, 학교내전담관리교사양성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안 ⑥ 동반자사업처럼 학교 및 센터에서의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IT는 전담교사, 전담담당자가 지정되고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할 듯(현재 센터에서 위촉되고 존재감이 줄어든 사업)
		센터	① 또래상담 사업에 대한 필요성 홍보, 지도자 및 또래상담자 양성, 또래상담 사업비 확보 ③ 또래지도자 양성 교육의 기회 확대, 활성화 대회 등 연합활동 지원, 또래지도자 동기부여로 활동의 질과 빈도 확대. ④ 다양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도자교육이 필요함 ⑤ 프로그램 보급 허브 기능
		학교	① 학교 관계자들 인식변화 담당선생님 업무인수인계 철저 ④ 전문전담교사제로 운영하는게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됨. ⑤ 또래상담 전담관리교사 및 모둠방

〈부록 7〉 포커스그룹 인터뷰 요약

<p>1. 공문의 필요성</p>	<p>포커스 그룹: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A: 공문에서 또래상담반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내용을 보고 학생들하고 해보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 천안B: 공문 전에 교감선생님을 만나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 전에 서비스가 나가서 인지도가 있는 학교들이 있죠 이미. 그러면 먼저 전화가 와요. 저희가 많은 학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선착순이다 이렇게 되거나 꾸준히 해온 학교들은 먼저 좀 빼놔서 티옴을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일단 매년마다 선생님들 보직이 바뀌시니까 년초에 컨택이 되는게 공문이죠. 저희가 교육청 장학사님한테 드리면 장학사님이 전 학교로 뿌려주시고.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처음 또래상담을 만나 가시게 되는 통로인 것 같아요. • 천안A: 이미 계발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 조직이 된 뒤에 공문을 봤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가 안되었죠.
	<p>포커스 그룹: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 :저희들이 프로그램 공문이 오면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고, 6학년 아이들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면 6학년 선생님들과 의논을 하거든요. • 진주A : 상담담당선생님, 어떨 때는 선생님들 업무가 바빠면 공문이 잠잘수가 있다. 그래서 선생님께 교복투 담당자로 적어달라고 초창기에는.
<p>2. 또래상담 기획절차</p>	<p>포커스 그룹: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B : 어느학교를 올 한해에 몇 개교를 갈 것인지. 초중고 해서 대략의 계획을 세우고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죠. 이런이런 취지에서 또래상담반은 이런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데, 이런이런 아이들로 모여서 운영을 하실 학교들은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공문을 받아주시면 선생님께서 교장선생님께 결재를 받으시는거죠. 올해 우리 학교에서는 이걸 했으면 좋겠다. 센터에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돼서 신청서를 받고 수합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신청이 많이 온다. • 진주B : 아까 페스티벌 말씀 하셨는데 저희는 상반기에 학사일정상 무리가 되기는 하지만 CA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렇게 덜하기 하지만, 예전에는 비가 오면 CA는 취소되고, 위클리로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 때 또래상담 훈련을 어느정도는 70%정도 한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2학기초나 1학기 말에 센터일정을 봐서 또래상담자 위촉식을 해요. 당신을 또래상담자로 임명합니다. 이렇게 하고 위촉장을 줘요. 위촉장을 주고, 뺏지도 주고, 수첩도 주고. 해마다 테마를 정해요. 요즘같은 작년에 인터넷, 성, 진로, 학교폭력에 대한 것도 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면서 각 학교마다 또래상담반을 소개를 해요. 영상물로. 그렇게 해서 한데 모여보면 200명 정도가 되요. 초중고가 더 모여요. 고등학생은 조금밖에 안오죠. 사실은, 고등학교는 한두학교 밖에 지원을 못나가기도 하고. 그렇긴 해도 애들이 와서 모여보고, 친구 따라왔는데 너 하는게 이런거구나~하는 것도 있고. 뺏지 않으면 뿌듯해하고.
<p>3.</p>	<p>포커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A : 또래상담 훈련은 학기 초에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대상으로. 훈련

또래상담 운영기획	그룹:강 원도	<p>프로그램을 애들한테 하는 거는 가능해요. 솔리언 프로그램 전수는 가능한데, 또래상담자를 만드는 거는. 또래상담자를 선발하는 거는 안 되구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E : 계획서를 내고 활동한 다음에 또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되요. 그런데 그게 일이지만, 그걸 해야되기 때문에 또 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있어요. • 강원A : 저는 동아리로 묶었을 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일반적인 학교에서 CA랑 같이 병행해서 하실꺼예요. CA를 하실 때, 구성원을 동아리로 묶어서. • 강원A : CA구성원을 동아리랑 묶는 것은 가능해요. 이질적인 집단이 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3년을 끌어가게. 보통은 CA구성이 자기 희망이거든요. (1년이잖아요) 1년인데 희망할 때, 이거는 3년을 가는거더라고 해서 탑을 준다고 하면, 또래상담은 1학년에 입학해서 3년을 가는 과정으로 운영을 하라고. • (학교 예산확보) • 강원B : 그것도 선생님의 능력에 따라서. 교장선생님과 의 친분. • 강원A :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강하구요, • 강원A : 상담부가 있을 때에는 상담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던 말이죠. 이제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 (센터 예산 관련) • 강원B : 여러 가지 형태인데 거의 안받아요. 가끔씩 학교에서 예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조금씩 주실 때가 있는데, 워낙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래상담 연수를 하면서 강사비에 대해서는 편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필요하시면 의뢰를 하셔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다 지원해드리는데 못하고, 학교에 따라서는 새로 시작을 한다거나 한번 내지 두 번 초기에 이렇게 할 때, 의뢰를 하시면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리고 강사비가 • 강원C : 저희는 주면 받을텐데, 예전부터 너무 공짜 집단이라고 너무 인식이 박혀 있어서요. • 강원B : 용기있게 부르는데는 당연히 저희가 감사하게 가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에는 저희가 꼭 강사비를 다 늘 받아야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해야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있는 곳인데, 근데 문제는 원하는 곳이 너무 많으면 우리도 예산이 안 맞기 때문에 넓어서 출장비만 해도 많아요.
	실무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받기만 하고, 운영을 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 활성화가 된다면 실무자 교육을 학교에서 또래상담 담당하는 선생님들에게 실무자 교육을 해서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저희도 많이 도움을 받으니까. • 변형된걸로 이렇게 안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아니라 원칙은 나가고, 학교에서 분명히 이렇게 운영해야된다 확실히 기준점을 잡아야.
	포커스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 : 네. 신청서가 여기 상담지원센터 양식이 있더라구요. 하나하나 개인은 뒤에 받고 공문으로 몇 명하겠다. 그 작업을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

	<p>든 공문절차를 받는다. 몇 명이 할 것이며, 어디서 할 것이며 장소 이런거. 지원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와서 해주시고 그렇게 돼서 정식 공문화 돼서 내부결제로 운영이 되어지는거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 : 공문을 받아서 공문에서 요구하는대로 대상아동이 6학년이다 하면, 6학년 담임선생님들과 부장선생님과 의논을 합니다. 이런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서 하고 싶다. 비용이런 것은 무료다. 설명하에 선생님들이 그러면 해보자. 그리고 관리같은 것은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동원만하면 되니까 선생님들은 부담이 없으시고 사후관리는 제가 거의 다 하니까. 거의 다 찬성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부장선생님 다 되면 내부기안을 올립니다. 공문을 내서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하면, 다시 최종허락이 되면 센터로 신청서를 내고 저희 학교는 언제언제쯤 했으면 좋겠다는 학교 실정에 맞게 어느시간에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대상자 선정하고. 쌤들이 이런 아이들 추천해주고. 어떤 아이들을 하면 되겠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남 이야기 잘 들어주고 고민이 있는 아이들도 되고, 서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기가 도움이 될만한 아이들. 또래상담이 대충 이런거라고 말씀드리고, 몇 년 하다보니까 페스티벌 하고 하니까 대충 알고 하니까 이런아이들 추천해주세요 하면 담임선생님들이 바로 추천이 됩니다. 적극협조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러면 그 애들을 모아서 이런이런 활동들을 한다 그러면 아이들 궁금한점을 설명을 해주고, 언제쯤 하기 때문에 그 날 수업마치고 오면 된다. 그럼 지원센터에서 나오시면 소개해주시고 수업하게 교실, 복지실이나 여유 교실에서 수업을 시작하는거죠. • (센터 예산) • 진주B : 저희가 무예산으로. 지도자가 나가는 부분은 봉사인력을 쓰는 거구요.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보통은 외부선생님들이 와서 방과 후나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독서치료를 해도 강사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센터에서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들은 내용의 질을 떠나서 흔쾌히 환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센터는 공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 진주B : 학교에서 간식만 준데도 괜찮죠. 복지 사업을 하는 곳은 간식은 매달 하지만. CA는 그반만 줄수는 없잖아요. 지도자들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아이들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여름에 또 많이 덥고 • 진주B : 잘 따라와 주고 이럴때는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고 해야 하는데 그게 다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가죠. 그런부분. 그게 참 저도 안타까워서 지도자들 나갈 때 마다 회기당 교통비라도 나가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우리 예산 자체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 자체가 계속 깎이다 보니까. 봉사자들 까진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미안한 감은 있지만 그냥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한번 씩 밥 사주고.
--	---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 저희들은 이제 이번에도 자원봉사자 분들이 해주셨다는 거죠. 예산이 없는데도, 선생님이 그렇게 힘을 써주셔서 제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마칠 때 교장선생님께 말씀을 드려볼 생각이예요.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도서상품권이라도 이제 한번 여쭙볼려고 마음은 먹고 있습니다. 잘될지는 잘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열악해요.
4. 또래상담 운영효과	포커스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D : 개인적으로 상당히 즐겁고 보람도 있고 아이들도 상당히 즐거워 하고, 이 과정을 저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한 학년에 150-160명 되는데 희망자로만 하는데로 적어도 3분의 1 아이들이 희망하거든요. 아이들이나 저도 보람도 많고 아이들이 기뻐하고 상담자로서도 기뻐하고 내담자로서도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그래요. 강원A : 보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아이들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왔어요.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들이 당장은 효과를 못 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졸업하고 나가고 그게 연계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요. 당장은 상담 몇 개로 성과를 보일 수 없지만요.
	포커스 그룹:천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A: 또래상담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어려웠었다. 잘 받으려고도 안하고 신청만 해놓고, 그런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본인을 알아가게 되고 활동은 활발하게 못하겠지만 본인의 인성을 더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 천안C: 학급에 어려운아이가 있으면 선생님께 수시로 와서 우리반에 이런애가 있어요. 또래상담자라고 약간 책임감 내지는 가지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요. 개는 상담좀 해줘야될 것 같아요. 연계를 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정도는 되더라구요. 효과라고는 없는 것 보다는 그것도 아닐까. 천안C: 애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어. 많이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 때 했던 애들중에 동생이 또 우리학교 들어와서 선생님 또래상담이라는거 안해요? 누나가 했어요. 굉장히 관심있어하고 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 잠깐 들어가고 잠깐 보고 오는데도 정말 그 때는 무슨 내용이었는데 저는 잘 모르지만, 아이들이 서로 열띤 토론을 하는거예요.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다. (지도교사 변화) 진주B31 : 지도자들이 상담자 훈련이 되니까요. 특히 교사들이 물론 상담연수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을 생활지도 부분에서 아이들의 정서라던지 현재 고민이라던지, 문제가 뭔지. 초등같은 경우에는 내 반 아이들, 중등도 마찬가지기 하지만 선생님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알고자 하시는 마음도 있고, 지도하고 한해를 무사히 이끌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또래상담자로 들어가서 우리반 아이들 우리학년의 아이들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신다고 하면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도 사전에 방지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점에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5. 또래상담 이해 및 필요성 인식	포커스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D : 그런데 아쉬움이 있다면 관리자는 상담에 대한 게 없으시다는 것이죠.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다들 말씀으로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시지만 실제 할 때는 없으세요.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죠. 윗분들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도 다 말로는 인성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실제에서는 다 어려워하지요. 예를 들면 학부모 회의를 하면 지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하고 질문도 많이 하지만, 상담에 대해서는 소개나 질문도 없고. 현장에서 상담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것이 제일 아쉬워요.
	포커스 그룹:천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A: 아이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한테 좋겠구나 그다음에는 그다음에 생각하자. 생각을 함.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면 이게 집단상담이니까 계속 또 거기에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자기를 알아가는 과정들 그리고 대화법들을 통해서 중학생들이니까 본인들이 본인들의 삶에 도움이 되겠구나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 요즘에는 정서적으로 힘든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한 아이들로 인해서 반 전체 분위기가 흐려지고 많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프로그램 많이 알아보고 하고 관심있어하고 그렇게 하세요. 상담연수를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진주A :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이런 애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쌤들 관심이 공부는 제일 첫째고 그 다음으로 그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쌤들도 본인 스스로 직무연수 많이 신청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진주C : 선생님들도 연수를 받으실 때, 이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아 어떤 아이들이 모집이 되야 되는지 어떤 아이들이 진행이 되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진주B : 기본적으로 또래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진주B : 교사가 한다고 하면 저는 학교선생님들이 또래상담자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담능력을 갖추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진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죠. 실제로 그런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개인적인 희생 외에도 뭔가 더 주어져서 하실 수 있다면 더 좋고 학교장이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여러 동료 교사나 여러 가지 큰 학교들은 교사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같은 학년 아니면 잘 모르세요. 이동이 잦잖아요. 그래서.
6. 또래상담 지도교사 역할	포커스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 보상, 자긍심) 강원A : 지도자로서 갖는 자긍심은 이렇게 있어요. 교사는 핵심이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래상담이 인간을 성장하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잡은 거거든요. 그니까 애들이 성장해 가는 걸 단시간에 볼 수 없지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거죠. 교사는 이것을 하면서 아무것도 기대가 없어요.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 저희들은 오면 교제. 아이들관리, 그리고 다른 상담지원센터에서 하

	그룹: 진주	는 활동 알려주고 인솔도 하고. 제가 중간에 간식도 주고, 사진도 찍고,
7. 또래상담 지도교사 의 노력	포커스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A : 상담관련연수에 많이 참여해보지 않으면 어떤걸 적용해야되는지 난감할 경우가 많거든요. 또래상담을 학교에서 하려면 자기 안에 많은 것이 쌓여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강원D :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게 아니고 일단 시작하면 되는데, 부딪히면서 자꾸 도움을 구하면 되니까. (간식) 강원D : 애들을 교육시킬 때나 동아리 꾸려나갈 때, 먹이면서 좀 하면 잘 되잖아요. 그게 다 교사가 쓰는거니까. 그게 이제 어쩌다 한번이면 괜찮은데. 강원D : 안사줘도 되는데 ~ 교사의 재량이니까 강원A : 이 동아리는 좀 특별하잖아요. 애들과 교사의 관계가. 점심시간에 애들을 호출을 하죠. 챙겨주기도 하고 햄버거도 사주고. 강원B : 자기 간식비 대서 애들 사먹여서...
	실무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C: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서 운영이 되야지. 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작은일이 아니고 쌤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막무가내로 해볼래 해서 될 것도 아니에요. 한 번 해보면. 굉장히 지속적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만들어가지 않으면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건 아닌 것 같아요. 천안C: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어떠한 보람이라던가 그걸 느끼지 못할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 되고 이 선생님이 상담쪽에 어떤 관심도 있어야 되고. 뭐든지 본인이 좋아서 할 때 힘들어도 되는거잖아요. 그런쪽으로 이게 제도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캠프 참여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선생님이고 선생님이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지도하느냐에 따라 또래상담 활동이 달라질 수 있다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 저희들은 안오면 데리러 가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다시한번더 말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랑 마무리까지. 그래도 한두명씩은 나오자가 있다. 그래도 최대한 이끌어가려고. 진주A : 네. 간식이 참 중요하거든요. 사진도 찍고 하면, 애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발표도 잘하고, 그 선생님도 애들이 활발해서 좋다고 하시고, 그런 것 보면 수업시간에는 좀 조용히 있어도 그런데에서는 너무 말을 잘 하더라구요. 진주C : 어떤 집단은 지도자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집단이 있지만, 그런 집

		<p>단을 만나게 되면 저희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할까.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본인들도 알 거든요. 우리가 선생님을 안도와주고 있구나. 이런부분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변화해가는 모습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좋은 것 같고, 많이 지도자들도 노력하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p>
8. 또래상담 지도자의 자질	포커스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A : 그렇죠. 인내심. 포용력. 사회성. 사회성이 있고 성취감이 높은 교사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성이 발달한 교사. 강원D : 사회성이 발달된 사람은 교장선생님한테 가서 싫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
	실무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부장교사 이렇게 되면, 나이가 좀 있으신 편이라 열정이 좀 식는다. 연령대가 중요할 것 같다. 만약에 교사로 할 경우에 상담전공은 별 의미 없을 것 같다. 전공한 사람도 관심이 없으면 안하고, 전공을 안하고 부전공이지만 자기가 상담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뛰어드는 사람이 더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보아왔다. 특히 교사라면 자기가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수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과정을 잘 이수하면 그 정도의 활동은 비전공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교사대상으로 할 때 전공을 열어놓으면 좋지 않을까. 전근이 문제이다. 한 학교에 몇 명이상 참여를 하라고 해야지 전근이. 아니면 맥이 툭툭끊길 수 있다.
	포커스 그룹: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B : 선생님이 애들을 잘 이끌어가시는 분이예요. 선생님이 잘 챙기는 닳도 있을꺼예요.
9. 또래상담 활성화 요인	포커스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청, 교과부 협조 필요) 강원D : 교육청을 통해서 의무사항이 되어 학교가 돌아가요. 그냥 교사가 해 불려고 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강원A :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학교는 모든 학교는 기본적으로 위로부터 지시가 내려오지 않는 한 교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구요. 강원D : 일선에 선생님들이 상담연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주세요. 교과에 상관없이 모든 전교사가. 교사들은 상담 마인드가 없으면 교사하기가 힘들 거 든요. 그러니까. 강원E : 선생님들이 교과 직무연수를 받을 때도 필수적으로 상담연수를 몇 시간 넣는 다거나. 강원A : 아니 전체 교사들의 60시간 직무연수 중에 10시간을 상담으로 할애를 하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E :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교과 직무연수를 받는데, 상담연수를 60시간

	<p>을 받으면 그걸 안받아도 된다던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원 협조필요) • 강원A : 필요성은 그 쪽에서 학문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교과부나 여성부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접근하면은 그렇게 해서 좀 영향력들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 강원D : 또래상담자 동아리 임명장도 좀 주세요. 학교장이 안주시니까 • (정책적 제도 필요) • 강원E : 전체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것과 또 자기성장 쪽에 초점을 맞추면 전체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거든요. 학급에 꼭 또래상담이 있어서 그 학생들에게만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도움을 주고, 전체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단. 전 학생의 또래상담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공감이 되고, • 강원A : 지금 이거는 개별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학교 전체현장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 (활동기록 축적) • 강원B : 인제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결국은 창의적 체험활동하고 입학사정관에서 보고자 하는 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직업과 연결되는 활동을 해왔는지 그걸 보는 거니까 예를 들면 사회복지 전공이라든지 교육학과라든지 청소년지도학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활동을 내는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어서 해 왔고 준비를 해 오면 아무래도 유리한 쪽으로 얘기는 하는데 • (보상) • 강원A : 학생들에게 상응하는 메리트를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줄 수 없으면, 긍지와 프라이드를 심어주고 뱃지를 달아주고. 너네들은 좀 다르다는 것 밖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외부 청소년 원정대에 들어간 아이가 있었어요. 민사고하고 저희 학교는 게임이 안 되는 학교지요. 저희 학교 아이들도 뿔뿔했어요. 그 아이 커리어에 또래상담자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많은 홍보수단으로 활용했어요. • 강원A : 애들한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게 되면 그러면 그렇게 고생안해도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시키시려면 아이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는 무언가를 항상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해야지요. • 강원A : 상이 대개 큰거예요. 상이요. 저는 애가 상을 받아옵니다 이럴 때, 저 부서 자르지 말고 놔둬야지 이런. • 강원D : 저희 아이들이 또래상담자 동아리를 하는애들은 소수지만, 교육을 받는 애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희망자가 많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많은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애네가 교육을 받으면 센터
--	---

	<p>에서 수료증을 주시잖아요. 이게 매력적인거 같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D : 저는 시작할 때, 반장 임명장 주듯이 아이한테 책임감을 주는거죠. 먼저. • 강원E : 저는 제가 만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니까 주시던데. • 강원A : 그러니까 학교에서 의뢰하지 말고, 센터나 중앙에서 임명장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필요로 하는 기준을 만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가지고 객관적인 잣대를 대는게 우스운 것 같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시면 협조를 해주실 수 있잖아요. • 강원B : 그래서 약간의 과정은 형식적이라도 조금 있어서 준다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도 선생님께서 혼란만 했어. 그런데 선생님께서 임명장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면,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혼란한 다음에 이 과정이 있어서 임명장을 줄 수 있다라는게 적혀져 있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 강원A : 한마음축제에서 봉사시간을 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넣으면 되요. 그래서 그걸 줘야해요. 거리캠페인을 해도 되고. • 강원A : 봉사활동시간이 필요해요. 쓰레기줍기라도 넣어서. • 강원A : 또래상담자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뭐를 줘야 하는데, 줄 수 있는게 사실은 봉사시간을 확보해주는게 제일 좋은거잖아요. • (소식지 & 웹사이트) 강원A : 소식지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하구요. 소식지가 아이들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하고, 제작을 아이들이 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뭔가 유인책이라던가가 있어야 되고. 저는 온라인상에 전국적으로 웹을 관리를 하세요. 전국의 또래상담자들이 다 온라인으로 접속하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온라인상에서 모임을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고. 넷째 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는 날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전국의 또래상담자들이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에 또래상담자들이 있다. 강원도 애들이 다른 지역의 애들을 만나면서 또 달라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 이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애들한테 얼마나 동기부여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강원A : 온라인 웹을 관리할 수 있는거. 제가 본원에 들어가서 봤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정말. 그거를 좀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 (상담원, 센터, 웹, 학교에서의 전체적인 연계) • 강원A : 웹하고 지역의 센터는 오프라인으로 그 지역 아이들과하고 연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역 선생님들이 너무 바빠 가지고 제가 또래상담만 어떻게 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지역은 오프라인에서 애들을 관리하고 중앙은 센터는 오프라인을 관리를 해 주시면 그 안에서 정말 충분하게 애들한테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
--	--

	<p>이 들거든요. 교육은 학교에서 시키고 유지관리를 학교에서 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지 관리 없는 학교 환경에서 뭔가 효율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A : 제가 바라는 건, 그 연합회가 어떤 형태든지 학생들이 제가 생각한거는 중앙은 온라인의 그런거를 만들어서 총괄하고 센터는 오프라인쪽으로다가 제공을 하는데 또래상담자 아이들이 같은 학교가 아닌 아이들이 모여서 또래상담자 활동을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정기적으로 만들어서 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봉사시간과 연계해서요 추운날 불려내도 연합회가 왔을 경우에 봉사시간을 부여해주면 애들이 올 수 있는 동기는 부여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애들을 할 수 있는걸 활성화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아이들이 또래상담을 하면서 역할이 있어 지위가 있어 이런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액션이 있어야 되고 아웃리치 같은 활동도 해야되고, 같이 연계해서 또래상담자끼리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연합회) • 강원E : RCY나 청소년연맹같은 전국 단위의 청소년단체가 있잖아요. 또래상담도 그런 단체를 만들자는 거죠. 물론 각 지역에서 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각자하기는 하지만 이걸 청소년 연맹처럼 만들자는 거죠. 강원E4 :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일단 그 지도자들을 더 확실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지도자들이 더 책임감 있게 • 강원A : 센터가 지역안에 있는 또래상담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래상담 하면서 필요한게 뭐냐면 다른 학교의 또래상담 동아리들 하교의 같은 모임을 만드는게 필요하거든요. 일종의 연합회가 있어요. • 강원E : 그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생각한게 선생님들 사이의 연합회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RCY라던가 아니면 청소년연맹 스카우트 했던 사람들은 정말 거기 몇 십년씩 목숨걸고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래상담도 상담에 관심있고 처음부터 교육받아서 구심점이 없다는거죠. 중앙 여기서 노력을 하시지만 전체를 다 아우를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단위의 단체가 된다면 학생들도 아까 선생님은 1학기 때는 그냥 교육만 시키고 2학기 때 선발하는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공립학교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아리 애들 데리고 발대식이라는데를 갔다 오잖아요. 5월달쯤에 발대식에 갔다오면 애들이 또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전체가 모여서 발대식을 하고 도 단위로. • 강원D : 이 활동하고는 다른지만 제가 유네스코 활동을 같이 하는데 거기에 도 이제 전국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작년 같은 경우에 유네
--	--

	<p>스코 활동을 하는 학교가 강원도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학교하고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유네스코에서 제작년에는 학교 연합을 권장을 해서 고등학교 연합을 5개교가 같이 협조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열심히인 애들이 있는데 다른 학교는 비자발적이고 이런 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때 연합활동을 하고 나니까 애들이 달라져서 인기최고의, 몰려들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교 애들하고 만나게 해주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E : 그래서 아까 연합동아리 말씀을 드렸던게, 저도 이제 파라미터라고 강원도에 새로 인정받은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발대식을 놀토 같을 때 해요. 그러면 가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이렇게 모였다가 오면 아이들이 굉장하 거기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언제 하나요?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나요? 그렇게 자주 관심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연합동아리가 참 중요한 것 같고. • 강원E : 본원이 구심점이 되야지 연합동아리가 형성이 될 것 같다. • 강원D :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 만나게 해주면은요 굉장하 의욕적으로. • (공간의 필요성) 강원A : 상담실이 있으면, 상담실이 있으면 애들 방이요. • (교사모임) • 강원D : 지역별로 담당교사들의 모임같은 것을 온라인이건 오프라인 같은 것을 조직 연계를 시켜주시면 지역에서 선생님들끼리 해결을 할 수도 있고 그 지도를 센터에서 해주시는거죠. • 강원D : 우선 교사들끼리 연결이 되야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연결이 되는거지. 학생들의 연결은 애들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 강원D : 지속이 될래도 교사가 끼어있어야 지속이 되더라구요. • 강원A : 그게 점수가 높은거면 했을거예요? 그거하면 승진이 올라가고 • 강원E : 그 전에 각 학교에서 활동하는 활동자 선생님들의 정례모임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 • (사례집) 강원B : 성수고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우리 선생님이 프로그램도 하고 센터에 검사도 하고, 또래상담사례집을 만든거는 생각을 했던건 뭐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가자. 그리고 모든 학교에 또래상담 홍보를 하자.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교실 앞뒤에 붙여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그런데 또래상담을 하는 학교도 불구하고 사장이 되어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정말 효과성 검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p>캠프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교육프로그램과 뱃지로 제공받고 있고, 아이들에게 초창기에 자긍심을 주고, 중요한 것은 또래상담자들의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래상담 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야 한다. 또래상담자들의 연수인 캠프를 국내

	실무자	<p>외에 해외로도 하고, 국제봉사활동 등으로. 이렇게 하면 상담자들의 자긍심도 높여주고, 홍보활동도 할 수 있다. 동아리라고 하면 교내 단독 동아리도 있지만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동아리도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연맹이라든지 RCY, 로타리 등 그런 조직도 있는데, 이런데는 예산지원도 잘 되고 활동도 규모있게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자기부담을 시키더라도 상담원 기관 탐방, 프로그램 교육 등으로 아이들에게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지도자들에 대한 사기 진작차원에서 학생들 선발, 또래상담자 보상, 또래상담 활동 예산 지원, 또래상담 지도자의 사기 진작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표창, 장관 표창, 훈장 등도 있고 상담원장 상도 있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 또래상담자를 별도로 따로 시상식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선생님들도 일선에서 또래상담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갖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또래상담이 축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실망이 들기도 한다.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래상담만은 별도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래상담을 했을 때 원장님 상, 여가부 장관상, 우수 교사상 등인데 상의 개수를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교사나 지도자의 해외 연수와 같은 장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자 워크숍 (방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창기에는 교사가 먼저 상담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서, 상담실 먼저 생기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해달라고 했었다. 대상 아이들도 솔리언또래상담자처럼 자격요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영역이 있는 아이들이었다. 그 때 그 선생님의 관심으로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또래상담이 활성화가 되려면 전담교사가 있고 그 교사에게 주는 인센티브. 학생들이 또래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 모둠방 필요.(상담실 공간처럼). • 조금 더 가산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열정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 • 입학사정관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활동을 한 게 중요한 것이 되니 부모들이 더 앞장서서 해주고 싶어한다. 부모들 중에서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보급을 해도 될 것 같다. • 교육청과 해서 좋은 점은 담당교사를 지정해준다. 6개 중학교에 또래 도우미를 운영하는데 또래 도우미 전담교사가 있다. 전담교사가 있는데 기본 교육은 예전에 도 지원센터에서 시켰다고 하고, 그 추후는 없었던 것 같다. 이분들의 역할은 센터에서 공문이 오면 애들에게 알리고 센터로 보내주는 것만 한다. 연계만 한다. • 상담전담실을 만들어준다거나 하는 것을 추진해야할 것 같다. 대상자 선정은 어려울 것 같다. 학교에서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으면, 교육청에 미리 예산을 잡아라. • 직무연수 교육청하고 연계하면, 직무연수 인정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지. 시군이나 센터에서 이런 교사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방학 때 교육을 인정해주는걸로 해서 시켜주면 어쨌든 올 수 있겠다. 저희랑 연계할 때도 그런

	<p>게 있어야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전문연수를 받을 선생님들이 교육타겟이 되면 좋겠다. rcy나 청소년 단체는 기본적으로 그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규정이 되어있다. 이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점수가 가산이 된다. 점수가 가산되지 않으면 절대로 담당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 도 단위에서는 상담자들도 두지만 교사시상이 있다. 교사가 더 열심히 하고 차이가 없다. 돌아가면서 준다. 그것도 교사들 입장에서 매리트가 있다.
<p>포커스 그룹:천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상담자 보상) • 천안C: 센터에서 지도자가 와서 애들을 가르쳐 주고 사례지도하는 것을 교육을 함. 그런데 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있음. 상담과로 갈 때 혜택을받겠다 해서. • 천안C: 학교의 생활지도의 한 부분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더 또래상담의 효율을 기대하지 않을까. 정착이 되면서 그걸 관여한 사람은 나중에 학교에서 생활지도 유근교원으로 할 수도 있는거니까. • 천안C : 중요한건 학교에 상담 교사가 배치되는게 가장 중요해요. • 천안C: 대학으로 갈 때, 이것이 부가점으로 줄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입학사정관제 이런거 생기면서 상담학과를 가기 위해서 또래상담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해서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을 해서 경력으로 인정이 돼서 부가점으로 된다면,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진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회복지학과나 해서 하면 아주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자체내에서 봉사점수를 주는 것은 기본이고, 좀 더 크게 한다면 그런 동예과 대학에 갈 때, 우선으로 하는거. • 천안A: 다과는 예산을 세워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상담도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많지 않은 돈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구요. • 천안A: 아이들이 수료증도 하나의 보상일 수 있고, 그런걸 가지고 대외적으로 알려져서 이 아이들이 또래상담자라는 것을 알려져 자긍심을 갖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실제로 활동을 좀 시켜서 그 아이들한테 활동한 아이들한테 상을 주어서 그 상이 고등학교 입학에도 가산점이 될 수 있게끔. 인성과 관련된 상이니까 가산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 천안A: 학교에 따라서 그 상을 안줄수도 있어버리니까. 추천을 해라. 잘하는 아이들. 12명 했다면 많은 아이들을 줘야겠죠. 몇 명을 빼고 하기도 어렵고. 많은 아이들을 추천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장 상이 없으면 그 이후에 인원이 넘는다 그러면 학교장이 그 나머지 아이들을 상을 주어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고등학교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면 좀 좋은 보상이 되지 않을까. • 천안A: 학교장 상은 교사가 상신할 수 있는데 학교운영계획에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상을 주도록 각 학교에 교육청에 공문이 가야 되겠죠. 또래

	<p>상담을 하면서 활동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꼭 상을 주도록 명시를 하면, 학교쪽에서는 좋아하죠. 상을 많이 받으면 좋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C: 애들이 반장하면 기본종잡아요. 또래상담자 자격 이렇게. 뭐 하나 감투쓴것처럼 생각하고. • 천안B: 만약에 예산을 준다면 사실 천안정도에서는 지도자 수급이 가능해요. 워낙 청소년학과, 복지학과가 많다보니까 전문인력이 많은 편이구요. • 천안A: 고등학교도 공문을 보내서 그런 아이들의 가산점을 줄 수 있게끔.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되는데 말그래로 인센티브인거고 우선은 할 수 있는 기본적 여건이 되어야지 이 건 작은 사탕이죠. 그런데 아이들은 더 좋아할 수 있겠다라는. 안하는 상황에서 사탕하나 준다는건 의미가 없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p>포커스 그룹: 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B : 교장선생님이 아마 그 학교 교사에게 조금 더 인사가가 점수를 더 주던지, 그 노고에 대한 성과라던지. 그것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텐데. • 진주B: 자기 성장을 한파트로 넣고 그 다음 다른 한파트를 타인성장으로 두면 두파트로 나누어서 스킬부분을 뒤쪽에다 두면 좋을 것 같구요. • (본원에서 할 수 있는 것-사례집, 시상 등 보상에 관한 문제, 진학사례) • 진주B : 사실은 이제 또래상담이 활성화된다 하면 그것이 이제 사례집으로 나온다면 활동 시킬 수 있게 나온다면 어떤 아니면은 그 훌륭한 프로그램상담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진다면 현실적인 보상이 따라주어야 그래서 만약 그아이가 상급학교 진학하는데 플러스가 되고 이런다면 얼마나 학부모들이 서로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일들이 생길텐데 현실적으로 이 일단은 저희가 예산이 없고 또 뭐 상담원 차원에서 사례집을 모집을 만약에 하고 뭐 이렇게 시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일 • 진주A : 그게 있으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하니까 또 중학교에서 3년이나 그러고, 그런것들이 연계가 자꾸 되어야죠. 초등학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을 그렇게 자기가 나중에 정말 상담자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로도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저희들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들이 이왕하는 거니까. • (지도교사 추후모임 필요성) • 진주B : 추후 활동으로 월 2회라도 이제 또래상담 교사 우리 예전 연구회 이런식으로 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센터하고 연계가 되어서 쪽 가진다 하면 그것도 또한 연수 점수로 만약 인정이 된다면 그분들이 그러니까 과외일모으로 부담스럽지 않게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 진주B : 당장 교사들이 지도를 하더라도 많이 쉽지 않을텐데 또 수업을 하셔버리면은 곤란하잖아요. 안그러신 분들이 물론 지도를 하시겠지만. 모임을 유지해 나가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모임을 꾸려나가는 주체가 누가 될 건지. 센터와의 연계를 하는 부분에서 앞으로 고민할 부분이. • 진주B : 그러니까 또래사업이 형태가 약간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면 어차피

		<p>저희는 지도자들 모임을 계속 하고있고 지도자 교육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있는데 이제 실제로 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한분, 두분 세분이 되더라도 그 분이 실제로 학교에서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들 의 모임도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개개인의 그거는 어렵잖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B :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하나의 이제 네트워크로 그런 모임들을 뭐 어디든 주축이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 (봉사점수)진주B : 저희는 정규프로그램을 CA시간에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CA가 수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봉사로 인정을 하진 않구요. 그 시간 외에 이 아이가 자기가 상담일지를 적고 있다던지 친구를 만나서 상담을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토요일이나 이럴 때 또래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페스티벌을 참가한 것은 저희가 시간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요. 페스티벌이라는게 이제 또래 위촉식하면서 같이 이제 또래로 하는 같이 어울리는 장이거든요 • (보상)진주D : 우선 애들한테는 간식을 있는 만큼 주는게 제일 크고요. 그외엔 아이들이 처음 나와서 뭔가 프라이드나 내가 의미를 안주고 있는 아이라면 센터에서 주는 위촉장뿐만 아니라 그게 서울에서 뭔가 왔다 하면 뭔가 애들이 서울 쪽은 지향을 하잖아요. 문화던지, 가출을 해서 그쪽으로 가니까. 그런거
<p>10. 또래상담자 모집과 선발</p>	<p>포커스 그룹:강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의 어려움) 강원A: 저는 애들 모으기도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 성적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인데요. 오로지 목표는 성적을 얼마나 올리느냐예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직 공부하기 싫어하거든요. 성적이 일단 우선이예요. 여기에 성적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들이민다는 것은 너 이 자리에 있지 말라 거의 비슷한거예요. 그나마 교육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거라는 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거지, 아이들 머릿속에도 애들한테도 이게 그렇게 크게 자리잡아 있지 않아요. • 강원E :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담임 선생님에게 활동적인 아이들로, 친구들에게 신망있는 친구들로 뽑아달라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로 안 하하고 특별활동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데 갈데가 없어서 오는 아이들, 선생님들이 또 학기 초에 뽑는다고 뽑아도 아이들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받아들이어서 합니다. • 강원A : 또래상담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동기를 가지고 와야지 어떤 교사가 너 할래라고 학생을 설득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접해보면 나한테 맞고 필요하다면 올 수 있게. 그래서 학년 초는 아닌 거 같고, • 강원D : 개네들은 저희가 5월쯤에 선발을 해요. 그거는 제가 별로 개입을

	<p>안하고, 동아리 성격이니까 신청서를 먼저 받구요, 신청서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하구요 그 다음에 선배들이 2차 면접을 해요. 면접 혹은 여러 가지 상황을 주고 이런 상황에서 애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면접을 거쳐서 최종 선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네들이 매주 모임을 하면서 활동을 해나가고. 개네들이 활동하는게 많거든요. 임명장이라는 것은 선발된 7명에 대한거를 얘기를 하는거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A : 2학년 때 추가로 받아요. 1학년은 그냥 들어오게 해요. 2학년 올라갈 때, 탈락할 사람을 선발을 해요. 보통 지금 동아리 탈락한다는 애가 초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요. 2학년 때 많이 들어왔어요. 2학년 때 들어올 때는 심사를 해요. 1학년은 누구든지 들어오고, 1년의 과정을 거쳐서 탈락자를 만들구요, 이 동아리가 차별화된다는걸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는다는. 2학년이 들어오고 싶으면, 1학년 활동하던 애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죠. 그 땐 심사를 하죠. • 강원E : 저도 처음에 들어올 때, 3년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부서 정할 때는 애들이 다른 반에 가고 들어오고.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활동시간을 말고 언제 모여서 뭘 하는지. • 강원E : 추천도 하고 제가 괜찮은 애들을 뽑기도 하고, 아니면 안내문을 붙이기도 하고 • 강원E : 자발적으로 오는 애들도 보면 다른데 못가고..적극적으로 가지 못하는 애들이 오게 되어있고.
<p>실무자 워크숍 (방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성적 20%이내, 교장선생님 추천, 부모동의서 이런 조건들. 우수한 아이들이 선발이 된다.
<p>포커스 그룹: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A: 공문을 보면서 이제 작년 제작년 아이들이 했던 활동들을 보면서 그때는 아이들이 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아이들이 잘못이해를 했는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집을 해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능력이 좋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어울려다니는 7~8명이 한거예요. 성적도 그렇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공부쪽이 아닌 아이들이 여러명 지원을 해서 같이 받았어요. • 천안A: 또래상담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와서 어려웠었다. 잘 받으려고도 안하고 신청만 해놓고. • 천안A: 모집은 현재 1학년은 너무 어린 것 같아서 안했는데 담당을 했던 선생님이 연계를 해서 1~2학년 이니들이 좋더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문의하지 않고 나는 다양한 학년이 했으면 좋겠고 작년, 제작년은 1,2,3학년이 다 했고 • 천안A: 당시에는 학생회장이 교무실을 출입하죠. 학생회장을 불러세워서 관심이 있는나 물어봤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2년전에 관심이 있었는데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고싶다고. 그러면 주변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p>해서 그런식으로 얘기를 해서 3학년이죠. 2~3일에 한번씩 만날때마다 인원이 한명씩 느는거예요. 자기친구들을 모집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아이들이죠. 임원아이들도 많고, 이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인 것 같아요. 몇일이 지나고 나니까 6명이 모였다. 그래서 그아들을 불러서 할 의사가 있는지 다들 하겠다 해서, 아이들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여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A: 6명을 어떻게 모집할까 생각을 해서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했어요. 2학년은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3학년은 이렇게 했으니까 2학년은 다른방법으로 해보자 생각을 해서. 교감선생님께서 우리학급이 6학급이니깐 반당 한명씩 뽑으면 되겠네 하셔서 알아서 해주십사해서 반당 한명씩 선택을했는지 아이들한테 해볼래 얘기를 해서 했는지 6명을 배출함. • 천안A: 자질도 중요하고 동기유발. 본인이 왜 여기에 왔는가? 3학년은 비교적 친구들 사이에 와서 있을때도 활발하고 2학년아이들은 친구들이 아니고 각자 반에서 1명씩 그러니까 그아이들끼리도 안전하고 그런것도 있고 3학년아이들은 우선 하고싶은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아마 동기유발을 더 잘 했겠죠. 희망자를 잘 뽑아야 하지 안을까 생각이 듭니다. • 천안C: 애들을 잘 뽑아야하는것도 있지만 한번에 하나씩 뽑으려 하지말고 그냥 할려고하는 애들을 잘뽑아가지고 그 또래상담 있는반하고 없는 반하고 나중에 학교교내에서의 협력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조금 나중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것도 되지 않을까. 이거가 좋아서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잘해요. • 천안C: 중학교 아이들은 이걸하면 봉사점수를 준다하니까 오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 천안B: 또래상담자 교육 받은 아이들에게 수첩, 뱃지를 모두 주진 않아요, 아이들 활동이 전제가 되어 그냥 주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저는 보급교육을 하고 심화로 캠프를 해요. 캠프한 아이들이 뱃지와 수첩을 받아요. 그리고 신방중학교처럼 상담교사가 있어서 뭔가 후속조치가 되는 학교는 줘요.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 :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이런 프로그램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싶는데, 처음에 동원하기는 참 힘들죠. 지내들도 해보면 좋다는 것도 알고, 친구들 이해도 하게 되고 이런상황이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데, 그 전 처리가 너무 힘들어요. 참가시키기에. • 진주A : 그렇죠. 요즘 애들은 제일 크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해요. 정말 이애는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애들은 잘 안와요. 근데 그 옆에 친구를 꼬시면 같이 와요. 그런부분들도 있고. 친구랑 같이 오면서 자존심 상해서 말은 안하지만, 옆에 친구 하는 것 보고 같이할 때도 있고. • 진주B : 또래상담반을 구성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게 우리반에서는 나밖에 안왔어요. 이런 것. • 진주A : 그래서 저는 되도록 짝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B : 짝을 지어야 되요. 아니면 아예 한반에 한명씩만 하든지. 그럴려면 지도자가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 한 반에 한명씩 1등하는애들만 모아가지고. 진주A : 그냥 담임선생님들께 추천을 받고 부모님한테 저희들이 페스티벌이 나 이런데 참가할 때는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온나. 굳이 동의서까지는. 저학년들은 동의서를 받는데, 통보양식정도로 해서. • 진주B : CA로 갈 때는 굳이 동의서가 필요가 없구요, 만약에 동아리라던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이나 이런데 또래와 마찬가지로 다른 우리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이 아이가 학원이나 귀가시간이 달라져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모님께 통지를 하고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야되지 그러지 않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가야되요. 학원 못가면 10대 맞는데 선생님이 책임질래요. CA는 특별히. • 진주C : 그냥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거나 아까 인성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반에서 공부잘하고 예의바르고 하는 아이들만 모아놨을 경우에 효과성이 높아질 것이다 선생님들이 기대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다는 그런 친구들만 모아두면 정말 공부를 한다거나 프로그램 자체를 즐기게 보다는 막 외우고,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기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 진주B : 그러니까 저희가 또래상담자를 모집하는때에 또래상담자의 모집요건 이렇게 했을때에. 리더십이 있고 친구를 도와줄 수 있고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아이들로 모으면 좋겠다라는 문구들을 제시하니까. 학교에서 반장들만 모아둔 거예요. 선생님이 봐서 너가 리더십있다 너 해 이런식으로 해서 반장 집단이 되거나. 아니면 실제로 대인관계가 안되고 정말 상담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 학교에서 말 한마디도 안하는애, 왕따 당하는애 이런애들을 너는 상담 받아야되 이리고서 반에 막 보내는 경우도 있구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래상담자의 자질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공부잘하는 아이 이렇게 기준이 아니라 다른 친구에게 관심이 있고 친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런 애들이 또래상담자로 필요하지 않나. • 진주A :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해보니까 이런 시간이 안맞다던지, 흥미가 없다던지 이런 아이들은 중간에 저 못하겠어요 간혹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애들이 다 하긴 합니다. • 진주B:무리한 부탁도 아니고. CA같은 경우에는 가장 인기있는데가 스포츠쪽이라던지 취미활동쪽에서 탈락해서 오는 경우가 있다. 30%는 가위바위보에서 저서 오는 애들. 친구따라 오는 애들. 담임이 가라고 해서 왔다. 30%가 희망해서 왔다. 원해서 오는 애들일수록 분위기가 좋고, 담임이 보낸 아이들은 좀 그렇고, 가위바위보 진 애들은 동기부터 부여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	--

		<p>들여야 한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B :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초등에 이제 집중을 조금 더 두고, 중고등학교는 일학년들 주로, 중학생은 2학년까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위의 학년은 받지 않는 것이 학교에서도 솔직히 3학년들은 별로 신경을 안써요. 책은 졸업하고 가면, 문제애들은 전학보내면 끝이잖아요. 이학교에서는, 그런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이아이가 그래도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학교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또래상담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거죠. 학교에서 그럴 때 요번에 보면 학교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진주B : 그거를 저희가 제시는 안했어요. 학교만 나가는 공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막상 갔을 때는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때 명단까지 받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처음 1~2주간은 애들이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략 우리학교는 20명하겠다 10명하겠다 그래서 이학교는 한그룹이다 두그룹이다 이정도 해서 첫날 가서 저희가 따로 아이들한테 개인상담 신청서 이런거를 받구요. 프로그램 신청서를 받고 그 아이들한테 구두상 전달을 이렇게 하죠.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후속모임의 필요성)진주B78 : 그래서 또래교사들간의 모임을 저는 필수라고 생각해요.
11. 또래상담자 임명	포커스 그룹: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D : 어제 주신 질문을 보면 또래상담자로서의 임명장 같은 것을 직접 주면 좋다 그런 거 같아요. 그거를 하면 이야기를 해 봤어요(학교장에게). 애들 임명장은 주면 어떻게냐? 그런데 다른 동아리와의 형평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동아리예요.
	포커스 그룹: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B: 그 아이들이 뺏지를 받고 수첩을 받는다는건 내가 또래상담자로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 선서를 하고 그걸 받는거고,
	포커스 그룹: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C : 엄청 좋아해요. 또래상담반 할 때 항상 가지고 다닌다고. 진주B : 상담자선서 하기도 하니까, 하반기때는 뭔가 조금 활동에 대한 부담감도 가지는 것 같고, 의무감도 가지는 것 같고. 진주C : 그거를 아이들이 들고 다니면서 보더라구요. 뺏지는 정말 좋아하고 항상 달고 다니고. 진주B : 뺏지가 예쁘고 작기 때문에.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면 또래상담자들은 항상 이름표 옆에 달고 다니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학교에 선도부 있듯이 또래상담자 해서 다니면 누구든지 애한테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애가 해결해주는건 아니더라도 비밀이 보장되고 언제나 친구처럼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존재더라고 조례시간에 알리면 더 좋겠구요. 진주A : 교장선생님들이 해주기는 어렵지는 않아요. 만들어 주면 교장선생님 이렇게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p>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성을 띄는지. 그런분들이 아이들이 정말 그걸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그런것들이 뒤에 프로그램이 되워줘야 될 것 같은. 하나 받고 끝나는게 아니고 제가 마지막...(임명장에 대한 다른 의견)</p>
<p>12. 또래상담 자 활동 관리</p>	<p>포커스 그룹:강 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E : 그래서 남을 돕는다는 생각보다는 자기성장이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상담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화장실 가는 친구 등 이런 것들이 다 너희들이 돕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학교 안 온 친구에게 전화한 번 해 주고, 우울해 보이는 친구에게 옆에 가서 말 걸어주기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 (인터넷 카페)강원B : 우리센터 강원도 카페가 있거든요. 그거 생길 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던게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방면에서 지원이 되려는게, 또래상담 카페나 블로그를 만들어서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거예요. 워낙에 목표가 또래상담자 아이들도 들어오고 아님 애들도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아이들의 고민을 올리고 아이들이 또 도와주고, 지도자가 도와주고. 이것을 관리를 하려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그래서 다시 초반에는 운영자를 뽑았어요. 뽑아서 어느 칸을 맡아라. 아이들 운영자를 뽑습니다 해서 그 아이들을 지정을 해서 게시판은 니가 맡아라. 혼자하니깐 힘들니까 3명을 맡아라. 근데 그거를 관리를 하는데 상담자가 바뀌어요. 우리 상담원이 바뀌죠. 이게 연결이 되는데 너무 어려운데, 전국단위로 그 카페를 만들어서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게 들어가면 외부에서 볼 때도 덩어리가 커지잖아요. 일단은 덩어리가 커야되. 요즘에는 휴대폰, 휴대폰을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니까 고도원의 아침편지처럼 문자로.... • 강원D : 그 중에서 선발이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 활동하는 아이들이 저희같은 경우에 한 학년에 몇 명씩있어요. 저희같은 경우에 한학년에 7명 정도 있어요. • (센터에 수료증 요청)강원B : 선생님들이 또래연수를 받으시고, 지도자가 되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센터에 전화를 하셔서 몇 일부터 몇일까지 했다 그러면 번호를 달아서 보내주시죠. • 강원D : 애네들이 활동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을 해주냐면, 상담을 하는 경우에 상담기록을 적게 해요. 자기가 적을 수 있는 만큼만. 그걸 가지고 또래상담 봉사시간을 줘요. • 강원A : 그거 두 가지를 보죠. 그래서 아무나 오지를 않죠. 3학년은 CA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은 없어요. 그런데 동아리 이름으로 하니까 후배들을 챙겨요. 선배들이 수능 보기전에 옛을 사주거든요, 동아리 모여서 옛사주고. 애네들이 대학을 가잖아요. 춘천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 후배들을 보러 한마음 축제에 와요. 1월달에 5기 애들이 모여서 사진을 찍었어요. 졸업한지 2년된 아이들부터 지금 하고 있는 애들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E : 저는 일지에 자기가 한거를 5분이나 10분단위로 쓰고 그걸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너무 시간이 안나와요. 강원A : 저가 봉사시간 줬던건 뭐였냐면, 학년초에 기안을 올려야 되잖아요. 도서관관리에다 봉사시간을 줬었어요.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B : 저희가 하도록 독려는 하구요. 하지만 이제 상담일지를 가지고 써서 들고와라 이러면 숙제가 되니까. 잘 써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감문이나 평가문 받은 내용을 보면 친구를 도와줬다는 애도 있고, 친구하고 하는데 화가 났었는데 그 때 배운걸 써먹었다. 이런 경우들. 진주C : 상반기 때에는 교육중심으로 가지만, 하반기 쯤이 되면 스스로 생각하고,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들한테 한번 해보고 내 친구 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해봤더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다음주에는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 물어보고 자문을 구하는 아이들도, 초등학교생이어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주D : 여건이 잘 안되었어요. 애들중에 욕심이 있는 애들은 센터나 어떻게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해보고 싶더라던지, 선생님 이런 친구의 고민이 있는데 자기는 감당하기 힘들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와서, 이런일이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친구를 데리고 오라던지. 실제로 데리고 오지는 않았어요. 데려오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을 해보면 어떻게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진주B : 대신 전화상담을 애들이 활용을 해요. 주변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직접 데리고 올 수 있냐를 먼저 묻게 되는데 막상 상대친구들이 선뜻 따라오지는 못하겠죠. 근데 중간에서 그런 역할들 연계하는 노력들을 해요. 진주C : 우선은 작년에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이거 꼭 너희들이 해야해. 이런 것 보다는 또래상담자로서의 역할들, 친구들이 다른 애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훨씬 더 아이들이, 한 학생이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이렇게 두고 스스로 토의할이거나 실제로 행동하고, 그 아이 때문에 피해를 받은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그러면서 진행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는 어떻게 도와줄까. (활동사례)진주B : 외국에서의 사례들도 넣으실건가요? 예전에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또래상담자를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특히 전학온 아이들이라던지. 적응. 모든게 낯설잖아요. 우리나라야 건물하나에 딸랑 있지만, 체육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화장실은 어딴나. 이런걸 모르는것부터 시작해서. 또래상담자가 그런역할들도 많이 하고, 폭력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신고하는 신고자로서의 역할도 좋더라구요. 또래교육을 할 때,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보여주기도 했었어요.같이 하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요.

		<p>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 네 근데 그걸 저희들이 프로그램 몇 명 주는 그런건 참 그렇더라구요. 다 열심히 했는데 줄려면 다 줘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굳이 눈에보이죠 열심히 한 녀석 안하는 녀석. 다 보이는 데도 참 그거 하나에 아이들이 엄청 마음 상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진짜 자그마한 그런건데도 그러니까 차라리 5000원 선이면 단가를 낮춰서 다 같이 주자. 그렇게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나까 참 그게 해보니까 안좋더라구요. 이게 아이들이 경쟁의식을 느끼고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반감을 많이 사 버리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 주는 방향으로 좀 작은 거지만.
13. 또래상담자 활동 프로그램	포커스 그룹: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A : 그런것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나가서 그냥 캠페인 띠하나 두르고 서서 있더라도, 이걸로서 펼친다 이런거를 느낄 수 있잖아요. 강원B : 전국에 띠를 만들어서, 돌려서, 이런것도 괜찮을 것 같애 그 학교마다 지금 지역마다 또래상담자의 활동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해는 전국에 있는 또래상담자들의 역할중에 한 개가 점심시간중에 약간의 통일감을 주는거지. 강원E : 저희는 상담부조차 없다니깐요. 저는 그냥 특활시간에 아이들 프로그램 하고 34주를 하잖아요. 1년을 하나까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집단상담프로그램을 많이 쓰기도 하고 게임이라던지 이런것도 하기도 하고. 강원A : 활동하는게 특별하게 없구요, CA시간에 주로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반복하는 편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의 반복이 많구요. 제가 좀 많이 해본건 MBTI를 해봤는데, 애들 집단에 효과적이더라구요. 또래상담 동아리 집단 자체도 효과적이고, 애들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MBTI결과를 활용해서 대화하는거 훈련하는거를 재밌게 한 것 같아요. 남고. 강원B : 성수고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우리 선생님이 프로그램도 하고 센터에 검사도 하고.
	실무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도자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진행을 못하면 저희가 진행을 해요. 기본은 무조건 보조리더로 들어오셔야 된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그러면 한 챗터씩 줘요. 하면서 하나씩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난 이후에 저희가 빠져요. 그러면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교육을 해보고. 그게 첫 번째 연계지원이고. 두 번째 연계지원은 사례모임할 때, 꼭 선생님이 들어가라. 아이들 모아놓고 아이들 상담했던거 슈퍼비전 해주는데 처음에는 못하니까 몇 개월 같이 들어가서 얘기해주고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C: 니코프리스쿨.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그걸 하려면 또래지도자들이

	<p>그룹:천 안</p>	<p>학급에 들어가서 2학년 또래지도자 아이들이 1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금연프로그램을 하는거야. 이렇게 상담쪽에서만 또래상담활동을 하려고 하지말고,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1학년 교실에, 자율학습시간에 2학년 4명이 1학년 1반 아이들을 4그룹으로 나누는거야. 그리고 교재를 가지고 흡연이 얼마나 나쁜가 가르치는 거죠. 또래상담자가 아니었어요. 개네들은. 금연교육을 하는 또래지도자. 일시적으로. 또래상담자하고 상관없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C: 또래상담이라고 해서 꼭 상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면 하나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래상담을 키우는 것. 개인적으로 상담하는 것만 생각했지 이런걸로 생각을 안했거든요. 작년에 제가 이거를 해보면서 또래상담자를 이런식으로 활용을 해도 좋겠구나. 예를 들면 성교육도 할 수 있어요. 또래지도자 애들한테 또래상담만 가르치는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공부를 시켜서 후배애들을 가르쳐 주는. 이것도 하나의 또래상담자로서 역할. • 천안C: 또래상담자들은 그래도 학교에서 뽑을 때, 신뢰감 줄 수 있는 애들을 뽑잖아요. 이른바 모범생들이란 말이에요. 개네들하고 학교에서 부적응 애들. 문제일으키는 애들 조인해서 등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교사하고. 같이 가는거야. 문제있는 애들을 애네들이 케어하라고 한거지. 그래서 활동을 자꾸 만들어보는거지 이제. 또래상담자를 뽑으면 다양한 활동은 만들면 되겠더라고요. • 천안C : 개네들한테 끝났다고 하지말고, 개들을 계속 프로그램을 금연지도, 성교육이라던가 그룹별로 시켜주고 말고 성적으로 문제있는 애들, 담배피는 애들하고도 할 수 있고, 개네들한테는 큰 도움이지. 개네들이 발전하는 거지. • 천안B : 자살이랑 학교폭력. 자살은 아이들한테 해서 위기에 있는 아이들 발굴해내는게 핵심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다른 어떤 것 보다 니네가 좀 키워가 되달라. 키워의 역할을 지네끼리는 알죠. 누가 위험한지. 상담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 천안A : 아까 그 말씀드렸던 복자여고 하고 우리학교의 자매멘토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교육복지에서 하고 있는 거지만 까리타스 봉사단체가 있고, 봉사에 대해서 멘토링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을 받았고, 우리 중학교의 교육복지 대상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이거든요. 1:1로 연결을 시켜주는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인성도 보고. 시간도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주는 못 만나지만, 기본적으로 1주일에 2번씩으로 만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1달에 1,2번 만나는 상황이에요. 이게 또래상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 천안C : 아까전에 얘기하다보니까 또래상담 교육을 이것만 하지말고, 개네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더 개발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또래상담 접근
--	-------------------	--

		<p>하기가 더 쉽잖아요. 이런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래상담자가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도 해보면.</p>
<p>14. 또래상담 자 훈련 프로그램 운영</p>	<p>포커스 그룹: 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D : 작년같은 경우에는 mbti 같은 것을 했었고 이런건 친구들 이해를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하는. • 진주B : 엠비티아이도 하고 우리는 진로도 하고 그랬잖아요. • 진주D : 올해 같은, 올해 애들같은 경우는 자기 고민을 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해결해주기보다는 지금 자기 고민이 더 급하니까 들어달라고, 정말 들어만 주고 하는데 애들이 끝나고 나서 선생님 고맙다면서 선생님 다음 주에 다시봐요 하면서 너무 환하게 돌아가는 모습들. 아, 들어줘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은, 이 애들한테 알려줘야 되는게 정보가 있는데 고민을 자꾸 들어 주기가 들어주는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A : 학교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시간은. 이게 또래상담이 전체를 놓고 하기에는 어렵거든요. 그룹을 나누어야 해서. 근데 그룹을 나누는 게 14명 그룹은 아니어도 되구요. 조금 더 큰 그룹으로 나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그램 자체의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학년 단위는 가능해요. 또는 성교육같은 것도 그렇지만은 1, 2학년은 모아 놓고 일단 여기 센터 선생님들이 오셔갖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워포인트나 이런 걸 이용해서 애들한테 전달해 줄 수도 있어요. • 강원E : 중학교는 전혀 안 되요. 한 학년 단위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 강원B : 그런 것 같더라구요. 진짜 다 모아서 하는 것은 하는 사람도 힘들고 애들도 힘들고. 좀 더 현실 가능한 얘기로. 그렇다고 15명 모으는 건 힘들니까. 제일 가능한 얘기는 학급 단위인데 학급 단위도 사실 큰 학교는 사람이. • 강원D : 저희는 또래상담자 교육을 2002년부터 쭉욱 했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는 기숙사학교니까 밥 먹고 나서 휴식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휴식시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렇게 2-3년 정도 쭉 했고, 애들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동 교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아이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애들이 아무거나 관촬았거든요. 그럴 때 그 시간을 이용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올해는 저희가 여름학기로 시간을 이용했고 요 때부터 학교 상황에 맞게 시간을 빼서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 시간확보의 어려움) 강원D : 그렇죠. 학교 상황에 맞게 그때 그때 가능한 시간을 내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 학교 실정이 달라지게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또 상황에 맞는 어떤 시간인가를 제거 찾아야 하는 거죠. 고정된 시간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워요. • 강원D : 그것은 동아리 성격에 따라서 틀려요. 또래상담 같으면 제 생각에는 2시간씩 격주로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 달에 한번이

		<p>면 너무 적거든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E : 애네들이 적극적인 아이들이 아니어서 운영하기 참 어려운 점이 있어요. 시큰둥하고 반응이 별로 없고 그래가지고.
	실무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제로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학교에서 지도자를 양성을 했고, 그 학교에 상담신(또래상담교육요?) 선생님들이 지도자로 앞으로 활동하기를 기대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전혀 고등학교에서는 그 이후로 학교 선생님 15명이 계셨는데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그 학교에서 직접 또래를 해보겠다 하셔서 직접 나가서 했는데, 막상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학교조차도 교사들이 하기 어려웠다. 수업시간이나 기타시간을 초과로 할애해야한다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우선 교사분들이 하고, 또래 교육의 특징이 교육적인 부분이 많아서, 저희쪽은 집단상담의 느낌도 강하잖아요. 보조를 교사분들한테 시키니까 부담을 많이 가졌다. 아이들과 너무 규칙과 규율도 있고, 마음을 하나 하나 다 받아줄 수 없는데, 집단처럼 되버리면 부담을 느끼면 교사분들한테 매뉴얼적으로 수업식의 매뉴얼이 나간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래상담보다도 교사에게 맡은 수업이나 특강식을 가면 덜 부담스럽게 1차시 2차시 해서 나가는데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다. 왜 못하세요 몰랐더니 부담이 된다. 내가 애의 답임인데. 동아리를 모으면 오는데, 동아리를 맡을 때는 다 받아줄 것 같고, 또래상담 마음을 이해해주고 했는데, 막상 반에 가서는 조퇴시켜주세요 이러면 불편하다고 한다.
	캠프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호기심으로 신청해서 활동을 하지만 좀 더 긴 시간동안 학생들이 훈련을 받았으면 합니다.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B : 처음 한 달 정도는 힘든데, 보통 애들이 2-3회기 정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반도 바꿀수가 없구요, 그렇게 설득을 하죠. 어짜피 해야되는거 즐겁게 하자. 처음에는 전체활동이 많다 보니까 재밌게 들어요. 가위바위보에서 저서 왔는데 생각보다 재밌다. 아이스브레이킹 이런쪽으로 활용을 하죠.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요. 진주B : 요즘 애들은 고등학교 쯤 되면 안움직여요. 다운데 뭐하러 일어나요. 뭐 같이 해볼까 하면 귀찮아요. 땀나요 그러면서 안 움직이려고 하는. 진주B : 애들 사고력 신장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퀴즈들 있잖아요. 그런걸 던져보면 막 머리를 쓰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그런거여야 되지, 신체활동으로 유치하게 늙어서 움직이겠나 경로당 분위기로. 초등은 개인.
15. 상담지원 센터 역할	포커스 그룹: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D : 그러니까 가끔 와서 사례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번에도 얼마전에 와서 사례발표를 했었는데 돌아온 다음에 선생님 한 명이 연락이 온거예요. 자신이 새로 조직해서 시작하는데 자료를 달라고 다 드렸더니, 자신이 잘 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일 처음 시작은 마찬가지였거든

	<p>요. 교육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때는 아직 강원도 초반이니까 사례 발표나 이런건 많이 없었지만, 계속 질문을 하면 가르쳐 주시고, 강원도는 또래상담이 가장 활발한 도라고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했던 선생님들의 pool이 있으니까 그런거를 계속 들으면. 일단 처음 시작은 또래상담자 지도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적용을 할 때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기존에 활동을 해온 선생님들과하고 연락을 하게 해주면 개별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A :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지도자 받고 갔잖아요. 처음에 할 때에는 센터쪽에서 조금 지원을. 처음에는 지원을 좀 해주시면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 강원A : 초기교육의 시작을 잡아주는. 오프닝하는 것 정도는 잡아주시고 거기서부터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그 프로그램이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구체적인 모델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 강원B : 그래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또래상담사례집이라는 책자를 매년 만들거든요. 또래상담을 1년동안, 강원도 또래상담과 관련된 일이 뭘 했는지가 들어가지만, 그 안에 선생님들의 또래상담 운영사례를 넣어요. 그걸 넣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시작을 하려고 할꺼예요. 그러면 계획서 내봐. 이렇게 계획서를 내려니까 필요성을 뭘로 해야될지, 목적은 뭘고 일정은 뭘로 써야될지 이게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의 운영사례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올려주면, 연수오셨을 때 하나씩 드리거든요. 그것을 보고 인용을 해라. 자기 실정에 맞게. 그리고 그 사례집 안에다가 지금은 수첩이 있죠. 일지양식도 학교에 따라서 몇 가지 양식들을 넣어줬어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을 해라 하고 넣어주고 • ●(캠프진행)강원B : 강원도 또래상담자 한마음축제를 하잖아요. 강원도내 아이들200명을 모아서 하잖아요. 한국청소년상담원 보다 1년 늦어요. 첫 해를 강원도에서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가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도에 이야기를 해서 땀어요. 전국또래상담자활성화 대회. 그걸 평창에서 했거든요. 그것보다 한 해뒤에 해서 지금 200명이 모여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 이틀이지만 정선, 태백, 삼월에서 와야되. 시간이 짧지만 애들은 뭐 나중에 아쉬워하고 너무 좋아하죠. • ● 강원B : 저희는 200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강원도 선생님들께 아이들한테도 강원도 자체적으로 한마음 축제 할 때 상을 주잖아요. 상을 주고 선생님들도 너무 애쓰시기 때문에 올해는 뭘하나 몰라 ~ 이래가지고 선생님들께 뭘 상을 드리면 뭐 하나보네 그럴까봐.
실무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 자체가 역할분담도 있지만,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팀운영이라는게 맞지 않다. 전담에서 뭘 하는 것이 틀리고, 제가 전문지도자로 하면서 했을 때랑 직원이 들어와서 업무가 넘어가니까 그 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쩔 수

	<p>없다. 새롭게 꾸려 가는데 전임이 관여하면 사기도 떨어지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이 못한다면 그 후에 2차적인 것으로 해서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를 보낸다거나.. • 우리도 학교 들어가면, 모르는 선생님들 힐끗힐끗 쳐다보고, • 센터에서 직접 나가는게 아니라 지도자 선생님들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는 담당자와 지도자가 연계가 되어 되고, 학교가면 교사와 관리하는 담당교사가 있고. 이 4명 자체도 연계가 안되고, 통화를 누구랑 해야 될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한 번 연락하려면 지도자한테 연락을 해야되고, 교사한테도 연락해야되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몇 명 담당자와 연락을 해야 하는지. 제가 직접 나간다면 연락하는 것 없이 한 번에 끝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되니까 전화를 3,4통 해야되고 그러면서 안되고. • 동반자처럼 지도자를 학교에다 비치를 해두는 것이. (찾아가는 또래상담 지도자.) 상담보조교사 들 대상으로 하던지. • 한 학교 15, 16명 뽑아서 교육. 선생님들 특징이 책임이 부여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긴 하셨다. 운영모델이 주어진다면 수업시간으로 인정을 해준다거나 선생님들이 운영을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인 책임을 부여하거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운영모형에 있어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진행하는 부분도 비중이 있어야 되겠지만, 연계하는 운영모델도 매뉴얼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 • 대구같은 경우는 교육은 많이 시켰다. 지도자가 매번 바뀌니까 정착이 안되어서, 선생님을 교육시켜서 선생님을 하게 하면 몇 년 동안 이 학교에 될꺼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바꿔서 교사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교사는 교육으로 끝나고 실제 교사교육을 받고 실제 하시는 분은 정말 소수. 그 분들도 2년 되고 낙다운 되고 없어지는데. 계속 의미가 있는 것은 프로그램 교육을 안 받은 분이 그냥 또래상담이라는 제목만 알고 요청하는 경우하고, 실제 하지는 못하지만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나 혼자서는 안된다 해달라고 했을 때는 관심을 가지시면서 중간에 와서 본다던지, 혼자서 안되는 아이들이 있을 때 이런부분들이 생겼는데 또래상담하고 연관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런 부분은 교육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현실적으로 직접 이끌어 가긴 어렵지만, 교육 받고 안받고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 당장 교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교육을 시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포커스 그룹:천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C: 2년전까지는 청소년지원센터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음. 제가 직접운영한 것이 아니고 지원센터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운영 지도. • 천안B: 1차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일단 보급교육을 공문으로 받으시는 학교들이 한 번 해봐야 이게 뭔가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교육을 받으시고 동아리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심화교육으로 들어가고 아이들 사

		<p>례를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런 안내를 드리게 되는거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C: 지원센터에 요청을 해도 지원센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처럼 와야되 하는 학교나 가게 되지 다 못가요. • 천안B: 1차 보급교육. 기초교육은 몇 학급이 명시가 되고, 선착순대로 하구요. 심화는 기존에 해오시고 조금 여기는 우리가 지원을 하면 더 꽃을 피우겠다하는 학교는 지목해서. 신화학교는 후속까지 했죠. • 천안A : 제가 아쉬운 것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역량들을 지도해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들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주기적으로 한달에 한 번씩 오셔서 슈퍼비전을 해주시고 추수지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담실에 청소년지원센터에 예산이 가서. 학교에서 우리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지는 알아는 보냈지만, 저희 학교는 가능하지만 학교에서 예산이 없는 학교도 많죠.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B :지도자를 센터에서 파견을 보내면 학생들의 모집에서 관리. 상담실 운영같은 파트들은 선생님께서 맡아서 하신다.
16. 학교 또래상담 활성화 저해요인	포커스 그룹: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E : 그렇게 하려면 창재 시간이 제일 좋은데. 교육과정이 개선되면서 창재활동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어려움) • 강원A : 동아리 유지된다는 게 사실 굉장이 어려워요. 내거를 누가 도와 줘야하는데. 교사 어떤 사람들이면은 자기 교과목이 다 있어요. 교사가 그리고 무한 경쟁으로 들어가잖아요. 또래상담 말고도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업무가 있어요. 그리고 또래상담이 그 뒤에 붙는 거예요 • 강원A : 그래서 교과외 일을 잘 안 맡으려고 하죠. • (공립학교에서의 어려움)강원E : (다른 사람) 선생님이 4년 동안 했다고 하시니까 참 부러운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는 먼저 학교에 있을 때는 가능한 많은 선생님들 자원을 만들려고 지도자를 만들려고 제가 다 하지 않고 학년별로 나누었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연수도 보내고. 제가 그 학교를 떠나니까 그게 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담부장을 꼭 해야한다. 제가 할 만한 사람으로 인수인계를 시키면서 해서 꼭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지역 청소년 상담실에서 와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공립이니까 사람이 없어서 제가 맡기는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립이니까 제가 또 1년 있으면 가야하거든요. 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니까 제 생각에도 특별활동 시간에만 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아이들이 또래상담자로서의 자긍심이라던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아리로 하는 게 좋은데, 중학교 아이들은 고등학교 아이들처럼 그렇게 자발적이지가 못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해요. • 강원E : 인성교육부도 없고 교과 위주로 막 가니까 아이들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게 앞으로 더 그렇게 갈 거 같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A : 지금 우리 학교 통합 교과되면서, 이제 학교가 어떻게 되면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선택해요. 자기네가. 자기가 선택하면은 무슨 과목 몇 단위 하라는 지침이 없어져요. 비주지 교과는 다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대학이 요구하는 교과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 20시간 해도 괜찮아요. 수학 60시간 해도 괜찮아요. 사회 같은 거 반 학기만 다섯 시간 하고 줄여도 괜찮아요. 이미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C형이 우리 학교가 되었는데, A형, B형, C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A형 되기 위해서 매진하면 상담도 다 없애고 필요 없는 거 다 없애고 그렇게 없앨 거예요. • 강원D : 근데 지원을 안해줘요. 정말 중요해서 꼭 필요한 활동이고 이게 없으면 지도가 잘 안되는데. • (교사혼자서 하기 어려움)강원D : 그런데 그 선생님이 끝나면 끝나는거니까. • 강원A : 춘천에도. 근데 다른 학교가 활성화가 안되고 우리학교 애들만 와 있는데, 어느 학교에 만들었네요. 개네들을 빨리 잡아라 그러면 이게 애들이 뭐가 안되는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연락을 하고 이렇게 안되니까 그게 모일 수 있는게 센터가 가장 건전한 장소거든요. 연합회는 토요일에 해요. 놀토거든요. 그러면 또 잘 안오려고 그러고. • (교사모임 활성화 저해요인) 강원B : 시군센터가 다 있으면 시, 군에서 자기시, 군에 있는 선생님들 하면, 저도 춘천시만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게 또래상담 연구회를 했는데 워낙 머니까 이 교사들을 봉사로 시간 오셔서 공부하러 오세요 하기 어려워요. 개인돈 들어서 그렇게 온 김에 하룻밤 자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교육청에서 연수를 지원을 받아서 하니까 이들을 해야되는거예요. 이들을 하니까 인원은 한정이 되고 1년에 한번밖에 못 만나요. 저희는 도 센터기 때문에 춘천만 하기가 미안한거지.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유지를 못하고, . • (교사모임 활성화 저해요인) 강원E : 저희는 칠원와서 학생전체 관내 아이들을 모여서 워크숍을 하고나서는 연합회를 만들자고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조직도 다 짜고 누가 짜기로 하고, 소식지도 만들기로 하고. 그런데 그게 연계가 잘 안되더라구요. 너무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 강원E : 하는데는 있는데, 저희는 만날시간도 없고 중학교는 또 선생님들이 수업시수도 많고 굉장히 바빠요. 예전에는 보충수업이 여유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충이 야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1시간 내에서 일단 애들 일지 써서 상담한 아이들 사례를 들어보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그걸 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시간은 프로그램하고 한시간은 슈퍼비전을 할까 했더니 아이들이 다 발표를 잘 안하잖아요. 한두명 발표를 하고 그게 또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하긴 했지만 제 노하우니 .. • 강원C : 한마음축제는 7월말에 하기 때문에 방학때 해서 가능하지 그렇지
--	---

		<p>않으면서는 장학사 부티가 커트 하는거예요. 우리 교육장은 이걸 원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시간) 강원B : 원래 컷어요. 그런데 자제하라고 그러가지고 못주고 있는거죠.
	<p>실무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으로 교사연수하고 전라도 자원봉사자들이 또래상담자 지도자 양성을 한다.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이동이 잦다. 열정을 하려고 왔는데 다른 학교로 가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릴 수 있다. • 교사중심으로는 또래상담을 하지는 않았다. 품성은 잘 했는데, 그 교사들이 전근을 간다. 또래는 사실 교사가 직접운영을 한적이 없다. 우리가 하거나 봉사자인 또래지도자가 들어가서 한 적은 있지만. • 지역마다 변형되게 하는데, 교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나니까.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아이들 교육하고 사후관리하고 선생님이 배우는 기간까지 했는데도 아까 선생님 마음대로 개인의 관심이나 열정으로 하다 전근이나 잦은 이동으로 흐지부지 될 때가 많았고, 학교운영지침을 전부다 읽어보고 보급하고, 지도자과정에서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읽어보면 정말 스탠다드하다. 결과는 선생님들의 업무. • 저렇게 안되면 안 움직이는게 교사다. 관심이 있고 열정이 하시는 분들도 1-2년 하다가 낙다운이 된다. 관심은 없는데 다른 매리트 때문에 와서 과전만 받아가서 지도자 나갔을 때 전혀 관리 안 해주는 교사도 계시고, 지금 같은 경우는 공문을 보내면 담당자 선생님들이 있다. 상담관련이 오시면 학교자체에서 공문담당하는 선생님이 있다. 지도자가 가면 교사가 책임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나 전문상담교사한테 다 시키고, 전문상담교사는 수 십개 프로그램을 다 관리하고 있어서, 누가 상담센터 지도자인지도 모르고 운영이 된다. • 몇 해 전에 오혜영 선생님. 또래활성화되고 있을 때, 또래 부모를 인터뷰를 했었다. 그 때 당시에 아이가 또래상담자로서 변하나, 뭐가 도움이 되었다. 그게 부모의 지지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에게 전화가 많이 온다. 중학교 가기직전에. 자원봉사자나 참여위원처럼 자발적인 참여면 하겠는데, 상위20%, 학교장추천, 부모동의서 같은 절차가 있어서 거기에 매여서 많은 참여하고 싶은 아이들 관리가 안되고 프로그램 보급이 안되고 있는 게 안타깝다.
	<p>포커스 그룹: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C: 실질적으로 또래상담은 쉬운게 아니어서 저도 이제 꿈은 컷는데 아이들이 학교상담의 한 부분을 굉장히 영향력 발휘했으면 좋겠다. 꿈은 컷으나 아이들이 교육은 받고 받는동안 내용은 이해는 하지만 상담활동에 투입이 되면 거의 재가보기에는 이게 어려운 것. 이론적으로는 내용은 굉장히 좋다. 공감대 형성하는데 또래끼리가 도민도 토로하고 서로 상담해주기가 이론적으로 좋지만 학교내에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있기 때문에 자기고민을 잘이야기 안하기 때문에 또래상담자로 지목이 된 아이들은 이제 교육도

	<p>받고 학교 일정부분에 혜택도 받고 하는데 자기한테 고민을 이야기를 안하니까 나름대로 어려워하는 부분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C: 상담이라는 내용자체가 쉽게 되는게 아니라서. 애들도 어려워하고 학교에서도 어려워하고 지금어떻게 해야될지도 모르겠고, 어른도 스킬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운데 또, 전문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이렇게 해바라 조언도 할 수도 없고. 애들 키우는 것도 어렵고, 지원받는곳이 없으면 학교 자체내에서 또래상담자 육성하는것도 쉽지도 않고 • 천안C: 또래상담반 운영을 했는데 내가 너무 기운이 떨어져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다른것도 운영함. 효과를 못봐서 또래상담은 접자. 애들 관리도 해줘야하고 2년동안 안함 • 천안B: 그런데 이제 새롭게 동아리를 맡아야 되면 의무적으로 교사를 배치해야되는 문제에서 맡으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에서 조금의 또 이미 동아리를 다 맡아져 있고, 교사 인원수도 한계가 있으니까. 더 이상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게 없는거예요. 좋은줄은 알겠지만 보급교육에서 끝난다거나 동아리 활동으로 연계가 안되는거죠. • 천안A: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과정에 필요한건데요. 우선 먼저 우리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이다 보니까 상담교사가 없어요. 진로상담 담당자만 있을 뿐이지. 그러다보니까 상담과 진로 이런 부분들이 담임선생님에게 위임되어 있지, 진로상담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복지 대상학교이기 때문에, 교육복지실이라는 것이 있어요. 외부인력이 와 있고 그 분이 워싱턴나 이쪽에서 위촉이 된 상담선생님들이 이제 1주일에 한번씩 오시면 그 분들과 연계해서 상담을 많이 진행을 해줘요. 그런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상담교사가 없다보니까 또래상담이 정말 의무적으로 가게 되면, 하나의 큰 짐일 수밖에 없어요. 현재 지금 있는 교사의 업무가 다른 학교의 2-3배가 되요. 실제 행정업무가. 그러다보니까 이 일 자체가 들어오는 것이 선생님들한테는, 또래상담자체가 작은 일이 아니니까 이게 들어왔다 그러면 거의 형식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 천안C: 상담교사가 배치되도록 권장사항이지. 교장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이 교사가 배치가 되면, 나 같으면 수업을 5시간 밖에 안하고 일반교사들은 22시간이 평균 수업이에요. 내가 안하는 수업을 다른 선생님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이 많아도 싫다 이거지. • 천안A: 센터에서 오셔서 해주셨죠. 해주셨으니까 그 뒤에 추수관리가 필요하다는거죠. 제가 관리하기에는 벅차다는거죠. 계속 아이들하고 상담을 했어야 되었는데, 아이들하고 상담다운 상담을 못했어요. 공부도 못했고. 제가 슈퍼비전을 해줄만한 능력이 안되요. • 천안B: 교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수업을 다하면서, 내 반 아이들 말고 또 다른 아이들을 관리한다는건 무리가 있는거죠. 그리고 그 담당선생님이 너무
--	--

	<p>나 과로를 하시게 되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A: 전문상담선생님이 필요한 이유중에 하나도 계속 선생님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제가 교육복지를 맡고 있지만, 교육복지가 상황이 그렇거든요. 선생님들이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고, 이 자체가 감당하기에 벅차다라는 느낌이 와요. 교육복지라는 것이. 저는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 실무자가 한 명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1-2년이면 거의 다 바뀌어요. • 천안B: 이후로 아이들이 좀 도울 수 있게 학교랑 센터가 더 도와야 되는데 거기까지 여력이 안미쳐진다는 거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교육받았던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도 자기는 또래에 관심이 있고 이번 방학 때에도 또 캠프를 참여하겠다고. • 천안B: 일단 센터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담당선생님이 계셔야 되구요, 1차 그 담당선생님이 또래상담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래야 저희는 어차피 외부 사람이고, 학교를 돕기위한 사람이자 학교안에서 저희가 주체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돕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장된 공간과 담당교사와 굳이 예산까지 안세우더라도, 적어도 학교 안에서의 또래상담 자라는 것이 무게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될 때, 애들이 뭔가 활동을 해도 활동에 탄력이 붙고 의미가 있는거지 자기는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해도 막 전파와요. 우리 친구이런데 어떻게 해줘야 되요. 애 상담 해줄 수 있어요? 이런형태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 보급교육을 갔던 선생님들에게도 연락이 계속 오는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학교안에서 할 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는거죠. 그런점들이 제일 아쉽기 때문에 제일 큰건 공간이에요. 애네들이 진행활동하고 모여야 되잖아요. 애들이 모여서 서로 지내들끼리 peer 슈퍼비전도 할 수 있는데, 지내들끼리도 으 으 할 수 있거든요. 동아리니까. 하면 되는데 그런 공간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뭔가 아이들은 격려되고 독려되어야 되는데 서포트 파워가 없잖아요. • 천안C: 동아리가 구성될 시간이 없어요. 방과후학교만 교육프로그램 진행하는 정도의 시간도 겨우 내는 상황이에요. • 천안C : 저희가 입시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생각도 못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여중이나 충남에서 내원중학교나 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래도 신경을 쓰는거지. 일반학교에서는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더 그래요. 전부다 성적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나름대로 문제를 더 일으키는 거거든. 스트레스가 다 일탈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가정해체 문제도 많고. 이리다보니까 진짜 이 상담이 필요한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상담이 시도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교사를 배치할 못하면, 교육부에서 인턴이라도 줘야되. <p>• 또래상담에 대한 업무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 제도적으로 다른 사업에 치여서 CYS-NET같은 주요사업에 치이면 가라앉는 느낌이 들것 같아요. 일선에</p>
--	--

	<p>서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업에 치이면 개인적으로 하다가 멈춘다거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관리자 분들과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상에 문제가 보여서, 옷이 문제다. 교사 , 학생, 지도자가 구분이 안된다. 늦게 나간 아이들은 자기조를 찾지 못한다. 피켓을 하나 만들어도. 아이들이 뒤에서 열외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와서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하는지 의문점이 생겼다. 사전에 공지가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뒤에서 보고 있으면 진행하는데 실례가 될 수 있고 • 저희 학교는 1학년 때 노원청소년수련관에서 쌤이 나와서 교육해주고 후에 끌고 나가심. 그래서 실제로 내가 노란 책자를 볼 일은 없었다. 수료증 양식이 다른 게 있어서 유심히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실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와 닿는 내용은 아니었다. 같은 사이즈의 다른 책자가, 또 래상담 지침서가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었다. 2개가 뭔가 내용이 다르겠지만, 노란 책자를 많이 참조를 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지침서의 내용이 좀 더 활동영역 선정, 활동 관리가 좀 겹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내용이 좀 더 추가되었으면 한다. • 복지쪽은 조직적인데 상담쪽은 이렇게 부족하다. 문항에 보면 예산 문제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음료수도 사주고, 별도로 상담활동 기록할 수 있는 노트에서 학생들 행동을 관찰해서 쓰게 하고 변화 활동도 기록하게 하는데, 돈이 들어갈 데가 있으니까 예산지원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 캠프 인원을 전체인원을 좀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멀리까지 오는데 1박2일이 너무 짧은 것 같다. 온김에 2박3일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저희는 연합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신규로 들어온 학교가 3군데 정도 되었다. 그런데 이 지침서를 가지고는 뭘 하기가 힘들다. 좀 더 실질적인것을 주었으면 좋겠다.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는가, 활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전국에 있는 우수학교를 매년 선정을 해서 매년 배포했으면 좋겠다. 활동이라는 것이 아이들이 상담만 하지는 않잖아요. 상담활동이 지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화된 활동영역들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구요. 요즘에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들이 들어오고 위클래스 들어오고 하면서 상담자를 찾아가는 것이 별로 어려워지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또래상담자 아이들이 상담이라는 것이 자신의 영역처럼 느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또래상담자가 할 수 있는 다른 활동들을 프로그램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좋겠다. 웹교재 수정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동영상에서 자꾸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웹교재 영상을 2년에 한번씩이라도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 운영지침서가 너무 오래되어서 보기 쉽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초급지역에서
--	---

	<p>보면 지역센터에서 예산을 안 잡았다. 작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파견을 했는데, 올해는 양성과정을 해서 운영하게 했더니 실적이 너무 많았다. 교육을 하고 나서 그 뒤예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꾸려서 해야되는데 저도 매뉴얼 구조화 되어있는게 없으니까 막연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교재에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심화프로그램 교재가 재구성 되어서 나왔으면 좋겠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지침을 또래상담 담당할 때, 또래상담 이해하기 위해서 운영지침을 봤었는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대상으로 어떻게 기획을 하나갈 것인가 . 연계망이라는 것이 기본교육보다 심화교육, 보수교육 센터차원에서 좀 헤드렸으면 하는 것이 마음만 굴뚝이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또래상담자들만 하는 심화교육을 대상으로 했지, 지도자 심화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지도자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전문지도자 교육 프로그램을 짠다면 좋겠다. 또래상담자 활동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단계에서도 지도자가 이러한 교육을 받을 NT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갔으면. 평가단계에서 지도자의 역량강화에 있어서 자기점검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지원센터 입장에서 지도자들에게도 교육을 하는 연계망이 필요할 것 같다. 지도자 슈퍼비전이나 연합회 등을 잘 하고 있는 센터들 대상으로 . 교사들도 지원센터에 명확하게 요구할 수 있고, 캠프 인원 확대할 때, 지도자 인원도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p>포커스 그룹: 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 3 : 저희학교는 그래도 나은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인력들이 있으니까 아이들 관리도 좀 되고 아이들이 그 시간대에 프로그램 하러 오는 것 조차도 힘들어하거든요. 요즘도 학원도 많이 가야되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도 안계시고, 아이들도 공부에 더 바쁘지 굳이 자원해서 나오지는 않거든요. • 진주B 4 : 교복투 담당선생님이나 전문상담교사가 있으신데는 그 분들에게로 업무가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저희는 일단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경유는 진로나 인성담당 하시는 부장앞으로 가면서, 선생님같이 특별히 말씀하면서 팔호해서 넣는다. 행정에서 접수하고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상담파트 담당하시는 분으로.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을 교사들이 이 연수를 받는다고 해도 자기파트 업무가 아니면 남의 파트 일은 월권이 될 것이고,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는 사립이 아닌이상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트 담당하는 교사들이 먼저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게. 주로 상담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이거나 이제 상담연수를 받으신 선생님들이 주로 인성파트 담당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먼저 이 직무연수를 받는다고 하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과외 업무가 되잖아요. 지도사가 파견을 나가면 그 시간만큼 선생님이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업무도 보실수도 있는데. 그 시간에 전적으로 지도를 해야된다고 하면, 선생님이 수업처럼 하셔야 되니까 그런 사명감이 없거나

		<p>매리트가 없으면 직접하실까. 저희도 우리 선생님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지도자 연수를 받으셨지만, 교사들이 많이들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바빠서 못하시는거예요. 프로그램 내용은 숙지 되셨지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9 :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도 교복투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담당 부장교사. 이끌어가는 부장교사 가산점 이런문제도 거론이 되도 안하시려고 합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꺼려하고. 초등같은 경우에 잡무가 많아요. 담임제다 보니까 애들이 다 집에 가야지만이 되는데 그 와중에 부진 아동들 몇 명씩은 봐주어야 하고, 그런것도 사실 힘든데 또래상담까지 하신다면 업무가 정말로. 현실이 그렇다라는. •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저해요인)진주A51 : 그래되면 사실 인력이 더 필요해요. 저희는 사실 프로그램 관리하고 챙겨주고 그것도 저희들이 방과후에 학교프로그램 돌아가는 거예요. 수요일 또래상담있죠, 월요일 독서치료 하죠. 지금 반딧불이 공부방 일주일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 또 저희가공부방도, 다른학교는 공부방도 매일 준다는데 저희는 도저히 안되서 일주일 두 번씩 주거든요. 하루에 두시간씩 한시간 반. 화요일 목요일 간식 반딧불이 나가죠. 정말 오후되면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돌아가요. 요즘엔 학교에 많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제거, 그리고 저희들은 사이사이 공문이 오죠. 평가 공문, 실적 공문 이렇게 많이 오죠. 그러면 오전에 이걸 또 해야 해요.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걸 맡아서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정말 이 상담에 그치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요. 그럼 그걸 하나만 해야해요.
<p>17. 학교운영 형태-동 아리</p>	<p>포커스 그룹:강 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A : 저는 동아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요. 3년 동안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 강원A : 개네가 끝나면 후배랑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동아리를 해보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후배랑 자연적으로 연결이 되는거예요. 내가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p>실무자 워크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학교에서 동아리가 3-4년 정도 되어서 있는 아이들이 후배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다. 동아리가 유지만 되면 일단 가입은 하고 꾸려가니까. 학교선생님이 하는 것보다 애들이 하는게 더 많은 것 같다. • 학교동아리 중에 개인 상담을 주로 하는 학교가 있다. 여자 고등학교이고, 그 학교는 개인상담 수첩을 배부하고 1년 동안 하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동아리 활동 모일 때마다 운영을 하고, 학교 축제를 할 때에도 심리검사도 지원하기도 하고. 하기는 한다. 센터랑 하는데도 있고 아닌곳도 있다.
	<p>포커스 그룹:천 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C: 또래상담반이죠. 일종의 동아리죠. ca시간에 또래상담반 운영 한적도 있고.
	<p>포커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 제가 직접 담당하지는 않고 있다. 저희 학교는 또래 상담 활동이 활성화

<p>그룹:천 안</p>	<p>되어있다. 선생님이 책임감을 갖고 이끌어 오셨다. 예산도 학교 관리자랑 이야기를 해서 상담샘을 초빙해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원래 클럽 활동일 1시간인데 2시간을 한다. 상담 샘을 초빙해서, 1년에 2번은 외부로 나가서 활동도 하고, 격주로 2시간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담임샘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또래상담 활동을 하고 시간을 빼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다. 1박 2일로 하기도 하고,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친구들에게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 고등학생쯤 되니까, 담당 선생님들이 관리자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켜서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 학교가 잘 되고 있다. 이번에 we 클래스도 신청해서 되고, 상담실에 상담 선생님도 상주해 계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지금까지 또래상담부를 조직해서 운영해 왔다. 매년 또래상담 전국대회에도 참석을 했고, 지역 상담실에서 도움을 받고, 선택된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처음에는 상담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와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뒤로 각 반에 1-2명씩 담임샘의 추천을 받아서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교우관계가 좋은 학생들로 추천을 받았음
<p>포커스 그룹: 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B : 이제 동아리를 해보니까 어떤 학교에서는, 선생님 학교도 방과후니까 이렇게 앉아서 한분이 책임지고 애들을 연락을 하고 교사들을 독려하고 애들을 남겨라 보내라 하지 않으면 거의 도망간다. 재미가 없어서 도망가기보다 학원을 가야 되고, 요즘 애들은 학교보다 학원이 더 중요하더라구요. 학교는 빼먹어도 학원은 빼먹으면 안되는. 그런것들이 크다보니까, 선생님처럼 노고를 하는 분이 안계시면 정식으로 수업중에 들어가지 않으면 참 힘들어요. 우리는 주로 거의 대부분 재량활동으로 가니까 애들은 어짜피 그 시간은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니깐. 뭐든 하나는 선택해야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올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한 학교를 2년전엔가 동아리로 해보니까 지도자의 무기력함이 감당이 안되는거예요. 오늘 잤더니 오늘은 6명, 오늘은 3명, 오늘은 10명 이런식으로 갈 때마다 인원이 달라지고, 동아리는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 진주B : 네. 대부분 그래요. 10개 학교 중에서 1학교나 2학교 정도가 동아리로 하는데, 교사가 특별히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절반은 탈락해요. • 진주B : 학교에서 동아리자체를 많이 안하죠. • 진주B : 개별적으로 댄스동아리, 악기 미술동아리들 외에 애들이 자기 과외 시간을. 자원봉사동아리 있구요. 그 외에는 이런 동아리들 모여가지고 또래상담 하는걸 해보니까, 적어도 고등학생쯤 되어야 되고, 중학생을 예전에 했을 때는 고등학교 학교가 흩어져버리니까 동아리가 흩어지구요, 고등학생을 해보니까 1학년때는 하는데 2학년 때는 공부해야되서 이제 흩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상업계나 공고 계통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학교 자체에서 동아리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활동 점수라던지 딸 것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p>18. 학교운영 형태-CA</p>	<p>포커스 그룹:강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A : 저는 또래상담을 특별활동 형식으로 하고 있고요. 동아리 형식으로 하고 있어요. 맨 처음에는 또래상담 훈련만 했어요. 3년 동안 그냥 이 프로그램 갖고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째쯤에서부터 동아리로 했어요. 훈련으로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동아리로 바꿨고. 동아리 바꾸면서 2년은 또래상담 동아리가 아니라 도서관 관리 동아리처럼 도서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방을 얻고 애들을 결속하고. 그러면서 이 동아리가 크게 만들어졌어요. 또래상담만 갖고는 참 어려워요. 강원A : 저도 CA예요. 동아리지만, CA를 동아리랑 같이 묶었어요. 제 CA는 동아리 아니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어요. 모두에게 개방한게 아니라 1학년때. 강원A : CA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격주로 토요일 2시간 CA시간이에요. 많은 인문계학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원D : 1달에 4시간 정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되요. 강원D : 학기에 17시간, 강원A31 : 17시간 이상이면 되는 것 같아요. 강원E : 저희는 1주일에 한시간씩 하고 있구요. 놀토가 있어서 한 주는 목요일날 해요. 1시간씩. 그래서 자주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1시간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하다보면 열다보면 가야되요. 강원D : CA로 들어오면 활동시간 확보가 되니까요. 강원A : 또래상담을 운영할 수 있는게 CA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CA운영시 취소되는 경우가 많음) 강원A : 우리학교는 시간표에는 있는데 아침에 오면 오늘 CA뮌로 대체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CA한 것으로 올려요. 강원B : 운영을 참 달리하니까 몰아서 하는데가 있고, 격주로는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한달에 한번밖에 못하고, 그 한주는 엉뚱하게 딱거 하면서 CA했다고 하고. 강원A : 내일 CA는 뮌로 대체합니다. CA한걸로 그런데 올라가고.
	<p>실무자 워크숍 (방나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것은 학교에서 웬만하면 힘든게, 창의 재량활동. 수업일수를 다 채운 후에 이것을 해야한다. 실제적으로 수업을 빼주는 것이 아니다. 수업시간을 인정해주어야 가능 할 것 같다. 학부모 반발이 있다고 해서 안하려고 한다.
	<p>포커스 그룹:천안 (강석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 실무자워크숍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갔다. 올해 처음 참석을 했는데, 여기 오는 비행기값이 문제가 되었다. 학생들 자부담을 시켰다. 학생들 간담회를 할 때, 학교에 예산에 반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잡아주셨고, 안한 사람도 있다. 몇몇은 복지사업 예산을 받았고 몇몇은 자비부담을 하고 왔다. 저희는 학생들한테 기초교육을 1학기 때 시키고, 7월에 제주 연합캠프를 갔다온다. 2학기 때 심화

		<p>교육을 시키고 나서, 중학교 대상으로만 하고 있다. 2학년이 되면 또래상담 자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예상을 했고, 친구들이 슈퍼비전을 나가는 시간이랑 상담을 한 활동일지를 보내주면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 운영을 하다보니 학교에 책임질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에 교육복지 선생님이 있는 대상으로만 간담을 한다. 1년 솔리언또래상담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학교에서 이 정도는 해주어야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년초에 간담회를 가져서 저희 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교육을 나가다보면 학교 8-9시, 방과후, 점심시간, CA로 요청을 할 경우에 부담이 많이 되었다.</p>
	<p>포커스 그룹: 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B: 어쨌든 학교안에서 청소년에게 상담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기 때문에 CA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탈락률이 없고 그대로가죠. • 진주D: 그건 학교마다 진짜 다르구요. 보통 한달에 한번가는 학교도 있고, 전일제로 하는 학교도 있고 토요일에 3시간씩, 쉬는 시간따로 있고, 몰아서 한달에 한번, 학교에서 정해주는게 있어요. 그 날에 또 갔다가 다시 오고. • 진주B : 다 달라요. 어떤 학교는 4월한번 6월한번 이런식으로, 일년에 4번을 와주세요. 그런곳도 있고 학교마다 달라요. 매주 나가는 학교는 이 프로그램을 다 하고도 할게 시간이 남으니까 지도자가 선생님 뭐해요 뭐하면 좋을까요. 어떤데는 4번 나가는 학교는 뒤에꺼는 다 못하고 바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시간이 달라요. 또 어떤 학교는 중간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면서 7월 방학전에 몰아서 다 해달래요. 그리고는 2학기 때는 안하게되었다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고, 아주 드문케이스인데, 변덕이 심하신 분이. • 진주A : 그건 수업시간의 일부분이니까, 그 때 활용하는게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드는게 담당선생님이 상담 연수를 받으셨는데, 일과후에 하려면 (교사도 일과후가 무리죠) 무리기 때문에 CA시간을 활용하면 어짜피 하는거니까. • 진주B: 이 교육이 CA로 가다보니까 1년단위로 대상자가 변화된다는 것, 동아리가 아니다 보니까.
<p>19. 학교장의 중요성</p>	<p>포커스 그룹:천안 (김병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안B: 꾸준히 나가는 학교들은 다음해는 동아리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하고 담당선생님하고 얘기를 드리고, 그런데 담당선생님들 보직이 또 바뀌니까, 약속을 못하시는거예요. 그래서 교감선생님하고 다리를 놔주시는거죠. 그러면 저는 교감선생님을 좀, 역할이 상담교사가 계신 분은 상담교사만 만나면 되는데, 아니신분들은 내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교감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 만나게 되면 제가 가서 뵙고, 센터를 소개하고 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이 일들이 어떤 효과를 있을 것이라든가 것을 소개를 드리면서 동아리로 만들어주십시오라는 건의를 드리고, 학교에서 동아리로 만들게 되면 담당교사가 배치가 되어요. 소정의 예산이 채워져야 되고.
	<p>포커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 : 네. 또래상담하면서는 그런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도 상담

	<p>그림: 진주</p>	<p>교사던지 외부쌤들이 많이 오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일이거나 수고한다고 하시고 하시지. 못하게 하시지는 않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주A :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계세요. 학교 선생님들이 또래상담 이거 교재만 주면 쌤들이 다한다. 왜 굳이 외부강사분들이 와야되나 하는 경우도 계신가 보더라구요. • 진주B : 간혹 어디가서 연수받으시고 상담 내가 다한다. 지나가는 학생들 다 불러서 교장실에서 다 상담하시고, 학생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 (예산으로서 결정권자에 대한 학교장의 중요성)진주A33 : 그런데 이게 제생각이는 이제 활성화가 된다면 예산부분들이 예를 들어 저희들이 또래담을 한다 그 지금 무료지원 이지않습니까.그쵸? 이번에는 저희들이 못할 뻔 했잖아요. 예산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저는 항상 사실은 뭐 만약 가게 된다면 한번 여쭙보려고 했거든요. 교장선생님께 이래이래해서 하던건데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 마인드는 지금까지도 무료로 하던건데 왜 갑자기 또 안되느냐. 이렇게 하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 계속하던건데 그랬을 때 그 프로그램들 넣고 그랬거든요. 연초에 사업계획세울 때 또래상담 있는데 예산 이런 문제도 저희 학교는 못할 뻔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연계를 해주셔서 하고 있는데, 그런분들이 이제 자꾸 우리 학교만 굳이 우리학교만 이걸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학교입장에서 보면, 활성화가되다보면 예산부분에서 저희 학교에서도 굳이 꼭 안된다 이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교장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강사료도 많이 적당히 해달라는 것도 아니니까. 어느정도 우리 일반 강의료에서는 측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근데 이게 하는 학교는 하고 안하는 학교는 안하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다른학교는 안하는데 굳이 뭐 이걸 할 필요있나. 저희들도 이제 학교에서 크게 목소리를 크게 높일 입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이렇게 하라하면 하고 이런 입장이다보니까 이렇게 주장은 사실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강사료가 얼마고 그러면 하지마라 그러면 사실 못할 입장인데 프로그램이 좋아서 하고 싶어도 못할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굳이 교장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지마라 이렇게는 안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될 것 같기도 한데 지금은 인제 소그룹으로 되다 보니까 이쪽이 예산 때문에 활성화가 못되다 보니까. • 진주B : 경기도쪽은 교사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만약 교장선생님이 이런 연수를 미리 잡고 교장연수를 이런 프로그램을 미리 들어가고 알게 된다면 또래 위촉을 자체를 그 학교에서 전교생앞에서 한다던지 진짜 이런 뺏지를 달고다니는 상정이 된다던지 하면.
20.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센터입장)

학교활동 프로그램 지원요청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B : 만약에 아이들한테 우리를 불러서 하고 싶은데 돈이 없다, 예산이 없어서 부르지 못한다 하는일은 하지 말고, 그럴 때는 불러라. 그런데 워낙에 오는데야는 아니고 혹시 되신다면 주신다면 감사하고 없어도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 하라고 얘기를 하죠. (교사) 강원D :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했지만, 나중에 마지막 한번인가 수료초반에 강원B국장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수료식 할 때 2시간 진행을 해주셨었어요. 강원A : 또 하나는 교사는 교과목과 관련해서 애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을 수업을 하는 현장하고 상담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현장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장자체가 양쪽이 다른 현장이구요. 거기서 부조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교사가.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그런 장면에만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죠 아이들한테. 강원E : 네. 진행자도 보내주시고 하면 참여했을 때, 원래 봉사활동도 교육 시간도 봉사시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활동 시간도 좀 주고.
	실무자 워크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은 교사가 하는 것으로. 개척을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되고,
	포커스 그룹: 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저는 그런분들도 또래상담가 양성만 하고, 동아리나 활동을 통해서 해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서까지 요구를 하고 싶다.
21. 홍보의 필요성	포커스 그룹:강 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C : 또래상담 동영상은 홍보 동영상을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저번에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들으러 갔는데요. 쉬는 시간이나 그럴 때 그쪽에서 제작된 동영상을 틀어 놓는 거예요. 정말 잘 만들어졌고 보고 있으니깐 한번 가고 싶다. 그 생각이 절로 나는 거예요.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또래상담 동영상이라던가 이런 게 입으로 해야합니다 이런 게 한계가 있는 거 같구요. 정말로 봤을 때 느껴질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강원E : 애들 교육할 때도 또래상담 교육할 때도 필요한 거 같아요. 또래상담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워 갈 때 이용하는 사례들 같은. 성공한 사례도 조금
	캠프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D : 천안지역이어서 그런지 현지 교사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 현지에 계신 상담 선생님이나 지도자 선생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등학교에 파급교육을 솔리언또래상담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자해서 홍보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알리는 것부터 하고 있다. 워낙에 인식이 안되어있어서. 아이들이 기초훈련을 해도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서.
	포커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B : 또래상담. 했을 때 와~ 나 그거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잘 안들잖

	<p>그룹: 진주</p>	<p>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진주A : 근데 또래상담이 뭐예요 하면서, 어 해보고 싶다는 애들은 많아요.
<p>22. 또래상담 운영평가</p>	<p>포커스 그룹:강 원도</p> <p>포커스 그룹: 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A : 시간을 뒤서 제가 받아본건데 또래상담 중에 사회복지 쪽이라던가 그 쪽에 전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꽤 나와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런쪽에 관심을 안가지다가 그런쪽에 전공을 연계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구요. 그런것들을 평가를. 짧은 기간안에 뭐를 볼 수 있는게 아니구나 굉장히 긴 시간에 볼 수 있는거구나.. 강원D : 상담에 대한 설문을 넣는 것은 매번 그런건 아니구요. 신입생 예비 교육 때, 선배하고 후배하고 1:1 매칭을 시켜줘서 선후배가 만남시간 1학기 1년 멘토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속삭임 아이들이 2,3학년 속삭임 아이들이 1학년 신입생 전체를 개별상담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제가 선배 1:1 상담은 어땠나? 속삭임선배하고 만났나? 만나서 느낌은 어땠나? 도움은 되었나? 이런식으로 설문을 하는거죠. 강원D : 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안 물어봐도 되는데, 매년 애들이 선배들에게 들고 오는거거든요. 진주B : 작년에 받았던 소감문과 교재에 나와있는 평가지를 걷어요. 잘 쓴 것은 저희가 소식지에 올리고, 활동사진들 이런것도 다른활동은 사진을 찍으면 얼굴을 가리고 하는데 또래 아이들은 얼굴을 막 내놓고 사진을 잘 찍어요. 진주B : 조금은 이제 대부분 애들이 어떤점에서 좋았나 어떤점에서 아쉬웠나 이런 질적인 질문들을 받으시면 문항들을 조금 질적으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수준 평가를 형용사적인 수준평가를 주관적인 수준평가를 할 수 있게. 다 그냥 보통 아니면 보통 뭐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진주A : 저희는 이제 소감문. 느낌이 어땠는지 그정도로 밖에. 선생님들 가실 때 바쁘시면 그냥 가시고 이제 제가 그 선생님들 하고 이 수업 어땠는지 그런 것 여쭙보고 아이들이 잘 참여했는지 왜냐면 저희는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되어야 하니까. 아이들의 참여도 이런거 정도는..

A Study on Development of Model for Solian Peer Group Counseling School Management

ABSTRACT

This study was to proceed to develop the peer group counseling that could be used in the school on site in order to establish the peer group counsel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of school violence.

To develop, this study grasped the research of management and its current state of peer group counseling at home and abroad through the precedent study, and investigated the researches that showed the results of peer group counseling. To configure the detailed contents of a guidebook, this study was to draw key components necessary for the configuration of guidebook through the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The survey is to be performed as an object of three groups. Based on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the peer group counseling education in 2009 and 2010 and the youth peer group counselors who participated the peer counselor camp in 2010, this study was to conduct the survey related to the practice and management of peer group counseling.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conduct the focus group interview as a course of Elicitation of in-depth elements except for the survey. The object of focus group interview is consisted of a person in charge of peer group counseling in the youth counseling center and system administrator of peer group counseling by regional groups like teachers and counselors, etc. The results of interview might be summed up by the deduction of common category related to the contents of guidebook through the discussion in the five-steps and generating process of category by the researchers.

As for the contents of management rule for school peer group counseling developed through such process above, it could secure validity of this study toward the expert' s verification of validity.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this study has a meaning as follows. This study was consisted of

actual management guideline considering the recent status of education and changes in environment of peer group counseling. As a result, this study was to secure the systematization and unity of peer group counseling by applying the guideline for the peer group counseling to the education for leadership. In addition, this study can make the education of peer group counseling leadership enhance through the development of guideline and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expertise for the leaders.